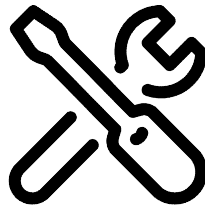


“나, 성소수자 노동자”

- 두 번째 이야기 -

둘로 나뉜 세상에서 살아남기



목차

여는 글 _ 2

인터뷰

- 첫 번째 사람. 공장 노동자로 살아가는 트랜스여성 초희씨 _ 4
- 두 번째 사람. 대학원 연구원으로 일했던 트랜스여성 북극여우씨 _ 17
- 세 번째 사람. 웹 디자이너로 살아가는 남성 동성애자 소리씨 _ 33
- 네 번째 사람. 전기자동차를 만들고 수리하는 30대 레즈비언 하나씨 _ 43
- 다섯 번째 사람. 레즈비언 노동자, 용띠 윤여정 _ 53
- 여섯 번째 사람. 우체국 노동자 임씨 _ 63

공통 키워드 #커밍아웃, #젠더, #불안 _ 71

부록: '나, 성소수자 노동자' 첫 번째 이야기의 인터뷰들(2011) _ 87

- 여는 글 _ 89
- 첫 번째 사람. 우체국 노동자 임씨 _ 90
- 두 번째 사람. 백화점 판매노동자 이씨 _ 101
- 세 번째 사람. 게이 기간제교사 비씨 _ 107
- 네 번째 사람. 생산직 레즈비언 히씨 이야기 _ 115
- 다섯 번째 사람. 레즈비언 비정규직 노동자 성순씨 _ 124
- 여섯 번째 사람. 이주노동자 트랜스젠더 미셀씨 _ 128
- 마치는 글 _ 134

부록 끝 _ 135

행성인 성소수자노동권팀 소개 _ 136

행성인 소개 _ 137

::여는 글

‘나, 성소수자 노동자’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며

‘나 성소수자 노동자’ 첫 번째 이야기는 2011년에 발간 되었다. 여섯 명의 성소수자 노동자를 인터뷰한 내용을 엮어 성소수자 노동자가 일터에서 어떤 경험을 하는지 사람들과 나누고자 했다.

2011년 이후 6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성소수자 인권을 둘러싼 한국 사회의 지형은 급격히 변화했다. 보수 정부와 정치세력이 일베와 어버이연합, 근본주의 기독교 같은 곳들을 뒤에서 경제적, 제도적으로 지원하며 소수자 혐오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이용했다. 혐오의 대상은 성소수자와 이주민 뿐 아니라 여성, 세월호, 노동조합 등 우파 정치에 걸림돌이 되는 모두를 겨냥했다. 민중이 서로가 서로를 적대시하고 경쟁하게 만들면서 그 사이의 이권을 챙겼다.

‘혐오’는 그렇게 한국 사회의 키워드가 되었다. 혐오의 수위가 강해진 만큼,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활발해졌다. 성소수자 운동도 급격히 성장했다. 서울 시청광장을 가득 채울 만큼 많은 성소수자와 지지자들이 퀴어문화축제에 참여했고, 그와 비슷한 수의 사람들이 바로 옆에서 반대 집회를 했다.

지난 겨울에는 촛불의 힘이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정부를 세웠다. 유신의 잔재마저 무너져 기댔던 이데올로기가 약해진 우파는 성소수자라는 새로운 희생양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동성애 찬성/반대’는 우파의 새로운 색깔론이 되었다. 그에 단호하게 맞서야 할 정부와 기성 정치인들은 여전히 ‘사회적 합의’같은 말이나 하며 성소수자를 포함한 사회의 많은 소수자와 빈자들의 삶을 ‘나중’으로 몰아내고 있다.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진 만큼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많이 변화했다. 국제 여론조사 연구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3년까지 6년 동안 "사회가 동성애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대답한 비율이 전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한 나라는 바로 한국이었다. 2007년 18%에서 2013년 39%로 무려 21%나 증가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30-40대는 절반 정도가(48%), 20대(18~29세)는 무려 71%가 사회가 동성애자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대답했다고 했다.

하지만 궁금해졌다. 성소수자인 우리들의 삶은 정말로 이렇게 급격히 나아지고 있는 걸까? 2013년 프랑스의 조사분석 회사인 '입소스'에서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직장 동료, 친한 친구, 또는 지인 중에 성소수자인 사람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한 한국인의 비율은 약 4%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아무도 커밍아웃을 하지 않는 것이다. 지난 2011년의 인터뷰를 통해 얻은 중요한 결론은, 일터에서 커밍아웃하지 못하는 이상 성소수자의 노동권 문제를 이야기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것이었다. 드러나지 않는 노동자, 유령처럼 보이지 않는 노동자의 권리는 그만큼 더 쉽게 무시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이번 인터뷰의 중요 키워드는 '커밍아웃'으로 잡고 시작했다. 인터뷰를 진행하며 다른 키워드들이 나오기도 할 테지만 커밍아웃이라는 키워드만큼은 꼭 다룰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인터뷰를 진행하며 일터에서 커밍아웃은 단순히 한번의 해프닝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커밍아웃은 성소수자 노동자들이 자신을 둘러싼 모든 사람과, 사회와 관계를 맺는 과정 그 자체였다. 커밍아웃을 하지 못한다는 건 그 자체로 고립됨을 의미했다.

'젠더'와 '불안'은 인터뷰를 진행하며 자연스럽게 떠오른 키워드였다. 성별 규범에서 벗어난 존재로서 성소수자들이 일터에서 경험하는 특수한 차별은 어쩌면 당연히 '젠더'라는 키워드로 묶일 수밖에 없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번 인터뷰를 통해 성소수자의 존재가 가부장적 질서 속의 여성/남성이라는 이분법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불안정 노동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질서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부족하게나마 고민할 수 있게 된 것은 좋은 일인 것 같다.

이번 인터뷰에서는 두 명의 20대 트랜스젠더 여성, 20대 HIV/에이즈 감염인 동성애자 남성, 30대와 40대 레즈비언 여성, 그리고 지난 2011년 인터뷰에서도 만났던 우체국노동자 임씨를 인터뷰했다. 2011년의 인터뷰에서 다루지 못했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섭외했다.

짧은 시간에 인터뷰를 정리하느라 부족한 점이 많지만, 부족한 점은 이 인터뷰 자료집을 읽는 분들과 함께 채워나갈 수 있으리라 믿는 뻔뻔함(!)을 가져본다.

펴낸 날: 2017년 11월 22일
펴낸 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첫 번째 사람. 공장 노동자로 살아가는 트랜스여성 초희씨 둘로 나뉜 세상을 건너기

모리, 재운

경기도 안산의 한 공장에서 노동자로 살아가는 26살 트랜스젠더 여성(MTF 트랜스젠더) 초희씨를 만났다. 많고 많은 일자리 중에서 공장 일을 선택한 이유와 공장에서 노동하는 것이 그녀의 삶에 어떤 의미인지를 함께 나누면서 트랜스젠더 여성이 트랜지션을 마치기까지의 녹록치 않은 긴 시간들을 가늠해 볼 수 있었다.

1. 채용이라는 서바이벌 안에서 생존하기- “우린 그런 사람 안 받아요. 가세요.”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한 개인이 자신의 삶을 감당하려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생계의 수단인 자본. 그 자본을 가지기 위해 자본이라는 권력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임금노동을 하는 노동자로서의 삶을 살아낸다.

“더 심한 말을 하는 곳도 있어요.”, “우린 안 돼요, 가세요.”, “우린 그런 사람 안 받아요. 가세요.”라고. 그런 경우가 수도룩해요. 트랜스젠더라는, 성전환자라는 이유로 거절당해요.

“그게(취업) 제일 걱정이었어요. 이번에는 면접이라도 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제일 힘들었어요. 서류를 내서 ‘면접 불합격입니다’, ‘면접 안 됩니다’ 등등 연락이 오면 진짜 너무 화도 나고, 속상하고 이어서 생계가 걱정이 되고, ‘어떡하지?’ 이제 통장에 잔고는 다 떨어지고, 곧 있으면 또 월세 내야하고 뭐 내야하고 뭐 하고 이리 계산을 하면 적자가 나오는데, 빨리 일을 시작해야 하는 그 다급함이 목 끝까지 차면..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랑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누구한테 도움 하나 구할 사람이 없어요.”

“예전에 취업 항상 준비할 때는 ‘차라리 트랜지션 포기할까?’ ‘그냥 인생 다 포기할까?’ 그냥 그러면 속이 편하거든요. 근데 뭘 취업을 해야지 돈이 생기고 돈이 있어야지 수술을 하든지 밥을 먹든지, 집세를 내든지 하는데…….”

임금노동의 현장으로 진입하기 위한 서류전형에서조차 초희씨는 자신이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만으로 많은 차별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 낯다운 모습을 찾아가는 과정을 시작한 대가는 너무도 컸다. 주민등록번호로 드러나는 법적 성별과 외형적 성별이 일치했던 이

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어려움이었다.

“예전에는 바뀌고자 하는 성별이 아니라 지금 있는 (법적)성별 그대로 취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트랜지션 관련) 쪽으로 질문도 안 하고 별 걱정도 없었는데, 제가 현재 성별과는 다른 바꾸고자 하는 성별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이나 차별 그런 게 좀 무서웠기 때문에 긴장을 많이 했죠.”

한국의 법적 성별정정 요건은 까다롭기로 유명하다. 수천만 원에 달하는 성전환 수술(혹은 ‘성적합 수술’로도 불린다) 비용은 의료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다. 트랜스젠더인 자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가족이 많아 부모님에게 도움을 받기도 힘들다. 많은 트랜스젠더들은 성전환 수술비용을 혼자 힘으로 마련하기 위해 성별위화감¹⁾을 참으며 자신의 성별 정체성과 맞지 않는 성별(주민등록상 법적 성별과 같은 성별)로 위장한 채 일하거나, 초희씨처럼 자신의 성별정체성과 일치하는 성별로 취업이 가능한 몇 안 되는 일자리를 찾는다. 그러나 어느 것이든 쉽지 않다.

“스무 군대를 이력서 넣었어요. 이력서 넣고, 좀 차가운 소리 많이 들었죠. 그리고 떨어지고 또 하여간 열다섯 번째 떨어졌을 때는 자살 충동 엄청 와요. 진짜로 엄청 와요. 그러다가 지금 회사 다닐 수 있게 된 건데, 그런 쪽에서 좀 많이 힘들죠.”

“외적 모습이 여성이며, 남성의 걸걸한 목소리로 이력서를 내려 가요. 그 사람이 서류를 잠깐 보더니, ‘어, 혹시 트랜스젠더세요?’ 라고 물어요. 그럼 처음 면접 볼 때니까 마음이 ‘쿵’ 하죠. ‘쿵.’ 그리고 일단은 ‘네’ 라고 해요. 그럼 사람이(면접담당자) ‘안 되실 거 같은데…….’ 표현을 해요. 그럼 제가 ‘왜요?’ 라고 물어보면, ‘일단은 주민번호가 남성이고, 두 번째는 목소리가 좀 굵기 때문에, 들어가시면 아무래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 끼치시는 게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일하는데 제가 피해를 주냐고요, 그죠?”

이력서에 찍힌 주민등록번호와 외적인 성별의 차이는 그 자체로 아웃팅이나 마찬가지다. 노동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초희씨는 트랜스젠더에 대한 사회의 차별적 시선을 오롯이 마주해야했다. 스무 번의 탈락은 나의 진정한 모습은 사회에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스무 번의 메시지였을 것이다. 세상에 존재하는 것만으로 피해를 준다고 여겨지는 사람이라는 말, 바꿀 수도 없는 내 정체성을 이유로 한 스무 번의 거절. 스무 번의 존재 부정 앞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1) 트랜스젠더는 평균적으로 생후 4년부터 ‘성별 위화감’을 느끼기 시작하는데, 자신의 성별과 다른 몸, 다른 사회적 기대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그 자체로 엄청난 스트레스이자 트라우마인 경우가 많다.

초희씨에게는 그런 무력감과 공포를 이겨낼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초희씨는 가족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 커밍아웃을 한 이후 1년째 연락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였다. 다행히 초희씨에게는 같은 트랜스 여성인 애인이 있었다.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만드는 구직 과정을 버틸 수 있었던 건 지지기반이 있기 때문이었다.

“서로 동시에 힘듦을 느끼고, 서로 아픔을 뭐 공유하고, 서로 위로해주기 때문에 제일 많이 지지가 되죠. (중략) 사실상 가족이 없어요. 유일하게 가족이 지금 애인뿐인데, 한편으로는 애인마저 없으면 난 어떻게 살지. 그러면 그럴 때는, 진짜 자살밖에 생각이 없더라고요. 왜냐면 세상에 말할 수 있는 데나 믿을만한 사람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고 세상 나 혼자 살 거면 뭐 하러 살아요. 그냥 죽고 마는 게 낫지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경제적인 부분만 따져봐도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초희씨에게 물었다.

“이 길을 안 걸었다면 지금쯤 P 대기업에서 한 6년째 근무를 하고 있겠죠? 3년, 최소 못해도 3년이고 지금 대리를 달았겠고, 그러면 한 연봉 자체에서, 못해도 천 이상은 차이가 났을 거예요. 지금이 최고 연봉으로 쳤을 때 3천 6백이거든요? 최고로 쳤을 때? 근데 아마 그때쯤 계속 대기업을 다녔으면 거의 뭐 4천, 회사에서 집도 제공해주고, 차도 뭐 할인 받아서 샀을 거고. 그런 생각도 가끔씩은 해요. 아 내가 지금 이 길을(트랜지션) 선택 안했으면, 남들 못지않게 부러움 받으면서 내 여가생활 즐기면서 생활 했을 텐데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면서 일을 하나. 그런 생각 들고. 좀 많이 차이가 나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2. 쓰레기 같은 주민등록번호

가장 시급히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뭘지 묻자, 초희씨는 가장 먼저 주민등록번호를 이야기했다.

“쓰레기 같은 존재죠. 아주 없애버리고 싶은데. 내가 이 숫자 하나 때문에 이런 대우를 받고, 이런 시선을 받고 살아야하나.”

초희씨는 주민등록번호가 쓰레기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트랜스젠더에게 주민등록번호는 성별 이분법적이고 차별적인 세상의 표상임과 동시에 가장 직접적이고 현실적으로 작용하는 벽이기도 하다.

“어디 X 은행사나 보험사에서 전화가 오면 본인확인을 너무 많이 해요. 한 서너 번 거쳐야 돼요. ‘주민등록번호가 이러이러 하던데, 집 사는데가 어디예요?’ 물어보기도 하고. ‘이메일 주소가 어떻게 돼요?’ 물어보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그걸 다 확인 할 수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 아니예요? 그냥 기본적인 거만 물어보면 되는데 내가 남잔지 여잔지 그게 왜 중요해. 내가 뭐 미국에 들어가려고 입국심사 하는 것도 아니고.”

“주민번호가 참 그래요. 오늘도 제가 아파가지고, 다른 병원에 갔거든요 처음 가는 병원? 그런데, 접수증에 주민번호 뒷자리에 1 적었더니, 간호사가 ‘어? 이거 2번이 아닌가요?’ 해서 ‘맞게 적었어요,’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네들끼리 앞에 대놓고 소근 소근 거리는데, 참 기분 묘하더라고요.”

주민등록번호 때문에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초희씨는 낯선 사람으로부터 스무고개 하듯 질문을 받고 대답해야 한다. 초희씨가 죽기보다 더 싫어하는 구직 과정에서 경험한 스트레스는 모두 주민등록번호로부터 출발했다.

“(면접에서) 주민번호 때문에 걸리는 게 너무 많으니까. 주민번호 보면 또 물어봐요. ‘어, 그럼 이 나이에 남성분이 성전환 하시는데 군대는 다녀왔어요?’ 또 군대 얘기가 자연스레 나와요. 군대 이것저것 다 물어봐요. 다 물어보고 ‘아, 네.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그럼 문자보면 ‘탈락했습니다.’ 이렇게 와요. 뭔가 좀 신상 털리고 장이고 내장이고 다 빼고 버려진 기분?”

“면접관이 혼자 보는 게 아니거든요. 일 대 다수를 보든지, 다수 대 다수를 보든지. 차라리 일대일이면 상관이 없는데, 다수 대 다수에서 아웃팅을 당하면 완전 정말 화가 나요. 면접관이 서류 보더니 막 인상이 찌푸려져요. “저기 X초희씨, 남자세요?” 사람들이 다 나를 봐요. 놀라움과 좀 그런 시선 있잖아요. 그런 표정으로 저를 보면 “내가 그렇게 잘못된 건가?” 왠지 모르게 창피하고, 뛰쳐나가고 싶고. 그럼 어쩔 수 없이 나지 막하게, “네”라고. 그럼 이제 거기서 또 호구조사 당하는 거예요. “뭐 어찌다가 성전환 하시게 된 거예요? 여자로 지내는 게 편하세요? 남성으로 지내는데..” 어찌고저찌고…….”

초희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꼭 이력서에 성별을 적어야 하는지 궁금해졌다. 여성의 일과 남성의 일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일터라면 이력서에 성별을 적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닐까? 그럼 초희씨가 면접을 볼 때마다 아웃팅 되는 일은 겪지 않을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숫자 1과 2 혹은 3과 4라는 주민등록번호로 간단하게 나눠지기엔 우리는 더 복잡한 존재다. 법적 성별정정도 마찬가지다. 숫자 2를 획득하기 위해 초희씨는 원하지도 않는

다로운 법적 성별정정 요건을 맞추려 하고 있었다. 법원은 성별정정 요건으로 '완전한 여성' 혹은 '완전한 남성'이 되기를 요구한다.

“솔직히 저는 주민등록증만 아니라고 하면, 굳이 성별정정 같은 복잡한 과정 걸치고 싶지 않거든요. 수술은 하고 싶은데, 그것도 외관상 제 만족을 위해 하는(하고 싶은) 거지. 그런데, 법적 부분 (주민번호가 노출되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주민등록번호. 너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게 많아요.”

“패싱도 남성이고, 주민번호도 남성이고. 근데 이 번호 하나 바뀌었다고, 번호하나 다르다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보이는 차별과 함께 싸우게 되는 거죠.”

주민등록번호는 트랜스젠더에게는 낙인이자 트라우마인 것 같았다.

3. 공장 노동자 - “공장은 일만 잘하면 되는 곳”

초희씨는 애인의 이전 직장 사장의 소개로 안산의 공장으로 취직할 수 있었다. 공장은 트랜스젠더인 초희씨를 비교적 쉽게 받아들였다.

“안산 쪽이, 저희가 선택한 큰 이유가 뭐냐면요. 외국인들이 많으면 트랜스젠더가 취업 하기가 좀 편해져요. 왜냐하면 일반 한국 사람들이 있는 곳은 확실히 남자 여자를 구분을 하지만 외국인들을 포용할 줄 아는 회사 같은 경우는 그런 성별은 중요한 게 아니라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더 보기 때문에. 그런 뭐 인종이나 성별이나 그런 것보다는 일을 할 수 있느냐를 보는 것이죠.”

“트랜스젠더들이 수술비 모으려면 단기간에 공장만큼 많이 주는 데가 없잖아요. 그리고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은 이상 공장만큼 많이 주는 데가 많이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초희씨는 이주민 노동자가 많이 일하는 지역에 위치한 공장을 일터로 선택했다. 공장은 트랜스젠더 비용을 모으기 위해서 빠른 기간 안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일터, 그리고 잘만 숨기면 여성으로 일할 수 있는 일터였다. 초희씨가 트랜스젠더라는 사실은 사장만 알고 있다. 사장은 혹시 공장의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면 본인이 나서서 해명해주겠다고 약속해주기도 했다. 이주민이든 성소수자이든 ‘일만 잘하면 되는’ 일터인 공장. 초희씨가 일을 할 수 있으니 다행이라는 생각과 함께, ‘일만 잘하면 된다’는 말은 노동자를 기계나 다름없이 취급하기에 할 수 있는 말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기계에겐 정체성이 없기에, 국적이든 성별정체성이든 상관이 없는 것이다. 소수자들이 왜 불안정 노동

에 더 많이 몰리는지 알 것 같았다.

하지만 초희씨와 함께 인터뷰에 참여한 애인 서연씨(가명)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니 공장이라고 해서 항상 모두를 환영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았다.

“이제 제가 공장에서 돈을 많이 준다는 거를 알았잖아요? 그래서 도와주고 싶어서 티지(트랜스젠더)분 두 분을 제가 소개시켜줬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외모를 보긴 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니까, 한분은 여자로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행동이랑 머리가 스타일 같은 것도 다 여자인데, 얼굴쪽 외모는 남자라서 떨어지고, 한 분은 (중략) 커밍아웃을 한 거죠. 안 해도 되는데. 그래가지고. 근데 외모적으로 좀 티가 났나봐요. 그래서 탈의실에 남자로 들어간다 했는데 '탈의실이 좀 문제겠네요'하고 떨어졌어요. (중략) 그니까, 회사에서는 그걸 보는 거죠. 이 사람이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나 안 일으킬 수 있나. 그 사람이 남자로 들어가는데도 여자로 보이거나 여자로 들어가는데 남자로 보이면, 아무래도 그 회사 안에 무리에서 끼는데 문제가 많겠죠.”

일을 잘 할 수 있어도 ‘무리에서 끼는데 문제가 있으면’ 여전히 문제가 되었다. 초희씨는 여성으로 패싱이 잘 되는 편이어서 일을 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트랜스젠더에겐 공장도 들어가기 어려운 곳이다.

4. 트랜스젠더 커뮤니티의 부재 - “과거 지우기와 각자도생”

초희씨는 다행히 자신의 성별정체성과 일치하는 성별로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찾았지만, 많은 트랜스젠더들에게 그런 일터를 찾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다. 하늘에 별 따기, 바늘 구멍 찾기 같은 일자리들의 정보가 같은 처지의 트랜스젠더들 사이에서는 공유되고 있는지 물었다.

“절대 안 됩니다. 일단은 트랜스젠더들은 자기정보에 대해서 큰 값어치를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정보공유 일체 안하려고 하는 경향이 커요. 그래서 뭐 본인이 뭐 어디 회사에 취업을 했다는 글은 없어요 거의. (모리: 정보, 트랜지션 끝나고 나면 과거를 다 지우는 거죠?)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트랜지션 끝나고 나면) '나 트랜스젠더 아니야. 나 일반이야.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여자였어.' 이렇게 인연을 끊고 살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더 트랜스젠더 인권이 좀 발전이 없지 않았나. (모리: 경험들이 쌓이지를 않는 거네요?) 그죠, 공유가 되면 본인도 대비를 하고, 방법을 좀 찾든지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니까 일단 상처받고, 상처받으면, 음 이제 두 가지 경우가 되죠. 음 자살, 아니면 자살. 그런 경우까지 내몰리니까.”

“제가 한번 (글을) 올렸을 때 되게 문의가 많이 왔거든요. 같은 트랜스젠더 분들한테. 어디에서 일해요? 어떻게 취업했어요? 돈을 얼마 받아요? 면접 때 무슨 질문 받았어요? 등등등등. 취업 관련된 문의가 글을 한번 올리면 엄청 댓글이 많이 달릴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관심이 많고, 궁금한 것도 많은데 정작 대답해 줄 수 있거나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있더라도 안 말해줘요. 내가 왜 말해?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라는 행동이 크기 때문에. 누가 불이익을 당했을 때도 딱히 그런 글을 올려도 해답이 못 받아요. 답을 구할 곳도 없고, 말할 곳도 없고. 설사 말하더라도, 너가 트랜스젠더니까는 그렇게 되는 게 당연해라는 말을 같은 트랜스젠더끼리 해요. 이해를 받기 보다는 지적을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트랜스젠더 커뮤니티에서는 정보가 공유되지 않고 있었다. 이유가 궁금했다. 아웃팅에 대한 불안 때문인지,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트랜지션 과정에 대한 억울함인지. 지지기반이 없이 고립된 소수자들의 삶은 계속해서 각자도생이라는 악순환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5. 꿈과 자살 충동 사이

전문적 지식이나 경력 없이 단기간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장으로 공장만한 곳은 없는 것 같았다. 하지만 돈을 많이 주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만큼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게 있는 건 아닐까? 공장에 취직한 초희씨는 일터에 만족하고 있는지 물었다.

“저는 지금 최종 계획으로요, 진짜 트랜스젠더 유일한 최초 대통령이 되는 게 꿈이에요. 진짜로. (중략) 포부가 원대하니까는. 솔직히 요즘에는 일 자체가 단순 반복직이기 때문에 좀 안 좋은 생각을 많이 하긴 해요. (재운: 어떤 생각이요?) 자살... 을 많이 생각하긴 해요. (중략) 두 가지 생각을 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자살 생각이예요 어떻게 해서 자살을 하면 잘 죽었다고 소리 소문 없이 남들한테 피해 안 주고 죽을까. 그리고 또 다른 생각은, 내가 성형하고, 남들 앞에서 강연장에서, 내가 트랜스젠더지만 이렇게 사장으로서 큰 회사의 사장으로서 회장으로서 이렇게 성공한 과정의 일말을 설명하는, 그런 상상을 해요. 근데 이제 거의 대부분을 80%가 자살생각이고 20%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계속 데미지가 쌓이는 거죠. (중략) 그래서 조만간 또 정신과도 다녀볼까 생각중입니다. 많은 일이 좀 이래저래 있으니까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요. 힘들어도, 아 그래도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좀 참아보자. 또 옆에 애인이 있으니까는, 좀 참아보자 참아보자. 그렇게 사는 거죠 뭐.”

일터가 ‘견디고 버티는’ 공간인 노동자가 초희씨 뿐만은 아니지만, 초희씨는 다른 사람들

보다 더 많이 버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이 힘들고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면 다른 곳으로 이직할 수 있을 텐데, 트랜스젠더 여성인 초희씨에게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고용허가제 때문에 일터를 옮기지 못하고 고통 받는 이주노동자들처럼, 초희씨도 일터의 힘든 점들을 참고 견디고 있었다.

“솔직히 가족 생각이 제일 많이 나요. 제가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가족한테 특히 엄마랑 되게 친하니까, 엄마한테 찡찡대는 거였는데. 엄마한테 찡찡대지도 못하고. (중략) 그나마 사는 이유가 목표 하나 뿐인데, 스트레스를 못 푸니까는 그래서 더 우울감이 심해지고...”

‘그나마 사는 이유가 목표 하나 뿐’이라는 말은 초희씨가 삶을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알게 하는 말이었다. 국가, 가족, (트랜스젠더)커뮤니티의 지지 없이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것. 차별과 고립은 초희씨의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6. 아웃팅에 대한 불안

간신히 구한 일터에서도 초희씨의 불안은 여전했다. 아웃팅이 되어서 그만두게 되면 다시 그 끔찍한 구직 과정을 거쳐야하기 때문이다.

“‘회사에서 혹시나 주민등록증 떨어트리면 어떡하지?’ 어. 그것 때문에 항상 주민등록증 지니고 다니거든요. 그게 아웃팅이 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는. 최악의 상황에서는 또 직장을 구해야 하는, 그런 암울한 상태를 맛봐야하기 때문에.”

“(모리: 그러면 주민번호 관련해서,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그거에 대한 두려움도 좀 있겠네요? 병원에 가게 될 일이 생기거나 그러면?) 그쵸. 저 같은 경우는 또 몸이 좀 원체 안 좋다 보니까 회사에서 얘기를 해놔요 애인한테. 혹시 내가 좀 갑자기 쓰러지거나 하면 너가 병원에 데리고 가라. 혹은 사장님이 데리고 가거나. 절대 다른 사람 데리고 가면 안된다. 왜냐면 아웃팅이 될 수 있으니까는.”

“화장실 하나 가는 것조차도 눈치가 보여서 못 가요. 근무시간에 아무도 없을 때 후다닥 갔다가 후다닥. 트랜스젠더가 여성화장실을 이용할 때 소변소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남성은 소변을 쌀 때 일직선으로 짹 싸잖아. 근데 여자는 타고 흐르는 소리가 나니까. 포비아들 글 중에서 ‘혹시 그런 소리가 들리면 그 사람 트랜스젠더다. 바로 신고해라!’라는 글을 본 적이 있어요.”

남성 혹은 여성 두 개의 성 이외는 존재가 허용되지 않는 일터에서 트랜스젠더 노동자는 존재하는 것만으로 고립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인터넷의 유머성 게시물들은 누군가의 삶을 이렇게나 사소하게 일상적으로 공격한다. 그런 도시고담과 같은 소문들이 고착화되고 그 차별적 인식들이 일터 안으로 유입될 때, 트랜스젠더 노동자가 일터에서 노동할 권리는 너무나 쉽게 흔들린다.

7. 성별을 넘은 사람에게 성별 분리된 일터란 - “그때는 5톤 트럭 몰고 다녔단 말이에요”

남성으로도, 여성으로도 일해 본 초희씨는 일터에서의 성별 구분에 할 말이 많았다.

“최근에도 제가 정수기 물통 있잖아요? 20리터짜리. 그걸 교체하려고 했어요. 예전에 뭐 쉽게 했으니까 지금도 쉽게 해야지 했는데, 남자 직원 동생이 쫓아오더니 ‘누나 하지 마요! 누나 왜 해요!’ 이러더니 ‘왜 내가 할 수도 있지. 나 힘세’ 이러니까, ‘에이~ 누나 못 들어요, 허리 다쳐요’ 하면서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트랜지션하기 전이라서 (중략) 그때는 5톤 차량 몰고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막 운전하다가 같은 남성분들 있으면 “저 예전에 저 차 몰아봤어요. 별거 아니던데요”이렇게 얘기하면 “니가 그 차를 왜 몰아?” 그런 말을 해요. “예전에 부산에 있을 때 영업하는 사람 모자라서 제가 했어요.” 하면 “와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물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가 여성으로 그 일을 하고 다녔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여자라는 이유로 무시를 좀 많이 당하고요. 좋은 점은, 여자라서.. 아 몰라요, 이건 약간 사람마다 차이점이 있는 거 같고 관점에서 좀 차이가 있겠지만, 여자라서 무거운 걸 안 들게 한다거나, 저보고 어려운 걸 안 시키게 한다거나, 또 쉬운 예로 운전 같은 걸 안 시킨다거나. 그런 거는 관점이나 위치상에서 볼 때는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어요.”

“남자 분들이 검사직을 잘 안 뽑는 게 (남자는) 집중력이 떨어진대요. 세밀하지도 않고... 근데 그 부분은 제 입장에서 보면, 확실히 이분법적 사고거든요. 남자 중에서도 세밀한 사람도 많고, 군대만 봐도 어쨌든 다 버티고 나온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보면 남자도 끈기도 있고 왜 그런 거 가지고 차별하나 몰라요. 어쨌든 그 사람에게는 트집이 필요한 거죠. 애를 못 뽑아야할, 돌려보내야할 이유가.”

큰 차를 몰거나 무거운 물건을 드는 일을 여성은 할 수 없을까? 상품의 품질을 검사하는 일을 남성은 할 수 없을까? 여성이 들 수 없는 무거운 짐은 여성이어서 못 드는 게 아니라 사람이 들기에 너무 무거운 게 아닐까? 세밀한 검사가 필요한 일은 노동자의 실수를 줄이기 위해 휴식시간을 충분히 주거나, 아니면 노동자를 더 고용해서 여러 번 검사하면 되는 것 아닐까?

8. 성차별 - 배려인지 무시인지

여성은 성별 구분된 일터에서 더 많은 차별을 겪는다. 여성과 남성의 성별임금격차는 36.7%에 달한다. 남성이 100만원을 받는 동안 여성은 63만원 밖에 받지 못하는 것이다. 왜 그럴까? 성별임금격차는 ‘남성의 일과 여성의 일은 다르다’는 말로 정당화되곤 한다. 남성의 일이 더 어렵고, 힘들고,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에 비해 여성의 일은 쉽고, 하찮은 일로 취급된다. 인터넷 댓글에선 “남자가 힘든 일 다 해주는데 돈 더 받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 같은 말을 쉽게 볼 수 있다. 언뜻 들으면 맞는 말 같기도 한데, 배려인지 무시인지 구분이 잘 되지 않는다. 초희씨도 그런 고민을 갖고 있었다.

“물류 같은 경우는 여성은 좀 작은 물품 옮기거나 하지만 남성들은 큰 물품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급이 1,000원 차이가 나요. 여자는 6790원 받을 때, 남자는 뭐 7,000원 8,000원씩 받으니까. (중략) (모리: 힘든 일이어서 남성에게 더 많이 준다고 하지만, 여성들한테 그 힘든 일을 주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얘기가 좀 많이 나왔어요. 특히 트랜스젠더 단톡방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해요. 왜냐하면 저는 두 가지 성별을 다 겪어 봤잖아요? 남성 역할이고 여성 역할이고. (중략) 여자도 힘 셀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제가 또 성소수자이고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생각 할 수도 있겠지만. 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여자라서 시급 덜 받고, 여자라서 좀 쉬운 일을 무조건 받고, 확실히 여성이 좀 쉬운 일을 하긴 해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동시간대에 비슷한 일은 하는데, 왜 남성이란 이유만으로 돈을 좀 더 받고,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덜 받느냐? 하는 생각이 들죠.”

성별만을 이유로, 어떤 정체성만을 이유로 누군가의 가능성을 결론내리는 것은 부당한 일이 아닐까? 초희씨는 그런 고민을 갖고 있었지만, 일터에서 사람들과 그런 고민을 나누지는 못했다. 남성으로서 일했던 경험을 이야기하려면 트랜스젠더임을 커밍아웃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물론 이제 커밍아웃 하고, 말을 했으면 ‘저 예전에 했어요!’ 이라고 우기면 되는데 커밍아웃을 못하는 게 솔직히 현실적인 거죠.”

트랜스젠더 정체화 이전의 남성노동자로서의 경험을 일터에서 공유하거나 인정받을 수 없는 경력단절의 상황은 트랜스젠더임을 커밍아웃하지 못하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다. 초희씨의 경험은 여성의 일과 남성의 일이 그렇게 명확히 나뉘진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지만 혼자만의 이야기로 남아 있었던 것이다.

9. 커밍아웃을 하면 꼬투리가 잡히는 일터

“이판사판 같은 생각으로 커밍아웃을 했는데, 하필 커밍아웃을 들은 분이 입이 가벼운 분, 입에 날개를 다신 분이래 결국에는 제가 아웃팅을 당하기 전에 퇴사를 했어요.”

초희씨는 예전에 다니던 일터에서 커밍아웃을 한 적이 있지만 보통은 퇴사를 결심하고 커밍아웃을 하거나 커밍아웃을 한 이후에 퇴사를 했기 때문에 커밍아웃에 대한 특별한 경험은 없었다. 현재 일터에서 초희씨는 커밍아웃을 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함께 일하는 애인이 지지기반이 되어주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커밍아웃할 욕구가 절실하지 않기도 하고, 해고를 당하지 않더라도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껄끄러워지면 일하기 힘들어 질 것 같다는 판단이었다.

“회사 내 에서는 제가 그렇게 기대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안 찾는 걸 수도 있어요.”

“근무라는 게 앞전에서 말했지만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커뮤니티, 커뮤니케이션을 하잖아요. 그런 커뮤니케이션에서 불화가 있고, 본인의 그런 트랜스젠더라는 오점? 오점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런 트집 하나 때문에 사람들에게 외면 받고, 무시당하고, 일 대우나 처우도 약간 차이가 생긴다면, 그건 본인이 금전적인 부분을 떠나서 정신으로 힘들어서 스스로 못 버티고 떠날 거 같아요.”

“여성으로 성전환 하는 중이잖아요? 이미 제가 남성으로 보여질 게 없는 상황에서 ‘내가 성전환자다. 성전환 중이다.’ 라고 밝혀서 이득 볼 것도 없고. 괜히 흠만 만드는 거잖아요. 특히나 여성들만 일하는 공간에서는 그런 꼬투리 하나가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나의 존재가 알려지면 흠이 되거나 꼬투리가 되는 일터에서 커밍아웃을 하기란 어려운 일이지만, 초희씨는 예전 회사에서 성공적인 커밍아웃을 한 경험이 있다.

“마케팅 회사에서 (중략) 같은 아르바이트생인 오빠랑 얘기를 했죠. 쉬는 시간에 그분한테 커밍아웃을 했는데 반응은 되게 좋았어요. ‘너 진짜?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많이 힘들었겠다.’ 그분이 배우 지망생이기 때문에, 또 그런 쪽으로 많이 만나 봤는가봐요. 제가 커밍아웃을 했을 때가 ‘내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던데, 얘기 들어보니까는 많이 힘든데 너도 많이 힘들겠구나.’ 뭐 이러다가 ‘힘든 거 있으면 얘기해 내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줄게.’ 이런 식으로 위로도 많이 해주고 격려도 많이 해주고.”

초희씨는 그때의 커밍아웃 반응이 좋은 경험이었다고 했다. 내가 어떤 성별정체성을 가졌다고 이야기해도 편찮을 것이란 믿음을 주는 일터. 그런 믿음이 보장되지 않는 일터는 커밍아웃을 시도조차 하지 못하거나 퇴사를 생각한 때에나 가능한 것으로 만든다.

10.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일터를 꿈꿔본다면?

해외에는 트랜스젠더의 성전환 수술비용이 지원되기도 한다. 정부나 회사에서 의료보험 적용을 해주기도 하고, 학교에서 학생의 수술비용을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다. 한국에서도 가족의 지원을 받는 경우가 있지만, 트랜스젠더인 자녀를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지 않고, 수천만 원에 달하는 비용은 가족의 지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많은 트랜스젠더들이 20대의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힘으로 성별정정 비용을 벌기 위해 소모하고 있다. 수술비용 지원은 트랜스젠더의 삶에서 가장 절실한 것들 중 하나다. 초희씨에게 만약 일터에서 수술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면 어떻게 물었다.

“해준다고 하면, 일단 좋기는 할 거 같아요. 왜냐면 트랜스젠더 분들이 제일 많이 말하는 게, 의료적인 부분에서 지원받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원받길 원하고. 회사에서 그런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좋아할 거 같아요.”

“그런 일터라면 당연히 커밍아웃을, 왜냐면 혜택을 준다는데 커밍아웃을 해서 내가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장기간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인데 당연히 커밍아웃을 하죠.”

그럼에도 이런 일터의 지원이 있어도 일터 사람들의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동일하다면 혹은 더 차별적인 상황이라면 초희씨는 회사에서 지원받는 것을 포기할 수도 있겠다고 말한다.

“약간 러쉬(Lush)나 구글(Google)에서는 성소수자에게 상당히 개방되어 있잖아요. 물론 모든 직원이 개방되지는 않았지만,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회사 마인드가 성소수자를 받아들이기 좋은 분위기가 조성되었잖아요. 분위기만 조성되었다면, 임금이 적고, 복지가 안 좋더라도 지원할 의향이 있어요. 하지만, 반대인 경우라면 임금 높고, 복지는 좋아도 사양할 것 같아요. 입사를 하게 된다면 포비아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 퇴사 혹은 자살을 선택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마치며: 트랜스젠더에게 일터란 어떤 일터일까?

“트랜스젠더 노동자에게 좋은 일터는 모든 노동자에게 좋은 일터이다!”

“우리는 성소수자의 이름으로, 성소수자의 모습으로 금지를 지니고 노동할 권리가 있습니다. 비정상, 변태로 불리는 모욕을 당하지 않고 노동할 권리가 있습니다.”

2013년 5월 1일 노동자의 날 기념 민주노총 집회에서 외쳐진 성소수자 권리 선언문 내용의 일부이다. 트랜스젠더 노동자가 자기 자신의 온전한 모습으로도 모욕과 혐오, 차별과 배제를 당하지 않고 노동할 수 있는 일터. 초희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정말로 트랜스젠더에게 좋은 일터는 모두에게 좋은 일터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일터의 성별 구분, ‘남자의 일’과 ‘여자의 일’의 구분이 없어지면 트랜스젠더 뿐 아니라 모든 성별의 사람들에게도 훨씬 좋은 일터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초희씨는 2년 동안 공장에서 주6일 노동을 하며 친구들도 만나지 못하고 흥미가 있는 취미활동이나 인권활동의 영역에 참여하는 것을 포기한 채 성전환 수술비용을 모을 것이라고 했다. 그 말에는 어떤 결의가 느껴졌다. 참고 견디는 곳으로서의 일터, 다른 선택지가 없는 일터에서 노동하는 노동자들은 많은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그나마 초희씨의 경우는 애인과 함께 노동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노동자의 삶은 또 얼마나 쓸쓸할지 생각하니 마음이 좋지 않았다.

트랜스젠더 노동자에게 좋은 일터는 모든 노동자에게 좋은 일터임을 선언하는 것, 선언에서 더 나아가 그것을 실천하며 증명하는 일터가 현실적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두 번째 사람. 대학원 연구원으로 일했던 트랜스여성 북극여우씨 노동과 비노동 사이에서 나를 찾기

모리, 형거, 슈미

하리수가 처음 TV 광고에 출연해서 뜨거운 관심을 모은게 2001년이다. 그 후, 1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건만 아직도 트랜스젠더라는 단어를 들으면 하리수만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다. 그 사이, 한국의 다른 트랜스젠더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었을까?

그녀는 올해 서른 살인 트랜스젠더 이성애자 여성이다. 지금은 그만뒀지만 대학원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연구실 사람들과 학교 사람들에게 트랜스젠더라는 사실을 커밍아웃한 경험이 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커밍아웃을 할 수 있었을까?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다.

1. 군대 대신 연구실

병영문화혁신위원회 ‘군복무환경’ 자료에 따르면 징병 대상자 중 현역 판정 비율은 1986년 51%에서 1993년 72%, 2003년 86%, 2013년 91%로 꾸준히 높아졌으며 2022년에는 98%까지 높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국적의 지정성별 남성인 사람에게 군대는 자신과 분리하기 어려운 주제이다.

“저는 지정성별 남성이어서 군대 문제가 걸려 있잖아요? 저는 군대에 가면 아무래도 트랜지션도 늦어질 것 같고, 아무래도 남자들만 있는 환경에서 좀 힘들거 같아서. 사실 군대 면제를 받아내기 위해 시간을 좀 벌기 위해서 대학원 겸 연구실에 들어갔던게 더 커요. (중략) 제가 만약 쿼어가 아니었으면 대학원에 안 갔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공부를 엄청 잘하는 것도 아니고,”

성소수자에게 군대는 두려운 곳이다. 2017년의 대한민국은 근무지가 아닌 곳에서 동성과의 하에 성관계를 맺은 군인이 군형법 제92조의6(추행)을 위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곳이다. 안보 위기 속에 소수자 인권이 언제나 나중으로 밀려나는 곳. 남성이라는 한 가지 성만 허용되는 군대를 가지 않기 위해 그녀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많지 않았다. 그녀는 자동 입영연기가 가능한 대학원에 들어가 트랜지션을 위한 시간을 벌었다.²⁾

2. 내 모습으로 살지 못했던 일터 - 자기만의 시간도 공간도 없이

그녀는 연구실에 들어가야만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초기엔 남성으로 보이기 위해 노력했다.

“처음에는 거기에는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서, 커밍아웃을 안 하고 숨기고 들어가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막 머리로 자르고 일부러 남자 옷 입고 가서 면접을 받은 게 기억나요. 여기서 계속 남자로 일할 생각이었는데 (후략)”

그러나 내가 아닌 모습으로 사는 것은 힘든 일이었다.

“먼저 제가 호르몬 치료를 하는 단계이기도 했고 완벽히 남자로 숨기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막 일부러 가슴도 숨기고 다니고, 그런 것도 힘들었고요. 사람 관계에서 남자로 대해지는 것이 이미 어색한 상황이어서 그것도 힘들었고, 화장실 문제 같은 것도 좀 그랬어요. 당시 제가 머리가 짧았는데, 사람들이 저보면 재는 남자야 여자야 물어보는 상황이었어서 계속 설명해야하는 것도 힘들었고요. 그리고 당시에 기숙사 생활했거든요, 기숙사랑 화장실에서 쫓겨난 경험이 많아요. (중략) 그런 환경에서 지내는 게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커밍아웃) 전에는 무조건 다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제가 다 선배들한테도 선생님이라고 해서 다들 이상하게 생각하셨는데. 커밍아웃 하고나서 친해지면 제가 언니라고 불렀어요. (모리: 연구원에서 보통 사람들이 언니 오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네 좀 친해지면 언니나 오빠. 그렇지 않으면 선생님. (모리 : 계속 선생님이라고 부르면 이상한 거네요.) 네. 친해고 나서도 계속 그렇게 부르면 상관은 없는데 이상하게 봤던 거 같아요.”

더구나 자기만의 시간도 공간도 없이 아침부터 밤늦도록 다른 성별의 모습으로 지내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다. 대학원생으로서 그녀의 노동자성은 애매했다. ‘열심히 공부한다’는 미명 아래 매일 아침 10시부터 새벽 한시, 두시까지 하루 15시간 넘게, 주말도 공휴일도 없이 계속 일해야 했다.

2) 병역 면제 요건이 까다로워짐에 따라 법적 성별정정 이전의 트랜스 여성(MTF)들은 병역 면제를 받기 위해 ‘비가역적인’ 수술을 요구 받는다. 생식기능을 제거하는 수술이 대표적이다. 법적 성별정정 요건 중 하나인 정신과 의사의 ‘성 주체성 장애’ 진단서는 병역 면제 요건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처음에는 커밍아웃을 하겠다고 결심한 거 보다는 막 그냥 아무래도 거기서 밤낮으로 생활하다 보니까 그냥 뭐 예를 들어 조금씩 조금씩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했어요. 치마를 입는다든지.”

시간 뿐 아니라 공간도 마찬가지였다. 연구실은 물론 2인 1실인 기숙사에서조차 그녀는 온전히 자기 모습 그대로 설 수 없었다. 당시에 그녀는 경제적으로 집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성별에 따라 배정되는 기숙사를 이용해야만 했는데 엘리베이터를 타면 사람들이 도망가는 등 시시때때로 불편한 상황이 연출되었다. 후에 기숙사에 비해 훨씬 비싼 돈을 내고 자취를 시작해서야 자신의 주거 공간에 편안함을 느꼈다.

“기숙사 때문에 거의 대학원 포기할까 생각했었거든요. 남자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걸 상상하지 못했었는데, 다행히 룸메이트를 잘 만나서 괜찮았지만,”

“누가 제 성별 물어보거나 그런 적이 많았어서, 그럴 때 저는 남자라고 대답하는 게 싫었거든요 기숙사 사무실 사람들이 물어보면 ‘저 여기 생활하는 거 맞아요’라고 대답하든지 돌려서 말하고 했는데, 이제 그게 좀 힘들어지면, 그렇게 말할 때면 디스포리아가 오거나 그냥 답답했죠. 자유롭게 말하지 못해서.”

“기숙사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자꾸 걸리게 되어가지고, 몇 십번씩 쫓겨났었거든요. (모리: 몇십번이나요? 얼굴도 알지 않아요?) 관리인 사람들도 바뀌어서 그런거 같은데, 거기 들어가서 이거 제 주민등록증이고 여기 사는거 맞아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저를 뭐 신기하다고 손을 잡아보더라고요. 여자손같은데 이걸 남자라고 써있고 이상하네 이러면서. 계속 그렇게 신기하게 쳐다보다가 그냥 그런가 보다 잘 받아줬어요. 그 후론 그냥 마음대로 다녔는데, 같은 건물 쓰는 사람들은 저 때문에 혼란스러웠겠지만 마음대로 다녔어요.”

커밍아웃을 하기 전이었지만, 연구실에서 그녀는 성소수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먼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며 토론을 유도하기도 했다.

“사실 그런 성소수자 얘기가 나오지 않으면 별로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는데, 근데 이제 나오면 혐오발언이 나오죠. 그래서 좀 싸웠었어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교수님은 좀 개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동성애자 인권 관련 이야기가 나오면 저랑 교수님은 존중해줘야 한다는 쪽이었고 다른 분들은 반대쪽이어서 싸우기도 했었어요. (중략) 사실 같이 회식할 때나 그럴 때 제가 좀 자연스럽게 기회가 될 때 막 말을 꺼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싸우기도 했었고.”

“사수는 아무래도 기독교 쪽 분이셨으니까, 막 뭐 아무래도 남녀의 역할은 정해져 있고 자연의 섭리를 그런 식으로 저를 조금 반발이 있긴 했었어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아무튼 그런 논리로 저를 설득하려고 하셨고, 그래도 제가 가만히 안 있고 계속 싸웠죠. 계속 반박하고 계속 싸웠어요. 그러다보니 그냥 결국 포기하신 거 같아요.”

3. 커밍아웃

결국 그녀는 연구실에 들어가고 6개월이 지났을 무렵부터 연구실에서 조금씩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액세서리를 해보기도 하고 치마를 입기도 했다.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냈는데, 의외로 아무렇지 않아하는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커밍아웃을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제가 이미지가 좀 중성적인 이미지라가지고 다들 그렇게 이해한 거 같아요. 저는 원래 저러고 다니는 걸 좋아하는 구나. 평소에 악세서리 많이 하고 다니는 구나. 네. 그래서 별로 문제는 없었어요. 가끔 다른 선생님들이 뭐라고 하셨어요. 여자 옷 좀 입고 다니지 말라고. (모리 : 다른 교수님이요?) 네. 그래도 다른 학생들이나 연구원들이 뭐라고 하진 않았어요. (모리 : 입지 말라고 했을 땐 어떠셨어요?) 좀 반항하고 싶었어요. 세상에 여자 옷 남자 옷이 어디있어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사람들은 별 반응이 없더라고요. '저는 저래도 괜찮아도 되는 거 같아'하는. 근데 그렇다고 저를 여자로 대해주지 않았어요. 제가 여성복을 입고 있어도 교수님은 '그래서 넌 여자친구 언제 만들거니'라고 물으시고, 조금 조금씩 편한 걸 찾으면서 약간 간을 본 거죠. 그래도 괜찮은 분위기인 거 같다 싶어서 언젠가는 그냥 커밍아웃하고 다녀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첫 번째 커밍아웃은 기숙사의 같은 방을 쓰던 룸메이트였다.

“사실 제가 제일 신경 썼던 건 룸메이트 오빠인데 왜냐면 같이 사니까. 그래서 그 분에게 제일 먼저 커밍아웃 했던 거 같아요. 그래도 다행히 개방적인 분이어서 그 후 완전히 여자로 대해주더라고요. (중략) 그전에는 속옷만 입고 다니시거나 그랬는데, 커밍아웃 하고 나서는 좀 신경 쓰셨던 거 같아요. 밤에 그리고 옷 같은 거 입어보고 여자친구를 되게 사귀고 싶어 하시는 분이셨는데 저한테 하나하나 검사 말고 이렇게 하면 여자들이 좋아하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웃음) 그분은 좋은 분이셨던 거 같아

요. 같이 살면서 별일 없이 편하게 잘 지냈어요. 그 후에 직장에서도 커밍아웃을 할 수 있겠구나 용기를 얻은 것 같아요. (중략) 자취하고 나서도 가끔 만나서 같이 밥 먹었어요. 사이가 좋았어가지고.”

“룸메이트 선생님한테 제가 먼저 커밍아웃하기 전에, 옷장에 있는 속옷들을 들킨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오빠는 별 생각 안했대요. 그럴 수도 있지 이려고 넘겼대요. 그렇게 원래 좀 남한테 신경 안 쓰는 분인 거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커밍아웃 하고나서 잘 받아주셨어요. 그 전에 밤에는 막 이 여자 예쁘지 않냐 막 이러면서 물어보기도 했는데 커밍아웃하고 나서는 이 남자 어때 막 물어봐주고 (웃음) 바로 바뀌더라고요. 그게 되게 웃겼어요. 저 받아주는데 크게 문제는 없었던 거 같아요. 커밍아웃하고 나서는 집 안에서 맘대로 할 수 있었어요”

룸메이트가 커밍아웃을 잘 받아들여주자 연구실에서도 커밍아웃을 할 수 있겠다는 용기를 얻었다고 했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다는 룸메이트는 그녀의 커밍아웃을 통해 성소수자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뭘 하든 신경 안쓰는 사람이어서 성소수자 이슈에도 전혀 생각 안 하던 사람이었는데, 저 만나고 약간 열린 거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두 번째 커밍아웃은 다른 연구실의 여자 동기였다. 연구실 사람들에게 커밍아웃을 하기 전에 이 동기에게 커밍아웃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 건 성소수자들 지지해야한다고 먼저 말해주었기 때문이었다.

“처음에 (대학원) 갔을때, OT때 술자리에서 옆에있는 선배가 남자답게 행동해라, 목소리도 여자같다고 저를 혼내고, 저보고 막 남자친구 있냐고 그런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때 있던 당시엔 몰랐던 동기가 그런 말하면 안 된다고, LGBT인권 지지해야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나중에 좀 쉽게 다가갈 수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대학 다닐 때 페미니즘 운동 했던 친구였어요. 밥 먹으면서 커밍아웃도 하고.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웠어요.”

동기는 연구실 생활의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좋은 친구가 되었다. 연구실 사람들에게 커밍아웃을 해도 될지 상의한 것도 동기였다.

“많이 도움이 된 거 같아요. 그런 사람 한명도 없었다면 커밍아웃도 못 하고 힘들어했을 거 같아요. 사람을 잘 만난 것 같아요.”

동기의 지원을 받으며 그녀는 연구실 사람들에게도 커밍아웃을 하기로 결심했다. 처음

커밍아웃한 연구실 사람들은 여자 연구원들이었다.

“여자연구원 선생님들은 제가 먼저 커밍아웃을 했었기도 하고, 제일 잘 받아줬어요. 전혀 힘든 거 없었던 거 같아요. 저한테 물어볼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라고 했었던 거 같고, 치마입고 오거나 마음대로 했을 때도 엄청 응원이나 격려를 해주시고 화장도 가르쳐주시고.”

연구실에서의 첫 커밍아웃도 성공적이었다. 다음으로는 그녀의 사수 박사님과 교수님에게 커밍아웃을 했다.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은 경험을 했지만, 자신에게 일을 가르쳐주는 사수와 고용주인 교수님에게 하는 커밍아웃은 조금 다를 것 같아 어렵지 않았는지 물었다.

“당시에는 용기내서 한 게 아니라 이대로는 정말 못살겠다고 생각해서 한 건데, 다시 돌아가서 하라고 하면 못할 거 같아요.”

반응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

“교수님은 한 번의 커밍아웃으로 성공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네가 아무리 성격이 여성스러워도 그게 네가 여자라는 뜻이 아니라고 설득하셨는데, 제가 이거는 그런 거랑 아예 다른 문제라고 두세 번 정도 커밍아웃 한 정도에 그냥 잘 받아주셨던 거 같아요. 꽤 비교적 개방적이신 분이셔서, 커밍아웃 두세 번 하기 전까지는 여자를 만나보는 건 어떨겠니. 그러시거나 저를 전환하려고 하셨던 거 같아요.”

“교수님 같은 경우는 뭐 그럴 수 있지 같은 반응이셨어요.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자기 군대에 있었을 때, 어떤 남자애가 그 애는 자기가 성욕을 안 느낀다고 했대요. 그때 교수님은 그럴 수 있구나 그런 사람도 있구나 하는 그런 경험을 하셨대요. 그때 이후로 사람은 정말 다양하다고 깨달았다고 말씀하시면서, 교수님이 그래서 너도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한다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요.”

“(모리: 이분이 사수잖아요. 연구하는걸 배우는 분인거죠?) 네 그렇죠 제일 많이 물어다녔어요. (모리: 그래서 연구실 커밍아웃 할 때도 제일 걱정되는 분이셨을것 같아요) 네 엄청 걱정되었어요. 엄청 기독교인이셔서. (중략) 남녀의 역할은 정해져 있고 자연의 섭리를.. (중략) 모든 기독교인이 그렇진 않겠지만 그 분이 평소에 게이혐오발언이나 그런 걸 많이 하셔서가지고 좀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좀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는 분이었어요. 아예 문닫아놓고 '아니야'라고 그러시는 분은 아니었어요. 좀 혐오발언이긴 하더라도 막 질문하시고 트랜스젠더랑 게이는 다른거야?라고 물어보시면서 이해하려고 하셨던 분이었어요. (커밍아웃 전에는) 새로운 연구원이 들어오면 저 막 가리키면서 애

남자게? 여자게? 라고 물어보시거나 하셔서 되게 당황스러웠던 적도 있었고 애 완전 여자애 같지 않냐고 놀리실 때도 있었는데 커밍아웃하고 나서는 되게 혼란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좀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괜찮았어요. 착하신 분이어서.”

“사수님은 좀 오래 걸리긴 했는데. 혼자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집에 갈 때 막, 동성애는 있으면 안되는 게 에이즈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흔히 기독교의 논리있잖아요? (웃음) 진짜 아 그런 얘기는 좀 그런데 '트랜스젠더는 막 항문섹스를 하는 사람이 아니지? 그러니까 괜찮은거 같아'라고 하시면서 아무튼 스스로 합리화를 하셨던거예요. (웃음) 진짜. 그래서 그런 논리들 듣고있으면 좀 그렇긴 했는데, 노력하시는건 보였어요.”

사수 박사님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지만 이해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고 했다. 이상한 논리이긴 했지만 그녀를 받아들이기 위해 혼자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았다. 교수님은 커밍아웃 이후 그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도 했다.

“교수님이 저한테 직접 물어보신 적이 있었어요. 너는 남자화장실 쓸 거냐 여자화장실 쓸 거냐. 그래서 저는 남자화장실 가면 쫓겨난다고 여자화장실 가야한다고 했더니. 알겠다고 하시고 며칠 후에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건물 사람들에게 커밍아웃을 시키셨어요. 애가 사실 이런 사정이 있어가지고 남자화장실을 못쓰다. 그래서 막 방마다 다니면서 인사했던 기억이 나요. (헉거 : 무섭지 않았어요?) 살짝 그랬었는데. 그렇게 무섭진 않았어요. 교수님이 뒤에 계시고 인정해주신 후니까.”

교수님과 사수 박사님에게까지 커밍아웃을 하면서 연구실의 모든 사람들에게 커밍아웃을 하게 됐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던 것 같냐는 질문에 그녀는 대학원 연구실이 다른 직장에 비해 좀 더 개인적인 분위기여서 가능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커밍아웃을 한 이후엔 연구실이 확실히 편해졌다고 말했다. 연구실의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도 많이 달라졌다.

“훨씬 편해졌어요. 제 정체성 대로 행동하니까 더 이상 저한테 남자답게 살라고 강요하는 사람도 없고. 그 남자다운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웃음) 아무튼 그 전에는 그런 비판을 받았었거든요. 왜 너는 말할 때 손동작이 여성스럽냐며 혼내던 선배들이나 그런 분들이 계셨었는데. 그 이후로는 없어서 편했고요. 또 뭐가 달라졌지? 음... 그냥 전체적으로 삶의 질이 올라간 것 같아요. (모리: 젠더표현도 좀 더 자유롭게 하시고?) 네. (모리: 그 이후로 성소수자 이슈에 대한 이야기가 연구실에서 많이 나왔어요? 막 질문하지 않아요 그러면?) 네 맞아요. (웃음) 막 성소수자 관련 이야기 나오면 다들 제 의견부터 물어보는 그런 거 있죠. 니가 좀 설명해줘라, 그런. 저도 잘 모르는데. (모리: 연구실 사람들이 성소수자 관련 문제를 바라보는 의식이 달라진 것도 있나요?)

네 확실히 달라진거 같아요. 박사님도 많이 노력하시고 교수님이나 다른 여자연구원분들도 처음에는 잘 이해를 못했는데 저를 보고나니까 직접해보니까 바로 알게 되더라고요. 성소수자 관련 인식 개선에는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보통 그녀는 상대방과 단둘이 밥을 먹으며 커밍아웃하는 걸 선호했다. ‘사실 내가 말 안한 게 있었는데 이걸 듣고 내가 싫어질 수도 있지만 일단 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며 커밍아웃했다고 한다. 커밍아웃 이후에는 자유롭게 젠더 표현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연구실에 새로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오히려 ‘반대로’ 커밍아웃 하곤 했다고 한다.

“그러다 새로운 사람들이 연구실에 들어오거나 그러면은, 그때는 전 여자로 살고 있었으니까. 약간 반대로 사실 나는 시스젠더가 아닌 트랜스젠더라고 커밍아웃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좀 더 쉬웠어요. 저를 다르게 보지 않아도 되니까.”

하지만 커밍아웃 이후에도 힘든 점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호기심의 대상이 되거나 성소수자의 대변인이 된 것처럼 모든 질문이 그녀에게 돌아오는 것은 피곤한 일이었다.

“호기심이 대상 된다는 게 겁이나요. 대학원에서 커밍아웃 한 이후로, 그런 게 좀 힘들었어요. 호기심의 대상이 된다는 것. (모리: 성소수자의 대변인이 된다는 거?) 네 맞아요.”

‘호기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식사 자리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질문에 대답해주는 것 뿐 아니라, 구체적인 폭력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했다.

“하나 차별 경험이 있었는데, 회식자리에 갔는데 그때 제가 커밍아웃을 한 이후였고, 여자로 살고 있었을 때였는데. 저희 실험실에 물건 팔러 오시는 분하고 회식을 했어요. 그분도 여자였는데. 다 같이 술 먹고 업된 상태에서, 제 가슴을 뒤에서 대놓고 만지시더라고요. 약간 트랜스젠더인 거 알줄 얼마 안 돼가지고, 트랜지션한 과정이 신기해서? 그런 거 같은데. 당시에 술 취해서 모르는 척 했는데, 상처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뭔가 기본적인 것을 존중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된 거 같았어요. (형거: 직장 내에 알리시거나 그러시진 않으셨나요?) 알리지 않았어요. 네. (모리: 그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비참했어요. 동등한 사람으로 취급 잘 못 받는 기분? 그냥 그 날 혼자 집에 가서 막 울었었는데. 그 사람 앞에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모리: 트랜스젠더라서 그런 경험을 당한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런 거 같아요. 애는 어떻게 진짜 가슴을 만든 걸까? 신기해서 만져본 거 같은데, 살짝 만진 것도 아니고 완전. 네 (형거: 그 이후에 대인관계는 어떠셨어요?) 괜찮았던 거 같아요. 그 당시에는 상처였는데, 그 사람처럼 제가 그런 거 원래 혼자 삭히는걸 잘해서. (모리: 그러면 그 사건에 대해 아무한테도 얘기 안하신 거예요?) 네 (모리: 그러면 지금 그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

요?) 좀 화나긴 해요. 제가 그런 걸 그 자리에서 말하는 걸 잘 못해요.”

호기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어쩌면 다수자와 소수자의 권력의 차이를 증명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권력의 차이는 언제나 폭력이 될 수 있다. ‘기본적인 것을 존중’하는 것은 그러한 권력차의 위험성을 경계하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인 것이다. 인터뷰를 위한 그녀와의 두 번째 만남에서 그녀는 이 경험을 준비해온 듯 제일 먼저 이야기했다. 사건 당시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다는 말이 오래도록 남으며, 이번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나눠준 게 고마워졌다.

4. 노동과 비노동 사이 - 대학원 불안정 노동

그녀가 커밍아웃을 결심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연구실의 센 노동강도 때문이었다. 아침 열시부터 새벽 1시, 2시까지 하루 15시간 넘게, 주말도 공휴일도 없이 일해야 했다는 그녀에겐 자기만의 시간도, 공간도 없었기 때문이다.

“퇴근 같은 게 정해지지 않고 매일 남아서 일을 하니깐, 노동강도도 센 편이고. 처음에는 제가 대학원 생활이 어떤지 잘 모르니까 가서 남장하고 일하다가 내 시간은 내 마음대로 보내자 그런 식으로 생각했었어요. 막상 들어가 보니까 제 시간이란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커밍아웃을 하게 된 것도 있는데, (후략)”

대학원 연구실은 학교일까 일터일까? 학생은 노동자가 아닐까? 모든 일이 비자발적인 임금노동으로 분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공부와 연구는 분명 ‘하기 싫지만 돈 때문에 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되는 특성이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인터뷰를 정리하면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면서 사회운동 활동가로 살아가는 동료 활동가들의 고민들이 겹쳐지기도 했다. 노동과 비노동의 경계는 어디일까? 경계가 있긴 한 것일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열심히 공부한다’는 미명 아래 대학원생들의 기본적인 권리들이 침해당하는 일이 정당화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다들 좀 어쩔 수 없는 시기인거 같아요. 선배들은 후배들한테 항상 원래 힘든 건 당연하다고 하는 게 보통이고. 이걸 나서서 바꿔야 한다는 사람을 본적은 없었어요. 대학원생은 원래 힘든 거지 이러면서. (모리: 자기들이 스스로 노동자라고 생각하나요? 일한다고 생각하나요?) 생각안하는 거 같아요. 그때, 막 그런 날이 있지 않나요? 노동자들 쉬는 날. 그때 수업하는 교수님이 너희는 쉬면 안 되는 거 알지? 공휴일에도 원래 계속 일했는데 너희는 노동자가 아니라는 식으로 말하셨어요.”

노동자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것과 상관없이, 노동자 운동의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언어들을 대학원생들이 자신의 언어로 사용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최근 서울노동청은 대학원생 조교도 근로자라고 인정하기도 했다. 근로계약서 작성, 4대 보험, 퇴직금, 연차, 휴가, 적정한 임금을 받을 권리 등 노동 운동에서 요구하는 권리들을 대학원생도 요구할 수 있었다면? 카이스트에서 2014년에 ‘대학원생 권리장전’이 발표되기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60여개가 넘는 대학에서 비슷한 권리 선언이 발표되고 있다.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생 권리장전(2017, 일부 발췌)

제4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대학원생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대학원생의 기본적 인권은 학업 및 연구 성과에 부차적인 것으로 여겨질 수 없다.

제5조 (평등권)

대학원생은 성별, 국적, 인종, 연령, 장애, 종교, 임신과 출산, 정치적 성향 등을 포함한 일체의 비합리적이거나 자의적인 사유를 근거로 차별당하지 않는다.

제6조 (학업 및 연구 보장 권리)

- ① 대학원생에게 정당하게 보장된 학업과 연구의 기회는 부당하게 박탈되어서는 아니 되며, 대학원생은 학위과정을 마칠 때까지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학업을 지속할 수 있다.
- ② 학교와 지도교수는 대학원생의 전공과 연구주제 분야에 대하여 필요한 시기에 충분하고 적절한 학문적 지도 및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 ③ 학교는 대학원생의 학업과 연구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내 연구 공간 및 지원시설을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④ 학교는 대학원생이 출산 및 보육으로 인해 학업 및 근로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며 보육을 위한 시설 및 서비스 이용 시 다른 구성원과 평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9조 (사생활의 자유와 거부권)

- ① 대학원생은 사생활의 자유를 가지므로, 연구와 학업은 타의에 의해 건강, 안전, 혼인과 모성의 보호, 가족생활 등을 영위할 권리보다 우선되지 않는다.
- ② 대학원생은 신체적, 언어적, 성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에서 학습하고 연구할 권리가 있으며 자신의 학업 및 연구와 연관성이 없고 사회통념에도 위배되는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이를 거부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
- ③ 학교는 신체적, 언어적, 성적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기관을 설치하고 이를 예방하고 피해 학생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제11조 (건강과 휴식 및 안전에 대한 권리)

- ① 대학원생은 건강하고 지속적인 학업 및 연구생활을 위하여 적절한 휴식과 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대학원생은 안전한 환경에서 연구할 권리를 가지며, 학교는 안전한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하고 충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조교활동에 대한 권리)

① 대학원생은 학생조교, 연구조교, 연구사업 연구원 등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채용 조건과 방식을 구체적으로 알 권리가 있으며 공정한 절차에 따라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채용 심사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② 대학원생은 조교 및 계약직 등으로 근무 시 학교로부터 명확한 근로시간, 근로내용, 임금 등의 관련 정보를 사전에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학교는 근로활동에 대해 사전에 제공한 근로시간, 근로내용, 임금을 계약기간 중에 부당한 이유로 변경하거나 불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교수, 교직원 등 우월한 직위를 바탕으로 조교 및 대학원생 계약직에게 사적인 업무 지시 또는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표현의 자유)

대학원생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에 기초하여 학교와 사회에 대한 개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가진다.

그녀가 경험한 대학원 생활은 생각보다 많이 힘든 것이었다. 대학원을 그만두게 된 것도 이 때문이었다. 트랜스젠더로서 힘들어서가 아니었다. ‘공부/연구하는 사람은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본적인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녀는 공부 시간도 보장받지 못했다.

“그렇게 밤새면서 연구했는데 결과 안 나오면 또 해야 하고, 뭐가 잘못되었는지도 모르면 너무 괴로웠어요. 그러면서 공부도 해야 하는데 그 공부해야하는 시간도 따로 안 준단 말이예요. 그래서 시험도 맨날 망치고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았었어요.”

“아무래도 너무 연구결과만 얻으려고 교수님이 노력하다보니까 너무 세게 굴리시는 거예요. 아침 한 열시부터 새벽 한 두시 까지 매일매일 주말도 없고 공휴일도 없고 계속 일을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렇다고 결과도 잘 나오는 편이 아니었거든요 스트레스 받고, (교수님에게) 또 혼나고, (중략) 결국 그런 거에서 스트레스 받고, 저희 사수님하고 교수님이 맨날 싸우시고 그래서 그게 좀 힘들었어요.”

구조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문제는 개인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대학원 사람들은 문제의 원인을 대학원생 개인에게 돌렸다. 힘들면 버티지 못하는 자신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연구실을 그만두는 게 대부분이었다. 주변에서 누군가 자살했다는 소리가 심심치 않게

들려왔지만 그 사람의 문제라고 여겨졌다. 북극여우씨가 연구실을 그만둘 결심을 했을 때도 그랬다.

“그냥 저는 이쪽 분야에서는 이렇게 일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만뒀어요. (모리: 이 연구실 아니어도 다른 곳도요?) 네. 제 주변 연구실들도 딱히.. 저희 연구실이 뻥세긴 했는데, 다른 연구실들이 그렇다고 쉬워보이진 않았거든요. 그냥 저는 부족한가 싶어서 이쪽 과학 길은 아닌가싶다 하고 그만뒀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자살시도도 했었고 응급실에 몇 번 실려 갔었는데, 교수가 약간 너랑 안 맞는 거 같다고 그만두는 거 생각해봤냐고 권유를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일이) 제 건강보다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그만뒀어요.”

“막 응급실 가고 몇 번 했더니. 그냥 아 재는 이걸 잘 못 버티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거 같아요.”

“연구실 내에서 제가 거의 막내기도 했었고, 항상 막 좀 더 일찍 나와라 좀 더 늦게까지 남아라.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처지가 안 되었어요. 주변사람들 중에 그만두는 사람도 많았고, 버티는 사람들도 많아서. 저 스스로도 이걸 버텨야하는데 나 혼자 못 버티는 것 같고.”

“그만두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렇게 큰 연구실은 아니었는데 사수님 빼고는 계속 저 있는 동안 (사람들이) 바뀌었고, 새로운 사람들이 올 때마다 기회 봐서 커밍아웃 그랬었는데, 다들 힘들었던 거 같아요. 돈도 많이 안주고 결과도 잘 안 나오니까 힘들고. (모리: 같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버티죠?) 그러게요. 저도 못 버텼는데. (웃음) 사수나 후반에 들어온 남자연구원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전 연구실에서 그보다 더 한 일을 겪었더라고요. 교수님 막 잘리고 그랬었는데. 그러다가 저희 연구실에 들어왔는데, 막 그 오빠는 그 사건의 피해자였어요. 앞으로는 그런 거에 절대 연관되지 않겠다고 결심했더라고요. 교수 말에 새벽까지 있으라고 하면 무조건적으로 순응하고 강인한 사람이었어요. 박사님은 맨날 싸우고. (모리: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연구실도 다 그랬었어요?) 네 거의 그랬던 거 같아요. 저 있는 동안에도 자살 사건만 두세 개 있는 거 같았는데. (모리: 자살사건 생기고 나면 달라진 점이 있었어요?) 없었던 거 같아요. 기숙사에 그런 거 있었어요. 막 혹시 자살 생각이 들면 전화하라고 막 초콜릿 같은 거 들어있고.”

“(모리: 대학원 주변에서 중도에 학위 안 받고 그만두는 사람들 비율이 어느 정도 되었어요?) 엄청 많았어요. 저 나갈 때 쯤에 같이 들어왔던 사람들이 반 넘게 나갔어요. 다들 오래 버텼으면서 왜 지금 나가냐고 그런 사람들도 있고. 친구랑 오랜만에 만나면 어떤 연구실에 누구 그만뒀다는 말이 항상 나왔었어요. (중략) (형거: 계시던 연구실에

서도 사람이 자주 바뀌었었나요?) 네 엄청 자주 있었었어요. 그 사수님 빼고 거의 다 바뀌었어요. (중략) (모리: 그렇게 절반씩 그만둘 정도면 그만두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 나올 법도 한데, 조용히 힘들면 그냥 그만두는 거죠? 그런 걸 이야기할 통로라던가 장소가 없는 건가요?) 네. 상담실은 있었는데, 상담실도 그렇게 다들 자유롭게 이용하는 분위기는 아니었고, 저도 제가 가니까 제 친구들 몇 명 따라서 가고 그랬던 분위기였거든요.”

“임금에 관한 건 음.. 몇 번 임금 때문에 나간 학생은 있었어요. (모리: 너무 적어서?) 네. (중략) (형거 : 교수님들한테 임금에 대해 말했던 사람이 있었나요?) 사수님 말고는 잘 모르겠어요. 사수님은 맨날 싸우긴 했는데, 솔직히 노동환경이나 시간에 비해 다들 적게 받는 건 맞았던 거 같아요. 그래도 그냥. 그만두는 수밖에 없었을 거 같아요. 맘에 안 들면. (모리: 그만두는 거보다 약한 수준으로 나는 적어도 몇 시에는 퇴근하겠다 이런 사람들은 없었나요?) 그런 사람들도 없었어요.”

트랜스젠더인 그녀는 다른 사람들은 듣지 않는 말도 들어야 했다.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편견이라기보다는 너는 트랜스젠더이니까 대접받기 위해선 남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채워야한다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런 말을 듣는 것도 좀 답답했어요. 현실적으로는 맞는 말 같기도 하면서, 그래도 남들과 똑같은 대접을 받고 싶었어요. 그런 말을 하면서 센 노동 강도를 강요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좀 속상했고.”

그녀가 학교를 다닐 때도 학교 내에서 대학원생 인권을 위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긴 했다. 하지만 그 활동에서조차 성소수자는 배제되었다고 한다.

“아 그때 당시에 저희 학교에도 대학원생의 인권관련 활동이 있었어요. 왜냐면 거기 하도 막 자살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교수님 몰래 저만 어떤 내용인지 구경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 외국에서 쓰이는 지침서를 토대로 발표하더라고요. 근데 외국에서는 상대방의 성별이나 어떤 어떤 그런 걸로 차별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성정체성과 성지향성에 대한 내용도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어로 번역되면서 그게 빠져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건 뺐어요? 라고 질문했는데, 그거 하나 때문에 운동이 다 없어질 수 있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때 좀 속상했던 기억이. 네.”

그녀가 대학원을 그만 둔 이후 대학원생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인권센터나 인권위원회를 만드는 학교도 생겼고, 대학원생 권리장전을 선포하는 학교도 많아졌다. SNS에서도 ‘대학원생 대나무숲’ 등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고 언어화하는 공간이 생기기도 했다.

북극여우씨는 군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원생이 되었다. 도저히 갈 수 없는 군대를 피하기 위해 그녀가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많지 않았을 것이다. 트랜스젠더는 구직과정에서부터 철저히 배제 당한다. 이력서에서, 면접에서 강제로 아웃팅 당하고 수도 없이 존재 증명을 해야 하는 과정을 감수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 상황에 처한 많은 트랜스젠더들이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대부분 노동과 비노동의 경계에 있는 일들이다. 과외, 성산업, 프리랜서, 막노동, 특수고용. 내가 누구인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일자리는 다시 말하면 사람으로서의 노동자의 정체성이 존중되지 않는 일자리와 같다. 도구화된 사람에겐 정체성이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일자리들은 그런 일자리가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음으로 인해 유지된다. 기본적인 권리조차 지켜지지 않지만, 다른 일자리로 옮겨갈 수 없는 사람들은 그 고통을 참을 수밖에 없다. 북극여우씨는 대학원을 그만둘 때 즈음엔 군대문제가 해결된 상태였다고 한다. 하지만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그녀는 대학원을 그만둘 수 있었을까? 여러 번 자살 시도를 할 만큼 힘든 연구실 생활이었지만 버틸 수밖에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5. 요즘의, 앞으로의 북극여우씨

북극여우씨는 현재 일을 쉬고 있다. 쉬는 동안은 어떻게 지내는지, 앞으로 어떤 일을 하면서 살고 싶은지 물었다.

“사실 대학원에서 일하면서 많이 든 생각이 보통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 그냥 취미로 하고 일은 딴 거 하라고 하잖아요? 자기가 안 좋아하는 일들 계속 한다고 해서 그것도 쉽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은거 같더라고요. 지금은 직업을 빨리 구하겠다는 생각보다, 좋아하는 일을 하려고 해요. 어차피 힘든 일을 하더라도. 그래서 여러 가지 손대고 있는데. 밴드활동도 하고 있는데, 저는 드럼을 쳐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시도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면 직업을 삼고 싶은 것들이 나올 거라 생각하고, 다시 돈이나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별로 원하지도 않고 힘든 것을 참으면서 하고 싶지 않아요. 사실 대학원 생활 이후에 겁을 먹은 것도 있고요. 만약 그런 일을 찾았을 때, 제 성별정체성이 좀 문제가 된다면 속상할 거 같긴 해요. 그래도 대학원에서 커밍아웃했던 것처럼 잘만 된다면, 참고 잘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저는 제가 퀴어인 걸 숨기면서 살 생각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퀴어인 걸 이용해서 살 게 없나 하고 있고요. 저도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녀는 퀴어임을 숨기면서 살고 싶진 않다고 말했다. 대학원에서 모두에게 커밍아웃을

하고 지낸 그녀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성 소수자 아티스트 커뮤니티도 구상하고 있다.

“최근엔 커뮤니티 활동도 하고 있어요. 그리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사실 저는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도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고, 비시스젠더 소모임 비스켓에도 나가고 있어요. 아직 새로 생긴 소모임이라 큰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할 수 있다면 많은 일을 하고 싶어요. 부모님이 ‘너는 왜 인권 활동 같은 거 안 하니?’ 물으셨어요. 근데 지금 하는 커뮤니티 활동이 인권을 증진한다고 생각해요. 막연한 생각인데,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성 소수자 아티스트 커뮤니티를 만들고는 싶은 생각이 있어요.”

페이스북 친구가 된 그녀는 재능이 많은 사람이었다. 그림도 그리고, 밴드 활동도 하고. 대학원을 그만둘 때 연구 쪽은 안 맞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가 보기엔 연구 활동도 잘 하는 사람인 것 같았다. 그녀의 삶도, 우리 모두의 삶도 응원하고 싶어졌다. 모두가 자기 자신의 모습으로 존중 받으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날이 얼른 왔으면 좋겠다.

촛불 1주년 인권궐기대회 선언문

우리의 선언

우리는 성소수자이고 장애인이며,
청소년이고 홀리스이자, 여성이며
나중으로 밀려난 모든 사람이다.
정권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었다 말하는 이들에게 말한다.
우리의 삶이 그대로라면 세상도 그대로다.
민주주의는 혐오와 함께 갈 수 없으며
빈곤과 폭력의 철폐는 아직 약속되지 않았다.
민주주의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우리에게 인권은 목숨이다.
인권은 몸 누일 집이고 따뜻한 밥이며,
웃음 담은 인사이고 맞잡는 손이다.
내 몸은 나의 것이라는 상식과
우리는 모두 동료 시민이라는 약속이 인권이다.
인권이 위태로울 때 촛불혁명은 완수될 수 없다.
우리가 인권을 누리는 만큼 민주주의도 전진한다.
그래서 우리는 나답게, 사람답게 살겠다는 도전을 멈출 수 없다.
누구도 차별당하지 않는 세상,
빼앗기고 쫓겨나지 않는 세상,
누구의 삶도 유예되지 않는 세상을 바라는가?
그렇다면 우리와 함께 외치자.
인간답게 살아보자!

2017년 10월 28일

촛불 1년 인권궐기대회 참가자 일동

::세 번째 사람. 웹 디자이너로 살아가는 남성 동성애자 소리씨 차별을 건너는 삶

이사벨, 선원

소리는 남성 동성애자다. 단지 그가 가진 성적지향이 다수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그가 살아온 삶의 서사는 남들과 다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가 특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지 성적지향의 차이에 그치지 않는다. 왜냐면 그가 HIV 감염인이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 ‘차이’라고 명명했지만, 그가 살아온 삶은 이 두 가지의 차이에 근거한 ‘차별’로 점철돼있다.

현재 소리는 온라인 마케팅 회사에서 웹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다. 중간에 학교 복학 때문에 잠깐 일을 쉬기는 했지만, 이를 제외하면 벌써 4년차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 대학에선 애니메이션을 전공했지만, 적성에 맞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교수들과의 갈등도 있어 정을 붙일 수가 없었다. 그러다 별다른 생각 없이 웹 디자이너로 일하게 됐다. HIV 확진 판정을 받고 힘들어하던 시절, 우연히 선배의 제안으로 일을 시작하게 됐다. 그렇게 시작하게 된 일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일에 애착이 생기게 됐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하고 있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덤덤하게 풀어냈다. 벌써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기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성장했기에, 지금은 이 모든 이야기를 편하게 말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그와의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느낄 수 있었다. 그가 겪고 있는 사회적 낙인과 차별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는 이 싸움의 한 복판에 서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1. 열악한 조건에서의 노동 - “야근이 너무 많았고, 감정노동이 너무 심했죠.”

“제가 첫 직장을 다니게 된 게 스물한 살이고요. 취직을 해서 다니게 된 회사가 2년, 3년을 다니게 된 첫 직장이었는데, 그때는 근로조건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는 남들보다는 사회생활을 좀 더 빨리 시작했다. HIV 확진 판정을 받은 지 얼마 지나

지 않아, 지인으로부터 같이 일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았다. 이 일이 적성에 맞는지, 혹은 이 업무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할 수 없었다. 힘든 시간을 겪고 있었기에, 많은 걸 고려하지 않고 그냥 시작했다. 또한 당시엔 너무 어렸기에, 자신에게 주어진 노동 조건이 부당한지 아닌지에 대한 인식조차 할 수 없었다.

“야근이 너무 많았어요. 야근이 너무 많았고, 야근수당, 추가수당 이런 것 없이 기본적인 임금만 받으니까 감정노동이 너무 심했죠. 야근을 일주일에, 맨날 했죠. 퇴근 시간이 거의 11시다 보니까 나중에는 조금 지치더라고요.”

자신의 첫 직장이었던 만큼, 이곳에 대한 애정도 상당했다. 하지만 회사에선 ‘열정’을 요구할 뿐, 그가 가진 노동권은 지켜주지 않았다. 처음에는 잘 해보고 싶단 생각에 문제를 제기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노력을 했다. 하지만 더 많은 헌신만을 강요당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가 고갈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는 노동강도는 그렇게 세지 않는데, 감정싸움이 약간. 이게 지금 다니는 회사는 첫 회사 보다는 오히려 인원이 적은데, 사람 때문에 고생하는 게 더 심하다고 할까?”

“남자가 여성스럽다든지, 사회적인 통념 상으로 ‘남자는 이래야 된다’, ‘여자는 이래야 된다’, 그런 것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남녀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걸로 되게 인신공격적인 대화를 하거나, 그런 게 있어요. 뭐, 저한테는 “넌 그래 가지고 결혼이나 하겠냐”거나 “연애나 하겠냐””

다행히 현재 다니는 직장에선 노동 강도가 심하지는 않다고 한다.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급여나 복지 등 다른 노동 조건도 괜찮다고 한다. 하지만 이곳에서 그는 심한 감정 소모를 하고 있다. 현재 같이 일하고 타 부서의 팀장은 첫 직장에서도 같이 일했었는데, 어쩌다 인연이 되어 현재 회사에서도 같이 일하게 됐다. 이 팀장은 남녀에 대한 성 이분법적인 시각이 너무 강하여 사회통념상의 성별 역할로 직원들을 평가하고 대우한다. 특히 첫 회사에서는 단지 그가 여성스럽다는 이유로 ‘결혼은 하겠냐’, ‘밤일은 하나’등과 같은 성희롱 발언도 서슴지 않았으며, 게이냐며 커밍아웃을 강요하기도 했다.

2. 예상치 못했던 HIV 확진 판정 - “분노, 슬픔, 자기혐오, 온갖 감정이 다 들었던 것 같아요.”

“스물한 살이었고요. 군대 때문에 휴학을 한 상태였는데 감염 사실을 알게 되고, 군대

면제를 받고 시간이 붕 뜬죠.”

그가 HIV 확진 판정을 받았을 때는 21살,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7년 전이었다. 그 나이의 또래들이 그러하듯이, 그도 군대를 가기 위해 휴학을 하고 그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다 평소에도 자주 앓던 장염에 걸리게 됐는데, 평소보다 너무 오래 지속되길래 병원에 갔다. 그때부터 그의 인생에 있어 많은 부분이 바뀌게 됐다.

“장염이 되게 심해서 병원 입원을 했었는데, 그때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병원에서 이런 저런 검사를 하다가 갑자기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큰 병원에서 혈액검사를 하다가 확진 판정이 나온 거죠.”

지금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기에, 당시의 상황과 그때 느낀 감정들을 담담하게 말해줬다. 아니, 오히려 현재는 차별과 혐오에 맞서기 위해 사람들을 조직하고, 이들과 함께 이 문제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그가 처음부터 이 문제를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니다.

“자살 시도도 있었고, 몸을 버리는 행위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너 왜 그러냐’라고 물어볼까 봐서, 부모님 자는 틈에 몰래 밤에 나와서 근처 공원에 가서 소주 병나발 불고, 거의 매일 그랬던 것 같아요. 거의 한 달 정도는 그랬던 것 같고.”

“수면제랑 고혈압 약을 굶어 모아가지고, 마흔 알 정도를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다 먹었어요. 수면제를 많이 먹으면 잠에 들어서 평생 잠을 잔다, 죽는다, 이런 얘기가 있었으니까, 어린 나이에 그거를 또 믿고, 막 먹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하듯, 그도 이 상황을 감당하기 위한 아무런 준비가 돼있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인 방법까지도 선택했었다. 이 상황에서 도망갈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생각했지만, 길은 보이지 않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호전되기는커녕, 오히려 절망감이 깊어지면서 내적으로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그는 이 시기 동안 22년 동안 했던 것보다 많은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경험하게 됐다.

“그냥 온갖 생각이 들죠. 자기혐오도 들고, 왜 하필이면 나일까, 이런 생각도 하고, 도대체 누가 나를 감염시켰을까, 어떤 새끼일까 하는 감정도 들었죠. 분노, 슬픔, 자기혐오, 온갖 감정이 다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부정적인 감정은 다 들었던 것 같아요.”

3. 힘들었던 HIV 감염 커밍아웃 - “나 사실은 감염인이고, 지금 난 감염돼 있다.”

“면제를 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부모님한테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하나 생각하다가, 그냥 몸 상태가 말이 아니고, 내부가 다 망가져있다고. 그래서 약을 계속 복용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군대를 면제 받았다고 하니깐, 부모님이 믿으시더라고요.”

HIV 확진 판정을 받은 후, 가장 걱정됐던 건 어떻게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알릴까였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입대를 한다며 휴학까지 한 아들이, 갑자기 군대를 면제받았다는 사실을 설명해야 했다.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납득시키기 위해서, 몸이 ‘망가졌다’는, 부모님의 가슴을 후벼파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 오히려 이 거짓말이 HIV 감염 사실 보다는 부모님께 위안이 된다는 게 씁쓸하기만 했다.

“감염 이후에 처음 사귀 사람에게도 말을 하기까지도 한 6개월 정도 걸렸었고, 그때도 걱정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둘이 너무 좋으니까, 이걸 내가 숨기고 있어야 하나 하는 고민을 많이 했었고, 어떻게 얘기해야 할지, 어디까지 얘기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술을 막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저지르듯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얼마 지나지 않아, HIV 감염 여부를 커밍아웃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됐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기 때문이다.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사귄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 사람을 더 알게 될수록, 그리고 더 사랑하게 될수록, 자신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이별을 경험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사실을 털어놓기로 마음먹었다.

“나 사실은 감염인이고, 지금 난 감염돼 있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 사람이 처음에는 되게 당황스러워 하더라고요. 당황스러워 했는데, 처음에는 되게 좀 그랬어요.”

다행히도 전 애인은 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 아니, 오히려 둘 사이에 놓여있던 장벽이 드디어 허물어진 느낌이었다. 이 일을 겪고 난 이후, 그는 애인의 진심을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경험을 했다고 해서, HIV 감염 사실로 인해 상처 받은 그의 자존감이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다.

“제가 혼자 짝사랑하게 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 고백을 못 하겠더라고요. 만약에 제 친구가 그랬다면 ‘왜 고백을 못 하나’, ‘고백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해줬을 텐데, 막상 제 상황이 되니까 고백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 고백을 못 하지, 못 하지, 하면서 생각을 해본 게, 저 스스로가 약간 두려운 게 있

는 것 같더라고요. 그 사람이 나한테 과분한 느낌. 그게 출신 배경이나 경제적인 것, 이런 걸 다 떠나서, HIV라는 질병 하나 때문에, 뭔가 그 사람이 나에게 과분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자꾸 들면서, ‘아, 고백을 할까’ 이러다가도, ‘아, 아니야’라고 포기하고,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과 다르게, 그는 이제 HIV/AIDS에 대해서 많은 걸 알고 있다. 심지어 다른 감염인들에게 이를 조언해주기도 한다. HIV/AIDS는 이제 관리 가능한 질병들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그렇기 때문에 콘돔을 끼고 면도기를 공유하지 않는 등 약간의 주의만 하면 연애를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늘 말해왔다. 하지만 막상 그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됐을 때, 이 질병은 그 스스로를 끊임없이 작아지게 만들었고, 결국 그는 상대방에게 고백할 수도, 심지어는 사랑하는 감정 자체를 드러낼 수도 없었다.

4. 병역법에 따른 잔혹한 낙인 - “취업에 있어서 많은 제약을 받게 됩니다.”

“HIV 감염인은 군입대전에 감염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면제가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걸로 멀쩡한 사람이 면제를 받았다고 하면 좋지 않게 보는 시선이 많아서 취업에 있어서 많은 제약을 받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하듯, 그도 1~6급의 병역 급수 체제에 대해 구체적으로까지는 알지 못 했다. 그래서 감염사실을 알게 된 후, 그저 면제라고 말하면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취업 시 입사지원서에 ‘병역란’이 있다는 걸 알면서, 이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란 걸 알게 됐다. 병역란에 현역이었는지 공익근무요원이었는지, 혹은 미필이었던지를 적어야 했고, 심지어 미필인 경우는 미필 사유를 적어야 하는 기업이 대다수였다.

많은 사람들이 ‘미필 사유에 그냥 대충 둘러대서 적으면 안 돼? 아니면 공란으로 남기던가’라고 쉽게 생각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실제 면접에 가면 왜 미필인지, 그리고 어디가 아픈지 집요하게 묻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예전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다고는 하나, 미필일 경우 애초에 서류전형에서 탈락시키는 경우도 있다는 걸, 그는 최근 직장을 구하면서 뼈저리게 느끼게 됐다.

“다행히 저는 첫 직장과 현재 직장 둘 다 지인을 통해 입사를 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20대 HIV 감염인들은 입사지원서의 그 병역란 하나 때문에 가고 싶었던 회사에 지원하기를 망설이거나 포기하는 일이 많을걸요? 병역이 정말 직무에 필요한 사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입사’지원서에 적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 회사와 결혼하

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5. 커밍아웃에 대한 두려움 - “두려움이 있었던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은연중에 두려움이 있었던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회사를 다니면서 저는 사실은 게이인데, 남자를 좋아하고 그런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는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에 대해 양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HIV 감염여부와 다르게, 자신의 성적지향이 무엇인지를 굳이 숨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만약 커밍아웃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이를 피하고 싶지는 않다고 말한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자신을 드러냈을 때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그리고 주위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 식으로 돌아올지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다.

“솔직히 알려져도 별 상관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만약에 보수적인 사람이 라든가 반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유기적인 관계가 필요하잖아요? 그게 어색해질까 봐. 그러면 나도 힘들어지고, 주위 사람들도 힘들고. 그런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가 일하고 있는 마케팅은 업계가 좁다고 한다. 회사가 다르더라도 서로 잘 아는 사이인 건 물론이거니와, 작은 소문도 금방 퍼진다고 한다. 커밍아웃 후에 부정적인 반응이 온다면, 자신이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그만둬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는 고민할 수밖에 없다.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걸 숨긴 채 일하는 게 힘들지만, 이런 이유로 앞으로도 직장 내에서 커밍아웃을 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한다.

“이전에도 “남자 좋아하냐”는 얘기도 물어본 적 있는데, 그때도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때도 아니라고 했었는데, 부모님은 아니라고 믿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엄마는 내 자식이 게이아 아니고, 에이즈에 걸린 애도 아니고, 이렇게 믿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는 그가 게이라는 걸 이미 눈치채고 있다. 그에게 남자를 좋아하냐고 직접 물어 보셨다고 한다. 그때 아버지한테는 솔직하게 말했다. 더 이상 이 문제를 거론하지는 않지만 아버지가 그의 성적지향을 아는 것에 반해, 어머니에겐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그가 게이라는 것을 눈치챈 것 같고, 심지어 ‘에이즈’ 관련된 사건이 터질 때면 전화를 걸어 확인하시지만, “아니”라고 답하는 아들의 답을 믿으신다. 아니, 믿고 싶어 하시는 것 같다.

6. 차별로 인한 관계의 단절 - “이중생활을 하게끔 되더라고요.”

“뭔가 회사 사람들하고 약간 동떨어져 있는 느낌은 조금 받을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 여자친구랑 무슨 일이 있었는지 회사에서 얘기를 하는데, 나는 거기 낄 수가 없다는 거. 해도 거짓말을 해야 하니까 차라리 사람 얘기만 들어주는 입장이었는데, 사실 그게 많이 불편하기도 했고.”

그는 회사에서 고립돼있다고 느낀다. 평소에는 친구들과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는 걸 좋아하지만, 직장에서는 그럴 수가 없다. 왜냐면 직장 동료들은 그가 동성애자란 걸 모르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남자’친구를 ‘여자’친구로 바꿔서 얘기해보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식의 대화도 오래갈 수 없었다. 그래서 지금은 아예 사적인 대화를 하지 않는 걸 선택했다.

“이중생활을 하게끔 되더라고요. 초반에는 일반적으로 (페이스북)계정 만들어서 다 돌리려고 했는데, 걸리는 게 많더라고요. 사진 하나 올리는 데도 고민을 해야 되고, 올렸을 때 커밍아웃을 고민할 수밖에 없고, 그때부터 ‘게북’³⁾을 만들어서 관리를 했던 것 같아요. 철저하게 이중생활을 하는 걸 보면, 아마 회사에 알려지는 게 두려웠던 게 있었던 거겠죠.”

이렇게 이중생활을 한다는 게 얼마나 소모적인 일인지, 그리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 행위인지, 누구보다 그 자신이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그에겐 다른 방법이 없었다. 대부분의 이성애자들이 그러하듯, 그도 사람들과 소통하며 지내고 싶었을 뿐이다. 하지만 본인의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커밍아웃을 할 수밖에 없었다. 혹시 있을지 모르는 커밍아웃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느니, 차라리 이중생활에 따른 불편함을 떠안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3) ‘게북’이란, 게이(Gay)와 페이스북(Facebook)의 준말인 페북(Fa-book)의 합성어다. 아웃팅(Outing)을 걱정하는 성소수자들이 정식 아이디 이외에 별도의 아이디를 만들어 활동할 때 사용하는 용어이다.

7. 에이즈 혐오를 조장하는 기자들 - “부산 보도하는 기자새끼들도 다 싫고, 때려부수고 싶었어요.”



<2017년 10월에 있었던 HIV 감염 여성의 성매매 사건을 다루는 YTN 뉴스 보도>4)

“최근에 사건5)이 터지고 나서, 부모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울 먹이면서, “군대 안 가고, 계속 약 먹고 있는 게 혹시 에이즈냐”고. 군대를 안 갔으니까, 부모님한테는 핑계를 돌려대야 했는데, 그냥 몸이 안 좋아서라고만 얘기를 했거든요.”

많은 기자들과 시민들은 말한다, 사람들은 HIV 감염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에이즈 관련 기사를 보도하는 기자들은 HIV 및 AIDS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는커녕, 클릭 수를 늘리기 위한 선정적인 보도 경쟁을 할 뿐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쏟아져 나오는 ‘에이즈 혐오’는 감염인들에게 가해지는 사회적 낙인과 차별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을 가로막고 있다. 그도 이 상황이 부당하다고, 지금 당장 혐오 조장을 멈추라고, 그렇게 외치고 싶다. 하지만 차마 자신을 드러낼 수 없기에, 그는 이런 부당한 현실을, 그리고 자신의 억울함을 삼킬 수밖에 없다.

“부모님이 갑자기 전화로 그걸 물어보니까,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눈 앞이 새하얘지면서, 아니라고, 아니라고, 아니라고, 엄마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냐고, 아, 막 그런 애

4) “7년 전 ‘에이즈 성매매’ 여성, 또 성매매로 적발”, YTN, 2017.10.19.

5) 2017년 10월, 부산에서 발생한 HIV 감염 여성의 성매매 적발 사건

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내 자신도 싫고, 부산 보도하는 기자새끼들도 다 싫고, 방송국도 다 싫고 때려부수고 싶고, 화도 나고 불안도 하고, 온갖 감정이 교차하더라고요.”

이 말을 부모님이 실제로 믿었는지에 대해선 그 자신도 회의적이다. 단지 그가 확신할 수 있는 건, 어머니는 자기 자식의 말을 믿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이다. 그의 어머니는 아들이 그 ‘죽음의 병’에 걸린 게 절대 아니라고, 그렇게 믿고 싶으실 거다. 이 ‘믿음’이 흔들리는 게 싫어서, 부모님이 이 문제를 더 이상 거론하지 않을 거란 것도 그는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안도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이 너무 아프다.

8. 노년의 빈곤 및 외로움에 대한 불안감 - “혼자 늙어가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은 좀 많이 해보죠.”

“일단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를 어느 정도 참을 만하면 계속 다녀야죠. 지금 당장 회사를 이직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 또 자주 이직해봤자 저한테 좋은 것도 아니고요. 지금은 현재 회사를 계속 다니고 싶어요.”

그는 벌써 두 번의 이직을 경험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직장을 옮긴다는 것에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물론 현재의 직장이 모든 부분에서 괜찮다거나, 혹은 그 스스로 만족한다는 건 결코 아니다. 오히려 이곳에선 구성원들과의 갈등이 심하고, 상사로부터 인격 모독을 당하기까지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이곳에서 버틸 수 있을 때까지는 버티고 싶다고 말한다.

“사실 막연하게 그 걱정은 하고 있어요. 노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지. 정말 돈이 없으면 자살이라도 해서 죽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생각으로는 되게 힘들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노년을 걱정한다. 하지만 성소수자들에게 이 고민이 훨씬 심각한 의미로 다가온다. 우리나라에선 아직 동성혼이 합법화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반려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보호자가 될 수도 없고, 이에 따라 주어지는 모든 법과 제도에서도 소외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많은 성소수자들이 먼 미래에 홀로 남겨지지 않을까, 혹은 그 누구도 자신을 책임져주지 않을까를 걱정하게 된다.

“노년, 하, 사는 거랑 별개로, 아 진짜 혼자 늙어가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은 좀 많이

해보죠. 예전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을 만나보고, 많은 연애를 해보자, 이런 주의였는데 지금은 오래 가고 옆에 있어줄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러한 노년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직장 내에서 벌어지는 부당한 대우를 인내할 수밖에 없다. 그도 매일 출근하는 게 끔찍하다. 직장에서 또 인신공격과 인격모독을 경험하는 건 아닐까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늘도 일을 멈출 수가 없다.

마치며: 두 가지의 차별과 소리

소리와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많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 분명 그가 경험한 차별과 편견 중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많았다. 하지만 그가 겪은 HIV 감염인에 대한 차별을 내가 모두 이해했다고 말한다면, 그건 분명 거짓말일 것이다. 나도 쉽지 않은 삶을 살았다고 생각해왔지만, 그는 훨씬 더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내가 ‘동성애 혐오’를 조장하는 보도를 보고 분노했듯이, 그는 여기에 더해 ‘에이즈 혐오’ 조장에 분노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든 크게 신경쓰지 않을 거라고 말하곤 했지만, 나는 그의 불안과 두려움을 느낄 수 있었다.

앞으로 그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될까? 이에 대해선 그 자신도, 그리고 인터뷰를 진행한 나도 알 수가 없다. 그저 우리는 믿는다, 언젠가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HIV/AIDS에 대한 편견과 사회적 낙인을 거둬들일 날일 올 것이란 것을. 그렇기 때문에 이 인터뷰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HIV 감염인 당사자들의 얘기에 귀 기울이길 바란다. 그리고 HIV/AIDS라는 질병을 색안경을 끼고 바라볼 게 아니라, 있는 사실 그대로 바라봐주길 부탁한다.

::내 번째 사람. 전기자동차를 만들고 수리하는 30대 레즈비언 하나씨 성별 이분법적 편견,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당당히 맞서는 삶

슈미, 이사벨

우리 사회에서 ‘남성의 일’로 여겨지는 직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에 대한 이미지는 어떨까? ‘남성화된 존재’, 혹은 ‘여성성을 탈각한 존재’라고 여기기도 하고, ‘독한 여자’라고 보는 시선도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곳곳이 노동하고 있는 그녀들의 목소리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는 점이 아닐까 싶다.

하나 씨는 전기자동차를 만들고 수리하는 일을 하는 여성노동자이자 동성 파트너와 함께 살고 있는 레즈비언이다. 이따금씩 집회 현장에서 만나면 ‘차별금지법 제정하라!’는 구호를 가장 우렁차게 외치는 유쾌한 하나 씨를 그녀의 파트너 이경과 함께 만났다.

미래에 대한 불안함, 그리고 전직

자동차 정비사는 하나 씨의 첫 직업이 아니었다. 그녀는 스물아홉 살 때까지 특허법률 사무소에서 조사분석 업무를 담당했던 사무직 노동자였다. 사무직 노동자가 자동차 정비사가 되겠노라고 마음먹는 일이 흔한 일은 아니다. 무엇이 그녀가 전직을 결심하게끔 했을까.

“예전에는 독거노인이나 빈민촌, 쪽방촌, 이런 거에 관심 되게 많았는데, 그 이유가 항상 가지고 있는 불안이나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 내가 거기 갈 수 있다는, 내가 저들처럼 살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어. 언젠간 나는 수입이 끊길 수도 있고, 언젠간 내가 하루하루가 힘든 삶이 될 수 있고, 내 옆에 아무도 없을 거고, 이런 꼬리에 꼬리를 물고 되게 무서웠고, 그래서 항상 불안했던 것 같아”

“그냥 늦게까지 먹고살고 싶었어. 이게 전문직이 아니다보니, 전문직이라면 전문직인데, 그게 약간 좀 자리가 애매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나이 들어서도 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이 있었고, 그래서 기술을 배워야겠다. 뭔가 좀 안정적인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다가, 진입장벽이 가장 낮은 자동차 정비를 하게 된 거죠. 국비로, 공짜로 배웠어요.”

과거에 하나 씨는 레즈비언으로서 혼자 살아가는 삶을 생각하다 보면 ‘독거’, ‘불행’과 같은 단어들이 떠올랐다고 했다. 그랬던 그녀에게 기술이란 보다 안정된 노후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였다. 하나 씨는 자동차 정비 기술이 있으면 본인이 직접 카센터를 차리는 것도 가능하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여성의 빈곤화, 빈곤의 여성화라는 말은 2017년 한국 사회에서 더 이상 낯선 말이 아니다. 특히 결혼을 선택하지 않는 여성, 결혼이라는 제도로부터 이탈한 수많은 여성들에게 노후 문제는 막막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동성 파트너 간의 결합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은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이라는 이유로 결혼 제도로부터 애초에 배제될 수밖에 없었던 그녀에게 기술을 보유한다는 것은 보다 안정된 노후를 보내기 위한 하나의 돌파구였던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여성’ 자동차 정비사로 살아간다는 것

그렇게 들어서게 된 자동차 정비사의 길이었지만, 그 길 앞에는 그녀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넘어야 할 장벽들이 겹겹이 쌓여있었다. 시작은 정비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등록한 학원에서부터였다.

“내가 정비를 배우려고 학원을 다니는데, 학원 PPT를 돌린단 말이야. PPT에 한 챕터 끝나고 한 챕터 넘어갈 때 쉬는 시간에, 여자의 수영복 사진, 그런 게 있는 거야. 그런 걸 틀어줘. 짜증이 막 나는 거야. 선생님 뭐예요 이게. 하지 마시라고. 근데 아마 지금도 하고 있을 걸. 다 남자야. 그러니까 그런 게 허용되는 거지. 근데 애길 해도 아 이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근데 아무 것도 아니었어, 사실, 살다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어, 사실, 살다 보니까.”라는 그녀의 말이 못내 마음에 걸렸다. 당연히 남성들만 있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공간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투쟁해야 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하나 씨와의 인터뷰를 진행하는 과정 내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 이야기들이 하나둘씩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존재 가치 증명에 대한 요구

인터넷 이미지 검색창에 ‘노동자’라는 단어를 입력해본다. 사진들 속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인물들은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안전모를 쓰고 작업을 하고 있는, 혹은 ‘단결투쟁’이라고 적힌 빨간색 머리띠를 두르고 구호를 외치며 팔뚝질을 하고 있는 ‘남성’ 노동자들이다. 심지어 클럽 아트나 픽토그램 같은 그림에도 노동자들은 거의 대부분 ‘남성’으로 묘사되어 있다. 현실에서 ‘노동자’라는 개념이 우리 사회의 젠더 관념으로부터 동떨어져

있지 않다는 이야기, 노동자는 이미 남성을 표상한다는 다소 추상적인 이야기가 너무나 명확하게 다가오는 대목이다.

자동차 정비와 같은 육체노동에 있어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열등한 신체적 능력을 가진 존재로 표상된다. 그리고 이러한 이분법적인 통념은 하나 씨와 같은 ‘여성’ 노동자들에게 매 순간 자신이 ‘남성’ 노동자만큼 일을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기를 요구한다. 마치 모든 ‘남성’ 노동자들이 비슷한 수준으로 일을 잘 하는 것은 아닌데 말이다.

“뭔가 검증하고 싶은가봐. 여자로서 뭔가 더 배웠거나 자동차에 대해서 뭔가 더 할 줄 알거나, 이런 걸 검증하고 싶은 것 같아.”

“나도 그런 게 있잖아. 나도 여자니까 이거 못하겠어요, 라고 안 하고 더 하려고 하고, 무거운 거 더 들려고 하고. 그런 게 있었던 거야. 굳이 안 그래도 되는데. 나의 존재의 필요성을 내가 입증해야 하는 느낌인 거지.”

“내가 어느 날은 차가 퍼져가지고 다 같이 밀어서 옮겨야 돼. 사람이 한 다섯 명이 붙은 거예요. 근데 나까지 안 가도 될 것 같은 거야. 엔진오일 갈아야 될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빨리 내가 채우고 내가 하는 게 훨씬 더 낫겠다 싶어가지고, 나는 계속 하고 있었어, 내 일을. 그러니까 반장이 나한테 성질을 있는 대로 소리를 막 고래고래 지르면서, 니가 여자라고 차 안 미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여자로서의 모습들을 이 사람들이 자꾸 날 주입시키는 것 같은 거지.”

만약 하나 씨가 아닌 다른 남성 노동자 엔진오일을 갈고 있었다면 반장은 “남자라고”와 같은 말을 입에 담았을까? 아니, “너도 와서 거들어라.”고 시킬지언정, 하나 씨에게 그랬던 것처럼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을까. 그 날 하나 씨가 욕을 먹은 이유는 타이어가 퍼진 자동차를 미는 것을 돕지 않아서가 아니라 ‘여자가이기’ 때문이었다.

당연하면서도 부담스러운 샤워시설

어느 육체노동이 그러하듯이, 자동차를 정비하는 일을 하다보면 몸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다고 한다. 땀도 많이 날 뿐더러 일하다 보면 먼지나 엔진오일을 뒤집어쓰게 되는 일이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요즘에는 사무실에도 자전거로 통근을 하는 직원들을 위해 샤워시설을 갖춰놓은 직장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자동차 정비 공장에서 일하던 시절 하나 씨에게 샤워는 집에서나 가능한 일이었다. 다행히도(?) 지금 다니는 직장에는 하나 씨가 쓸 수 있는 샤워시설이 있지만 하나 씨는 그마저도 “불편하다.”고 말했다.

“F사에 있을 때는 샤워실이 없었거든요. 남자는 있었는데 나보고 하래. 거기서 문 잠그고 하라는 거야. 근데 나는 너무 불편하지 나 들어간다고 탈의실이랑 붙어있는데 탈

의실까지 다 잠가서 내가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한 다음에 샤워한다는 자체가 나는 부담스럽잖아. 한 번도 안했어요.”

“원래는 샤워실이 있잖아. 그런데 널 위해서 하나 더 만들어줘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당연한 거잖아 그거는. 근데 그걸 요구하기도 되게 싫고. 그리고 그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거 자체가 나한테는 되게 부담스러운 거야.”

“남자들만 있는 곳에서 여자가 들어갔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나 만들어야 되는 그런 것들이 나에게는 되게 부담스러운 거야. 그래서 그것들로 인해서 나한테 더 많은 것을 착취할 것 같은 불안감.”

샤워시설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내내 하나 씨는 ‘부담’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언급했다. 하나 씨는 자신(여성)을 위한 샤워시설을 요구하는 것이 회사와 ‘남성’ 노동자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일이라고 했지만 오히려 불편한 것은 샤워를 한다는 ‘남성’ 노동자들에게는 당연한 일이 하나 씨에게는 너무나도 요원한 일이었다는 것이다. 당연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감정을 느껴야 하는 것이 어찌 하나 씨만의 일이겠는가.

남성(과)의 연애/결혼 대상으로 패싱되기

하나 씨는 본인이 여성이기 때문에 정비사로서 더 힘든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정비사라는 직업 자체에 대한 저평가 때문에 본인이 무시받을 때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하나 씨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고객으로부터 정비사한테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된다고 말했다.

“예전에 손님이 왔는데, 현대에서 일할 때였어. 남자친구 소개시켜 준다고 그러는 거야. 결혼했냐고. 그래서 내가 대꾸를 안 했어, 아예. 근데 옆에 와가지고, 나랑 친한 대리가, 애 결혼 안 했어요, 애 몇 살이에요, 얘기를 하는 거야. 짜증이 있는 대로 나는 거지.”

“내 핸드폰에 문자가 온 사례도 있었고, 영화 같이 보자고. 아마 내 명함이 다 붙어 있어서 그걸 보고 연락했을 수도 있어. 땀을 뺀지. 자기가 우리 회사에 차를 많이 고치러 오는 사람이었는데, 자기네 직원 세 명이 있는데, 세 명이 다 나를 소개해 달라 그랬다고.”

하나 씨는 남성 정비사가 “결혼하셨어요?”와 같은 질문을 듣는 일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일이었다고 했다. 남성 고객들로부터 ‘한 번 만나보자.’거나 ‘좋은 남자를 소개해주겠다’라는 식의, 소위 ‘작업’이 들어왔을 때의 경험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녀는 “사실 정비사

면 정비만 하면 되잖아.”라고 말했다. 하나 씨의 직장 동료와 고객들의 추근거리는 멘트, 하나 씨의 “정비사면 정비만 하면 되잖아.”라는 말에서 여성을 자신과 동등한 주체로 대하기보다는 연애/결혼 대상쯤으로 여기는 우리 사회 ‘남성’들의 시선을 엿볼 수 있었다.

하지만, 꼭 나쁘지만은 않다.

하나 씨는 자동차를 만들고 정비하는 자신의 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내내 그녀의 현재 직업이 좋은 직장인지, 나쁜 직장인지에 대한 가치판단을 배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른 레즈비언들에게도 추천해주고 싶은 직업이냐는 질문에도 “잘 모르겠어. 하고 싶으면 하고.”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자동차 정비사로의 전직을 선택하기 전 특허법률사무소에서 일했던 당시와 지금을 비교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성으로서, 레즈비언으로서, 부치로서 현재의 직업이 더 편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사무직으로서 일했을 때는 여성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이 있었어. 예를 들어, 청소, 설거지, 커피, 설거지 같은 거.”

“그리고 내가 또 발표를 하러 가는 프리젠테이션 자리에 가야 돼, 그럼 치마를 입어야 돼. 그럼 다소곳하게 있어야 돼. 화장을 하고. 너무 불편한 거야. 그래서 항상 바지와 신발을 따로 챙겨가야 돼. 프리젠테이션 끝나면 바로 벗고 가야 되니까. 너무 불편했어.”

최근에는 여성노동자에게 화장이나 치마와 같은 의상을 강요하는 것을 ‘꾸미기 노동’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하나 씨의 이야기에 따르면 자동차를 만들고 정비하는 일은 ‘꾸미기 노동’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다. 누군가 왜 화장을 안 하냐고 묻는다면 “불편해서 그걸 왜 하니, 어차피 움직이면 땀나서 필요 없는데.”라고 대답하면 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자동차 정비를 한다고 해서 여성스러운 복장이나 화장을 요구받는 일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 씨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다.

“그럼 당신들은 정장 입고 출근하오?’ ‘아니오.’ 그럼 나한테 그러지 말라고. 근데 그러고 나서도 몇 번을 얘기해. 그럼 나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지. ‘너나 그래라.’”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것은 그녀가 ‘여성’ 정비사로서 책임감과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녀의 이야기로부터 다른 여성들에 대한 동료의식도 느껴졌다.

“내가 여성 정비사로서의 처음이 많았던 말이야. 어딜 가든 처음 여성 정비사. 그래서 그냥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내가 하나의 길이 될 수 있으니까. 내가 여기서 완전 일 안하고 밍보이고 그러면 다시 오시는 분, 여성 정비사가 일자리 구하거나 할 때

힘들 거 아냐. 그래서 좀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건 현대에서 그만두고 나서 다른 데 가서 TO가 났으니까 사람을 뽑을 거 아냐, 근데 여성 정비사 우대라고 적혀 있는 걸 본 거야. 그 때의 기분은 참 좋더라. 내가 잘 했구나.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고.”

커밍아웃, 그 참을 수밖에 없는 가벼움

현재 하나 씨가 다니고 있는 전기자동차 회사는 그녀가 대학 졸업 후 취업한 다섯 번째 직장이다. 대학생 시절에는 백화점에서 물건을 파는 일부터 하우스키핑까지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다고 한다. 수많은 일터를 전전하는 동안 하나 씨가 커밍아웃을 했던 직장 동료는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우연히’ 털어놓게 된 남성 동료 딱 한 명이다.

“술 먹고. 개가 여자친구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는 거야. 내가 ‘내가 여자를 더 잘 알아.’ 술 먹고. ‘여자는 누나한테 얘기해, 누나가 더 잘 알아.’ ‘네?’ ‘누나 여자 많이 사귀어봤어.’ 그 때부터 5분 정적. ‘누나, 네?’ 이러는데 나는 거짓말을 못 하겠는 거야. ‘그래 누나가 사실은 레즈비언이야.’ 지하철 타고 가고 있는데. 술은 이미 취했고. 술이 확 깨더라고. 눈물이 또르륵 흘렸어. 모르겠어, (그 때) 감정을. 일단 술이 취했으니까 울었겠지. 그리고서는 (개가) ‘누나 괜찮아요. 저는 신경 안 써요.’ 지금도 되게 친한 동생이고, 내가 엄청 예뻐하는 동생이야.”

이 동료는 하나 씨의 파트너인 이경과도 만났다고 한다. 단 한 명뿐이기는 하지만 자신이 레즈비언임을 털어놓았을 때 자신의 존재를 받아들여준 그 한 명의 존재만으로도 마음이 편하고 좋다고 하나 씨는 말했다.

“이번에 베트남 여행 갔다 와서 사람들이 핸드폰 사진 좀 보여 달라고 하면 ‘아 없어요, 전 다 디지털카메라로 찍어서. 철벽방어.’ 근데 엘리베이터에서 개를 딱 만난 거야. (그러면) ‘야, 누나가 베트남 갔다 왔어 이리 와봐.’ 막 보여주고. 그런 자유 있잖아요. 그런 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많은 시스젠더 이성애자들이 그러하듯이 성소수자들에게도 애인이 있다는 것, 주말에 애인과 데이트를 즐긴다는 것, 휴가를 맞아 애인과 여행을 다녀오는 것이 엄청나게 특별한 일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월요일 오전 커피타임에 주말을 맞아 애인과 데이트를 즐긴 이야기를 하고, 데이트를 하면서 찍은 사진을 공유하는 일이 성소수자들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다. 많은 시스젠더 이성애자들이 연인이나 배우자의 사진을 자신의 책상이나 사물함에 올려놓기도 하고 컴퓨터나 핸드폰 배경화면으로 설정해놓기도 한다. 하지만

2017년 한국 사회에서 성소수자 노동자가 자신이 동성 파트너가 있다는 것을 알리거나, 동성 파트너의 사진을 직장 동료에게 내보이는 일은 정말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한다. 이런 사회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고 자신의 일상을 스스럼없이 드러낼 수 있는 동료가 있다는 것이 하나 씨에게는 큰 즐거움이 되었을 것이다.

또한 그 동료에게 커밍아웃을 했다는 것이 그 동료를 더욱 신뢰하게 된 계기가 된 듯하다. 어디서든 ‘내 편’이 한 명이라도 있다는 일은 든든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개는 내가 어떻게 해서 아웃팅을 당하거나 이랬을 때, 아니면 어쨌든 나쁜 일이 생겼을 때 그런 것 때문에, 그럼 날 정말 이해해 줄 것 같은 동생이기 때문에.”

이 한 명을 제외하고는 하나 씨는 지금도 직장 동료들에게 자신이 레즈비언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한 적이 없다. 다른 동료들에게 커밍아웃을 하지 않는 이유를 물었을 때 하나 씨는 이렇게 대답했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되게 어색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은연중에 이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여성 비하적인 이야기거나 아니면 이제 아직 인권에 대해서 잘 다들어지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 그리고 굳이 내가 그런 걸 커밍아웃을 하고 싶은 사람도 없고, 진짜 딱 여섯 시까지만 일하고 퇴근하고 완전 다 이래버리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게 편하니까. 별로 친해지고 싶지 않아요.”

하나 씨의 이야기에서 하나 씨가 다른 동료들에게 커밍아웃을 하지 않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 한 가지 이유는 직장 동료들의 인권감수성이 안전하게 커밍아웃을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다고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굳이 직장 동료들과 사생활을 터놓고 지내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것이다.

직장 생활과 사생활을 구분하고 싶어 하는 것이 성소수자들만의 욕구는 아닐 것이다. 오히려 서로의 사생활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직장생활에 있어서 하나의 ‘에티켓’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요즘의 추세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굳이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는 것과, 솔직하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누군가의 반감을 사거나 자신에게 불이익이 돌아오게 될 것이 두려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은 분명 다르다.

성적 지향 때문에 자신의 일상을 숨기거나, 거짓말을 하게 되는 순간들은 대개 예상치 못하게 찾아오곤 한다. 하나 씨는 불과 인터뷰 2주 전에 일어났던 아찔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었다. 요컨대 연휴를 맞아 파트너와 함께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하필이면 커밍아웃을 하지 않은 직장 상사와 출국 시간이 겹치게 되었다는 것이다. 하나 씨와 그녀의 파트너 이경이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해주었다.

“선글라스, 마스크, 모자 쓰고 숨어있었어요. 왜냐하면 애인하고 같이 간다고 떠벌린 거야. 차라리 혼자 간다고 하지, 친구랑 간다고 하거나. 근데 내가 옆에 있으면 이상하

잘아요.” (이경)

“떨어져 있으라고, 이제부터 여보라고 하지 말고, 하나라고 부르지도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나)

“만나면 나는 계속 앞으로 걸어가는 걸로.” (이경)

하나 씨는 “피곤한 삶입니다.”라며 너털웃음을 지으면서도 “근데 이성애자였으면 안 그랬겠지.”라는 한 마디를 덧붙였다. 옆에 있던 이경도 “만나면 커피 한 잔 했겠죠.”라고 거들었다. 그러면서 하나 씨는 한 10년 안에는 모두에게 커밍아웃을 하고 살 생각이라고 이야기했다. 이미 하나 씨는 성소수자 커뮤니티 안팎으로 자신이 레즈비언임을 당당하게 드러내면서 활동하고 있다. 머지않아 출간될 성소수자 가족구성원과 관련된 단행본 한 권에는 하나 씨의 인터뷰가 하나 씨의 이름과 얼굴과 함께 나온다고 한다. 하나 씨는 ‘아무도 그 책을 안 읽을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동의서에 사인을 했노라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지만 앞으로 지인들이 그 인터뷰를 읽고 “이거 언니 맞아요?”라고 물어본다면 솔직하게 이야기할 생각이라고 한다.

“이제는 귀찮아. 거짓말하고 숨기고 이러는 것도 너무 귀찮고.”

하나 씨가 직장 동료들을 비롯한 주위 사람들에게 커밍아웃을 했을 때,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짐작할 수는 없다. 다만 하나 씨가 더 이상 원치 않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하루빨리 오기를 소망해본다.

하나 씨의 미래, 우리의 미래

인터뷰가 후반부로 넘어갈 때쯤, 하나 씨에게 5년, 10년 후의 계획을 물었다. 그녀는 바로 대답하는 대신 10년 후 본인의 나이를 계산했다. 10년 후, 마흔 셋이면 아직 너무 젊은 나이라고 했다. 2017년, 서른세 살의 하나 씨는 두려움이나 걱정보다는 하고 싶은 일이 많은 사람이었다. 세계여행도 다녀오고 싶고, 테슬라에도 들어가고 싶고, 사업도 해보고 싶다고 했다. 실제로 하나 씨는 지금도 전기자동차 기사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는 등 진취적인 삶을 살고 있다.

다만 걱정 내지는 불만이 있다면 동성 커플에 대한 제도적 불이익에 관한 것들이었다. 하나 씨 커플의 이야기도 결혼제도로부터 배제된 여러 동성 커플들의 고충에서 크게 벗어난 것들이 아니었다.

“법적으로, 이번에 지진 났을 때 그 때 집에 있었거든, 근데 집기류가 막 흔들리는 거야, 너무 겁이 나고, 근데 되게 진지하게 내가 정말 여기서 죽거나 콕이경이 실종되거나 그랬을 때 내가 콕이경을 찾을 수 있는 루트가 별로 없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확 느껴지고 난 다음에 너무 무서웠어.”

“살다보니까 불안함이라기보다는 억울한 게 많은 게, 나랑 청약 신혼부부 이런 것도 하고 싶고, 그리고 여러 가지 혜택들이 많더라고. 애가 없더라도.”

하나 씨는 파트너가 아파서 입원을 했을 때 보호자로서 서명이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어떻게든 본인이 할 거라고, 병원에서 안 된다면 싸울 거라고 했다. 옆에 있던 이경은 “하나와 싸우는 간호사는 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 씨는 낙천적이면서도 거침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특허법률사무소에서 일하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컸다는 이야기, 레즈비언의 삶을 생각하다 보면 ‘독거’, ‘불행’이라는 말을 떠올리곤 했다는 이야기가 믿기지 않았을 정도로.

“사실은 진짜 내가 옛날에 그랬나 싶을 정도로 하나도 두려운 게 없어. 그 두려움을 그냥 살아보니까, 내 삶이 무서웠거든 이렇게 살까봐. 진짜 이렇게 살까봐 무서웠거든. 근데 막상 이렇게 살고 보니까 이제 두려움이 없어져버렸어. 지금은 너무나 만족하고, 완전 바닥을 치고 조금씩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더 나빠질 리가 있나 이제,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

그래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아예 새로운 직업을 찾아 나선다는 것, 자동차 정비는 남성이 하는 일이라는 편견에 맞서며 곳곳이 노동하는 일이 마냥 쉬운 일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무엇이 지금의 하나 씨를 있게 했을까? 하나 씨는 전직을 결심할 수 있게 되었던 계기 중 하나로 성소수자 커뮤니티 활동에 발을 들이게 되었다는 점을 들었다.

“옛날엔 진짜 완전 벽장에 있었을 때 그런 두려움이 컸다면, 거기서 조금 나왔을 때, 동인연을 만나고부터는 훨씬 오픈되고 자유로워진 상태에서는, 회사를 그만둘 수 있는 용기가 생겼던 것 같아. 그리고 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었고, 그리고 나서 그 두려움을 안고, 그럼 한 번 해보자, 모험 한 번 싸우는 거 해보자, 지금 아직 젊으니까.”

하나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소수자 노동자 인터뷰 사업의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 성소수자 운동의 지향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되었다. 그녀에게 용기를 주고 그녀의 인생을 바꿔놓았던 것은 다름 아닌 성소수자 커뮤니티 그 자체였다. 앞으로도 성소수자 운동이 혐오세력에 맞서는 것, 성소수자에 대한 법적·제도적 차별을 철폐해 나가는 것,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내리고 있는 이성애 중심주의와

성별 이분법적 편견에 맞서는 것은 중요한 일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더 많은 성소수자들이 더 큰 용기를 얻어갈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일이 아닐까.

작년, 수많은 ‘##내 성폭력’이 폭로되는 한 가운데 “우리는 서로의 용기가 될 거야.”라고 외쳤다. 하나 씨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또 다른 용기를 불어넣을 수 있기를, 우리가 오늘 이후로는 지금보다 더 큰 용기를 주고받을 수 있기를 소망해본다.

::다섯 번째 사람. 레즈비언 노동자, 용띠 윤여정

인터뷰진행: 곽이경, 이학인

글쓴이: 곽이경

여정을 알고지낸 지 꽤 되었다. 그녀를 만나는 곳은 주로 싸움터다. 노동자들이 생존권을 걸고 투쟁하는 집회 현장에 빠짐없이 나타나는 여정은 정작 자신이 활동가가 아니라 노동자 소시민이라고 했다. IMF 세대인 여정은 졸업하자마자 한 일본회사의 한국지사에 취업했다. 기계를 수입해서 한국에 판매하는 회사였다. 전공과 상관없이 일본어를 할 줄 안다는 이유로 취직했다. 비교적 쉬운 취업이었다고 한다. 그 이후로도 17년 동안 직장을 네 번 옮겼다. 여정은 대체로 자신의 인생은 순탄한 편이었다는 평으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여정의 삶에서 [평탄함]이나 [적응]이라는 키워드는 매우 중요하게 읽힌다. 스스로 말하기에, 둔하고 잘 질리지 않는, 무던한 직장인 여정, 여태까지 빼곡하게 자신의 노동이력을 채워온 여성 성소수자 직장인의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졌다. 별일 없고, 할 얘기가 없고, 특별하지 않은 삶 속에 어떤 이야기가 담겨있을까. 그녀에게 직장은 무엇일까? 어떤 생존전략을 갖고 있을까?

[커밍아웃의 역사]

“나는 일반사람들에게 많이 하는 편인데, 이들이 내 주위에 그런 사람들 없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

여정은 커밍아웃을 통해 성소수자들도 평범한 사람이란걸 알려주고 싶다고 한다. 그럼 여정의 커밍아웃 역사는 어떨까?

“1999년 10월 23일에 처음으로 나왔어. 주로 라브리스에 춤추러 다녔지. 어느 날 신의 계시처럼 졸업준비위원회 사무실에 앉아있는데 나도 모르게 네이버에 레즈비언을 검색하더라고. 사이트가 막 뜨길래 채팅방 같은 곳을 들어갔어.”

그런데 알고 보니 게이들이 모인 곳이었다. 아무튼 여정은 그런 계기를 통해 성소수자의 세계에 입문했다.

“정체성에 대한 깨달음을 얻은 것이 나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어. 친구들에게 말했을 때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고, “네가 양성애자든, 동성애자든 서울역에서 껌을 팔든 너는 내 친구야”라고 해줬던 친구가 있었어. 아, 친구라면 그런거겠구나! 자신감이랄까. 그래서 나는 커밍아웃이 되게 쉬운 것인 줄 알았어.”

여정에게 첫 커밍아웃은 크게 어렵지 않았다고 한다. 이후 여정은 첫 직장에서 몇몇 동료들에게도 커밍아웃을 하게 된다.

커밍아웃, 편해지고 깊어지는 경험

“직장 동료 자취집에 문제가 생겨서 애인과 살던 집에 데리고 왔는데 뭔가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은 거야. 며칠 후 얘기했는데 티 났었대.”

여정은 우연찮은 기회에 동료에게 커밍아웃을 하게 된다. 다른 직장 동갑친구는 먼저 눈치를 채고 말을 건네기도 했다.

“애인과 처음 살림을 합치고 맨날 칼퇴근하면서 친구 차로 카풀을 하는데 어느 날 느닷없이 신혼재미 좋은가보다 이러는 거예요. 멋진 자식.”

당황스러우면서도 편해지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마웠다. 먼저 아는 척해줘서. 이렇게 여정은 첫 직장을 다니며 우연한 기회에, 또는 동료의 이해 속에 여러 명에게 커밍아웃을 하게 되었다. 여정과 유대가 깊었던 이들은 모두 알고 있는 셈이었다.

그 이후로도 동료들과의 관계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고 여정은 말한다.

“오히려 더 편해졌죠. 자유로워졌죠. 내가 왜 결혼을 안 할 건지 연애를 안 하는지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연애를 안하는 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고.”

“누군가를 만나서 나의 중요한 부분을 계속 감추고 있어야 하는데 안 그래도 된다는게 일단 대화의 폭이 굉장히 넓어져. 길게 오래 보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면 커밍아웃은 없고, 이 사람과는 오래 잘 지내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솔직하게 이야기하죠. 오래갈 사람이 나의 반 이상을 모르고는 관계가 안 되잖아.”

갑자기 쓰러져도 내 애인을 동료가 안다면

여정은 29살에 뇌경색이 와서 쓰러졌다. 48시간 동안 의식이 없었으니 그녀에게나 가족 등 주변 사람들에게도 최대의 위기였다. 이 때 가족들은 여정의 정체성도 애인의 존재도

모르고 있었지만 다행히도 커밍아웃한 직장 동기가 여정의 애인을 알고 있어서 연락을 취할 수 있었다. 의식불명의 시간동안 가족들은 여정의 정체성을 알게 되었고 때마침 그녀의 애인을 병원에서 마주치게 되었다. 가족들에겐 두 가지의 충격이 동시에 온 고통의 시기였다.

성소수자들은 종종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겨 연락을 취하지 못했을 때 자신의 가장 소중한 사람이 연락을 못 받게 될 것을 걱정한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와 연결되어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것은 커밍아웃과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된 이슈다.

누구에게 커밍할 수 있을까

현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의 관계도 물어봤다.

“막내나 임경리에겐 은근슬쩍 가끔씩 툭툭 흘리기도 해. 결혼 안하고도 살 수 있고... (중략)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했을 때 충격을 완충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해나가지. (중략) 남자들은 잘 모르겠어.”

여정은 여성들, 상급자 보다는 동료직원들이 좀 더 수용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당시엔 여직원만 4명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일단 윗사람이 같이 없었고, 제일 윗사람이 이미 날 알고 있는 언니였으니까.”

물론 지금 직장 사장에게는 괜히 걸려서 꼬투리 잡히지 말라는 조언도 들었다. 여정의 성적지향을 알고 있는 여자 선배가 해준 이야기였다. 위기감까지는 아니었지만 조심하자는 생각을 했다.

“개는 이상해, 호모 같아, 라고 이야기한 직원이 있었거든. 그 부분에서 애는 안 될 수 있겠구나”

여정 또한 동료들의 반응을 면밀히 지켜보며 커밍아웃을 할지 안할지 판단해왔다. 동료의 태도가 중요한 것은 어느 곳을 막론하고 같다.

커밍아웃 후 문제가 되면 사표 쓰겠지

특히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는 커밍아웃할 의지나 계획이 없다고 한다.

“만약 여기서 그걸로(커밍아웃으로) 인해서 뭔가 문제가 발생해서 회사를 그만 두어야

할 상황이 오면 난 부당하고 투쟁을 하지 않을 거거든. 그럼 내 나이에 어딜 또... 조용히 다닐 마음이 들지.”

커밍아웃은 당연하게도 고용 지속 여부와 연결될 수밖에 없는 문제다. 다른 이유도 있다. 여정의 현재 애인은 과거에 회사에서 아웃팅 된 경험이 있다. 그때 관계의 단절을 크게 겪은 경험이 있다고 한다. 여정은 그래서 일단은 일터에서 커밍아웃을 안 하기로 했다.

그래도 끊임없이 신호를 보낸다

물론 회사 생활은 여전히 여러모로 녹록치 않다. 온전한 자신으로 존재하기엔 숨기거나 타협할 것이 많다. 여정은 비혼주의자로 자신을 방어한다. 직장에서 여정은 남자에 관심 없는 결혼 안한 40대 비혼 여성이다.

“일단 결혼은 안할 거다. 결혼도 안할거면서 이 나이에 남자 만나 봐야 그 남자한테 민폐지.”

라며 연애안하는 이유를 댈다.

물론 애인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직장동료들에게는 친구로 바꾸어 말한다.

“친구랑 그냥 애인이랑 하는 걸 거의 다 하면서 놀 수 있으니까 애인이 필요없을 지경 이랄까. 사람이 나이먹으면 이런 친구 하나 만들어 놔야 돼”라는 식으로 좀 흘리는 거지.”

여정 나름의 혹여나 나중에 동료들이 받을 충격을 완화시키는 방법이라고 한다. 물론 애인을 친구로 바꾸어 이야기하더라도 더 솔직히 이야기하고 싶어지는 건 어쩔 수 없다.

“간지러워 죽겠어. 막 말하고 싶은데. 주말에 재밌는 걸 하고 그걸 자랑하고 싶은거지. 차라리 좀 눈치 채고 물어보면 좀 나을텐데, 엄마한테 담배 걸리듯이.”

여전히 여정은 동료에게 자신이 보내는 신호를 누군가 눈치채주기를 바란다. 가만 짚어 보면 여정은 회사에서 커밍아웃을 포기하거나 필요 없다고 여겨본 적이 없다.

[퀴어운동에서 레즈비언, 직장인, 운동권 삼위일체를 이루기까지]

여정은 직장생활을 사회운동과도 병행했다. 여정의 운동은 느슨하지만 여정이 레즈비언

으로 살아온 삶의 궤적을 따라간다. 여정은 2000년경 인천의 한 단체 여성분과에서 활동을 하게 된다. 당시 앞으로 펼쳐질 소수자로서의 인생이 궁금했고, 당시 입양이나 미혼모의 권리에 관심이 많았다. 그게 내 인생에 더 관련이 깊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가족이라는 것, 혼자 외롭게 죽지 않는 미래와 연결되었다. 결혼을 할 수 없었으니 어떤 방식으로 살아갈지에 대한 탐색이었다. 당시 성소수자운동보다 여성운동을 찾아간 이유다. 전 애인과 수년을 함께 살 때에는 나이가 어려서 가족이라고 생각하지는 못했다. 언젠가는 시집을 갈 것이고 (여정은 이걸 취집이라고 표현했다) 언젠가는 떠날 것이라 생각했다.

시간이 좀 더 흘러 뒤늦게 접한 퀴어운동은 여정에게 큰 변화를 가져왔다. 2007년 처음 가본 퀴어문화축제는 두근두근했다. 이 세상에 나만 이런 것이 아니구나 생각했다. 여정은 퀴어운동판을 알게되며 좀 더 숨통이 트였다고 한다.

“티지에서 수다떠는 거랑 다른 결의 이야기를 할 수 있었고, 그 이야기들이 내가 사회단체들 하면서 가지고 있던 고민들이랑 이어지는게 좋았기 때문에 더 좋기는 했었지.”

“나같은 경우는 연애와 직장과 운동이 있는데 요것들이 골고루 섞이기에는 이 퀴어운동판이 되게 좋았었지. 그리고 되게 다양한 종류의 인간을 만났고.”

“레즈비언과 직장인과 운동권, 이게 합쳐질 수 있는 공간이 되곤 이후의 운동권판, 퀴어운동 판들이었으니까.”

여정은 붉은 이반, 2008년 당시 최현숙 후보 선거운동 등을 열심히 했다. 여정에게 퀴어운동은 여러 정체성으로 분절된 자신을 합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이었다.

여정이 첫 직장을 다닐 때와 지금은 여정을 둘러싼 관계도 달라져 있다. 첫 직장을 다닐 때에 여정은 직장동료들 외에는 다른 생활이 없었지만, 성소수자 운동 속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는 다른 이야기할 사람들이 생겼다.

“온통 생활은 여기(직장)밖에 없었던거고, 그래서 더 절실했겠지. 데뷔하고 나서 오히려 직장에서 커밍아웃 한 일이 없으니까. (중략) 어디든 떠들 수 있는 곳이 많아졌으니까”

성소수자 노동인권과 관련하여 중요한 할 일 중 하나가 당사자들이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커뮤니티를 운영 지원하는 것일 수 있겠다.

[여자이지만 ‘여직원’으로 대우받지 않았던 시간]

여정의 첫 직장은 각 파트마다 여성노동자들이 한 명씩 있는 꼴이었다. 여성직원들은 주로 문서작업을 맡았고 남성 직원에 비해 급여가 적었다. 아마 대졸과 고졸 차이였을 것이라 한다. 여정은 남성 직원들이 주로 하는 일을 하게 됐다. 그 때문이었는지 몰라도 외모는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한다. 오히려 행사에서 여성 직원들은 치마 유니폼을 입는 반면 여정은 혼자 바지 유니폼을 입었다.

“그냥 다들 그러려니 했던 것 같아. 회사에서 전시회를 할 때에는 전시회용 유니폼을 맞춰서, 나는 바지를 신청했는데(남성용) 그냥 넘어갔어. 다들 보기 싫었나봐. 아무도 뭐라하지 않았어.”

오히려 혼자만 바지를 입는 것은 불편했을 수 있었을 것 같아 다시 질문했다.

“나는 잘 설득해서 바지 입을거야. 그때도 여자들 다 리본이었는데 난 넥타이 댔거든. (중략) 난 그걸 내 업무 상의 특성으로 자가 해석했었어. 다른 여직원들은 경리나 회계를 보던 서포트 직이었고 난 내 담당 파트가 있어서 혼자 전문직 프라이드가 있었던 것 같아.”

남성직원과 커플로 엮는 일도 종종 있었다.

“나 그런 거 되게 무던해, 오히려 어떻게 보면 내가 영악한 것일수도 있지. 그거를 잘 이용해먹었어.”

윤양과 윤군 사이에서 갈등하기

여정은 직장에서 ‘윤군’이라고 불리곤 했다.

“(윤군이라고 부르는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넘어 가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은 굉장히 달라졌을 것 같아. 사람들이 처음엔 놀리려고 그랬던 것인지 몰라도, 놀림이 되지 않으면 또 하나의 나의 특질이 되는 거고”

여정은 대화 속에서 주로 여성이지만 여성으로 인식되지 않는 상황을 어떻게 하면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경험을 많이 들려줬다. 보통은 무대응, 받아들이기, 동요하지 않기를 통해 놀림이 될 수 있는 순간에서 자신을 방어한다. 예민해지지 않는 것을 포함해서 많은 성소수자들은 직장에서 불편한 상황을 탈출하기 위한 자기만의 방식을 가지곤 한다. 여정처럼 남성들이 주로 하는 일을 맡고, ‘남성적’인 스타일로 인지되고, 스스

로도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면 성별규범의 문제에서 조금은 비껴설 수 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모두가 잘 대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상이 남지 않는 것은 아니다.

여정의 첫 직장은 사생활에 크게 간섭하는 편은 아닌 외국계 회사라 오히려 편했다. 회식 후 남성 직원 셋에 여정만 남았을 때 노래방 도우미를 부른 적 있다. 여정은 참고 있기에 자신의 생활이 이중적이라고 한다.

“내 삶은 이중적이야. 밖에 나가서는 (도우미 부르는 것) 안 된다고 막 그러고 내 삶에서는 트러블을 안 만드는 소시민인 것이지. 적당히 참아주고 눈감아주고, 내 밥줄이니까. 완전 분리된 영역이지. 세상을 바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자책은 꼭 여정의 몫이 되어야 할까?

나는 피해자성도, 당사자성도 없는 레즈비언

이번이 행성인 노동권팀이 진행한 2010년 이래 세 번째 인터뷰 사업이다. 제각각 다른 사람들을 인터뷰했지만 늘 이들은 자신은 성소수자로서 피해당한 적도 없고, 그것을 인식하며 살아오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여정도 마찬가지다.

“내가 보통 사람들 예상하고 되게 동떨어지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피해자성도 없고 당사자성도 없이 사는 애라고. (중략) 소수자 감수성이 없어. 내가 너무 편안하게 살아가지고, (중략) 그런 사례가 필요하다고 하면 나에게 나올 것이 없다..”

“사회생활 하면서도 내가 웬만한 남자들보다 힘쎌고, 운동 잘 했고, 공부 잘했고.. 여자라서 그렇게 떨어지는 대우를 받았거나 하는 그런 경우는... 월급은 회사 내규에 따라서 뭐, 그거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는 그다지 불만은 없었던 시기였으니까.”

여정은 남성과 비교했을 때 뒤쳐지지 않았으므로 여성으로서 억울한 일은 크게 겪지 않았다고 했다. 모든 성소수자들이 차별의 피해자로서의 정체성을 강하게 느껴야만 한다고 생각지는 않는다. 오히려 많은 인터뷰 결과에서는 대다수 성소수자들이 자신이 어떤 차별을 당했는지 설명할 수 없어하고, 직장에서 적응하기 위한 여러 어려움 중 하나일 뿐이라고 느끼기도 한다.

몇 가지 함께 생각해볼만한 사례들이 떠올랐다. 우리가 인터뷰했던 게이 노동자들은 남자답지 못하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문제가 있거나 뒤쳐지는 사람이 되었던 경험을 이야기했다. 여정의 경험과 비교해보면 ‘남성성’에 비해 ‘여성성’이 보다 차별적 위치에 놓인다는 점이 눈에 띈다. 물론 다른 방향의 경험도 있다. 많은 레즈비언 노동자는 예쁘지 않고

꾸미지 않는다는 이유로 면접 등에서 반복적으로 차별받은 경험을 이야기하기도 한다. FTM트랜스젠더 이주노동자는 공장에서 일하며 성추행을 겪기도 했다. 남성성/여성성에 대한 차별은 그가 처한 위치, 상황 등 권력관계들과 서로 얽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여정에게 성소수자로 차별받은 경험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질문했다.

“현재로서 딱히 기억나는 것은 없고, 성소수자라서 느끼는 것은 내가 계속 인지하고 있어야 하고, 내가 모든 상황을 필터링했어야 하는 건데, 내가 평상시에 그러고 살지 않아. 그게 부대껴서 계속 막혀있으면 필터링이 될텐데, 내가 회사라는 공간에서 오픈 안할 뿐이지, 내가 응어리가 없기 때문에 내가 굳이 그 시선으로 이걸 바라보지 않는 한은 그냥 넘어가버리거든. 그래서 못 느끼고 넘어갈 수도 있어. 그래도 여성 차별은 인지 할 수 있었겠지? 그런데 아마도 회사가 다 그런거지하고 넘어갔을 수도 있어.”

차별이 당사자의 ‘말’로 표현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여정을 비롯한 대다수 성소수자들이 오히려 이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일터에서의 나와, 아닌 곳에서의 나를 철저히 구분하는 것으로 삶에 안정성을 부여하는 방식, 그것 또한 차별의 한 면이 아닐까. 순응하거나 내가 접고 넘어가야하는 상황에 놓이는 사람들은 차별받는 사람들, 권력이 없는 사람들이다.

[평범하게 살고 싶다]

아빠는 여정에게 100명 중에 90명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을 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런데 여정은 10%, 때로는 1%의 길을 가고 있다. 여정은 사실 조금씩은 ‘평범’에 양보하는 삶이 아니었을까. 무던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좀더 편하다고 생각했던 건 아니었을까. 지속적인 불안감을 안고서.

여정은 반년 정도 사회단체에서 간사로 일한 적 있다. 얼핏 생각하면 자신의 운동과 정체성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기회일텐데 여정은 일반 직장 취직을 우선으로 삼았다. 그 이유는 이렇다.

“불확실한거에 나의 미래를 걸 수 없었기 때문에 취직했지. (중략) 내가 결혼이라는 것을 하지않고,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생활을 안할 거고. 내 존심이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자꾸만 해주고 싶어. 근데 그게 안되면 슬프잖아. 늙어서라도, 내 옆에 누군가 있다고 해도 내가 더 오래 일을 하고 싶고, 누군가를 챙길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싶은 거지. 그렇게 될 때까지 열심히 돈을 (모으고), 월급쟁이를 할려고.”

“나는 평범한 삶이 좋아. 출근하고 퇴근하고 뭔가 일을 하고. (중략) 그런 마인드이기 때문에 난 안정적인 생활이 좋아.”

안정, 별일 없이 사는 삶

안정을 제일로 추구하는 여정에게 ‘귀어로 산다는건 안정되기 힘든걸지’ 질문을 던져보았다. 여정은 안정과 연관된 것으로 가장 먼저 고용불안을 꼽았다.

“나는 본인의 정체성과 사회적 환경에서의 갈등에 되게 잘 순응하는 스타일이고, 내가 답답하면 내 숨통을 내가 찾는 거니까. 이 회사, 내 정체성 때문에 못 다닌다고 뛰쳐나온 적은 없었거든. 나는 그렇지만 안 그런 사람들도 있을테니까.”

여정은 스스로를 현실에 잘 맞추는, ‘생존본능’이 강한 스타일 같다고 평했다.

[먹고사니즘, 가난한 미래에 대한 공포]

여정은 정년 퇴직 나이가 넘더라도 알바라도 해서 일하고 싶다고 했다. 한 편으로는 그 전에 죽고 싶다고도 한다.

“나 노화공포 있어. 늙는게 무섭다는 거지. 일할 수 없을까봐. 일할 수 없다는 건 벌이 할 수 없다는 거고 벌이할 수 없다는 것은 되게 슬프잖아.”

누군가 자신을 책임져 줄거라고 생각 해봤는지 물어봤다.

“그 생각은 한번도 안해봤어. 그 버티는 삶이 내가 너무 싫을 것 같다. 박스 좁는 할머니들 비하하지는 않는데 내가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은거야. 그래야 될 것 같으면 죽어버릴 것 같은거지. 그래서 항상 자살의 가능성을 놓아두고 있어.”

여정은 인생의 가장 큰 위협이 일거리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한다. 자립의 욕구가 크고, 연애 등의 관계도 이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동반자가 있다면 더욱 책임감을 갖게 되고, 고생시키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일거리는 더욱 중요하다.

여정이 50대가 되는 10년 후의 삶은 어떨지 물어봤다.

“그건 진짜 무서울 것 같아. (중략) 나는 최선을 다해서 버틴다는 거밖에 없어. 지금. 어디 갈거야, 뭘 할 수 있겠어. 장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이유도 있다.

“신체 기능의 노화가 무서워. 내가 허리를 다쳐가지고 처음으로 우울증 비슷하게 확 온거야. 내가 가진 건 몸뚱이 밖에 없다고 맨날 주장했고, 힘이 좋고 운동 기능이 좋기 때문에 노가다를 뛰어서라도 먹고 산다. 였는데 허리가 고장나고 손목 고장나고 나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 순간, 옛날에는 사무직 직장 잘려도 나중에 뭐 공장가서 알바를 할 수 있고, 건물청소도 할 수 있으니 먹고살 수 있다고 생각하던게 깨진 거잖아. 병원에 누워있는데 암담한거야. 진짜 회사에서 버티고, 월급쟁이로 살아야 하는거야.”

여정에게 신체의 노화는 노동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상실하는 것이었다. 아무리 병원비를 쏟아부어도 몸이 낫지 않아 포기하고, 이젠 지금 하는 사무직 일에 매달려야겠다는 싶었다. 여정은 이런 상황을 버티기 힘든 일은 오래 담아두지 않고 잘 적응하는 자신에게 감사한다고 했다.

우리는 이번 인터뷰 사업을 준비하면서 여전히 성소수자들에게는 중년 이후 삶의 역할모델이 충분치 않다는 점을 염두하고 40~50대의 인터뷰를 진행하고자 했다. 특히 저임금, 비정규직 차별을 겪고 있는 여성, 특히 비혼 여성노동자로서 겪는 문제를 드러내고자했다. 고민은 나를 포함해서 노후에 대한 두려움과 연결되어 있었다. 특히 가족을 구성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지속적인 고용불안의 상태에 놓이는 것은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성에 대한 고용차별 문제에 있어서도 성소수자인 여성들이 겪는 어려움은 잘 보이지 않는다.

불편을 감내하고 싶은 사람은 없다. 몸이 말을 듣지 않게 되는 것이 개인의 불운함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 아직 겪지 않은 미래가 선하게 눈에 보여 불안에 시달린다면 그대로 두어서는 될 문제가 아니다. 진정한 젠더평등에 기초한 노동 및 복지정책, 사회안전망 강화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여섯 번째 사람. 우체국 노동자 임씨

6년 만에 다시 만난 소중한 인연

이경, 하나, 토브

2011년에 발행된 ‘나, 성소수자노동자’에서 ‘유니폼과 화장실 연대기’라는 주제로 인터뷰를 했던 우체국 노동자 임씨를 6년만인 2017년 가을 압구정동의 명우형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다.

지난 인터뷰에서는 성별로 이분되어 강요받았던 교복과 유니폼 그리고 화장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별이분법’적인 세상에 대한 문제의식을 심어주기도 했었고, 17세의 어린 나이에 시작한 공장 노동자로서의 삶, 90년대 압구정동 세탁소 노동자로서의 삶을 거쳐 우체국 집배원이라는 남성 중심 직장에서의 삶, 그리고 우체국 내근직으로의 삶까지 다양한 노동의 역사와 그 현장에서의 투쟁, 타협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다.

6년이라는 세월 동안 50대가 된 그는 그동안 어떠한 삶을 살아왔으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했다.

1. 성정체성

“11살 그쯤인데. 나는 말을 못 하고, 나는 총이 좋고, 여자들이 좋은데, 내 남자 형제가, 내 띠동갑 형제가, 내가 막내니까, 원피스를 사줬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이걸 말할 수가 없는데. 내가 원하지 않던 거지. 한 번도 입지 않았지. 그 당시 우리 형편에 양말 하나를 받아도 큰 선물인데, 우리 형제가 내게 원피스를 준 건 되게 큰 선물인 거야. 내 인생 통틀어서 가장 큰 선물인데, 쳐다보지도 않았지. 뭐랄까. 내가 말은 못 하지만 그때 어린 나이인데도 너무 자존심 상하고 기분이 나쁜 거야. 그런데 형제들은 이상했겠죠. 어려운 환경에서도 선물을 해주니까 왜 입지 않았을까? 그 나이에는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은 하지 못 하고. 그러고 얼마 있다가, 한 2년 정도 있다가, 띠동갑 형제 바로 밑에 여자 형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원피스 사건 이후로 굉장히 내 안에는 화가 많이 난 상태였어요. 그렇다고 나를 식구들한테 공개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닌데. 한 2년인가 있다가 내 띠동갑 형제 두 번째 밑인가, 이런 호칭을 하기가 미안한데요. 내가 형제들이랑 사이가 엄청 좋아요. 늘 놀러 같이 다니고, 식사 항상 같이 하는데, 그런데 내가 언니나 오빠란 말을 안 써요. 내가 “영아”라거나 “형아” 하면 다들 그런가 보다 해요. 당연히 지금도 내일 모레 65세 넘은

사람들도, “엉아” 하면 다 알아요. 내가 커밍아웃을 했기 때문에. 맨 위에 형제가 엉아가 남자고, 뒤에는 여잔데, 두 살 터울로. 그때는 마음에 드는 선물을 받았어요. 뭐냐? 츠리닝이, 삼색 츠리닝, 그걸 받은 거예요. 우리가 엄청 가난했던 말이야. 그걸 추석 선물로 줬는데, 추석 이후에 날씨가 안 추워지는 거야. 빨리 날씨가 추워져야 이거 입을 텐데, 안 추워져. 그러면서 정체성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지난 인터뷰에서 스스로 이야기하지는 않았으나 우리는 그를 ‘트랜스젠더’라는 성정체성으로 소개했었다. 그 당시 우리들 자체에서도 성정체성(자신이 인식하는 자신의 사회적 성별)과 성지향성(자신이 이끌리는 성별 또는 젠더) 등 다양한 개념에 대하여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던 터라 오히려 그가 인터뷰에서 보여주었던 도드라지는 특징으로 트랜스젠더라 규정했었던 것 같다.

“이건 확실히 규정할 수 있어요. 내 겉모습이 남자가 되길 바라지는 않아요.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는 여성의 징후들을 평생 불편해했어요. 그거는 확실해요.”

그는 트랜스젠더가 아니라고 했다. 그는 단지 여성의 몸으로 태어나 여성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2. 성별호칭-가족과 직장동료

사람에게 붙이는 호칭들 가운데 유독 성별과 관련된 호칭들이 많다. 이모, 삼촌, 형, 누나, ~여사님, ~군, ~양 등 우리 삶 속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쓰이는 호칭들이며 애매한 순간에 비교적 쉽게 쓸 수 있는 호칭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호칭들이 자신의 생물학적 성(性)과 사회적 젠더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불쾌한 경험이 될 수도 있다.

“아니, 근데 조카가 결혼을 했는데, 조카와이프가 호칭이 다르더라고. 고모니 뭐니 하더라고. 내가 그랬어, 차라리 이름을 부르라고. 집안 식구들이 다 뺑친거야. 아니, 근데 나로서는 듣고 싶지 않아.”

“근데 우리가 또 사회생활 경력이 있잖아. 내공이 있어서, 가족끼리 거리감 들게 막 하지는 않고 잘 넘어가도록 하죠. 그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관계가 틀어지게 까진 안 하죠. 만약에 인간관계가 틀어지게까지 하면 그건 안 되니까. 단지 내 의사를 밝히는 거죠. ‘그건 내가 좋아하지 않는다.’ 이번 추석에도 형제들이 다 모였어. 조카네 애들이 있잖아. 조카의 애들이니까, 내가 호칭을 칭하면 할머니니 그럴잖아? 그러니까 내 형제가 그러는 거야. 둘째 여자 형제가 차라리 할아버지라고 하라고. 엄마아빠 형제들 다

있는데. 이를테면 그런 식. 그때는 차라리 낫지.”

가족에게 나의 본 모습을 인정받는다라는 것은 성소수자들에게는 꿈만 같은 일이다. 지금이야 그의 본 모습을 사랑해주고 원하는 호칭을 불러주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 행복한 그이지만, 오랜 시간 동안 내적 갈등을 겪으면서 확립해온 ‘나’라는 존재에 대하여 가족에게 인정받기까지의 긴 과정과 그 속에서 투쟁과 타협의 시간을 걸어왔을 그였기에 가족과의 이러한 관계가 더 값져 보였다.

“우리 직장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벌써 우리 직장엔 한 우리에서 20년, 긴 사람은 30년을 같이 일한 사람들이라. 누구 이름을 막 불러요. 나 같은 경우는 다른 여자들보다 나이가 더 어려. 우리 부서에서도 막내 축에 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른 애들한테는 반말로 ‘~해라’ 식으로. 그런데 나한테는 ‘~씨’, 이렇게 부른다고. 남자들이. 여자들은 장난 반 진담 반으로 ‘임군’ 그래”

자신의 생물학적 성별에 대하여 갈등을 겪고 있는 성소수자의 경우 직장에서도 자신이 원하지 않는 성별 호칭 혹은 조롱 섞인 성별 호칭으로 괴로워하는 경우가 많다. 다행히도 그는 직장에서도 그가 불편해하지 않을 중성적 혹은 남성적인 호칭으로 불리고 있었다. 흔하지 않은 경우이지만 이러한 환경을 만들기 까지는 긴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을 것이다.

3. 삶에서 직장이 가지는 의미

“직장이, 이거 있어요. 내 살아보니, 직장이라는 것이 인생 전반에 가장 핵심인 거라고. 이거가 나도 어렸을 때는 직장을 서너 군데 옮겨봤어요. 그런데 직장을 자주 옮긴다는 게, 내 인생 자체가 투쟁인데, 후배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IMF 때 이런 말이 있었어요. ‘잘난 놈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끈질긴 놈이나 버티는 놈이 살아남는다.’ 그 안에서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도, 그거를 버티면서 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3, 4년은 내 인생에서 투쟁 기간으로 치면 굉장히 찰나인 거야. 찰나인 거라고. 나는 이게 있어요. 이게 아니다 싶으면 절대 타협하지 않아요. 절대. 그리고 어린 후배들한테 꼭 하고 싶은 얘기! 이게 관참은 직장이다 하면 거기서 버텨야 해요. 버텨야 모든 면에서 성장이 돼요. 어디 가잖아? 어디 가도, 경력을 인정해준다고 해도 다시 쌓아야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내가 살아 보니, 그거는 좋지 않다. 내가 나약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정신력으로 치면 엄청난 사람이에요.”

성소수자들은 직장 내에서 일반의 직장인이 가지는 문제들뿐만 아니라 성소수자라고 하는 특수성에 기하여 발생하는 문제들에도 함께 노출되어 있다. 남들과 다른 내가 나의

모습을 잃지 않으면서 그들과 함께하려고 발버둥 치며 ‘투쟁’을 하거나, 나 자신의 모습을 감추거나 잃더라도 ‘타협’해야만 하는 전쟁 같은 상황에 놓인다. 직장 내에서 보다 많은 문제들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성소수자들은 비성소수자들 보다 더 잦은 이직의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

그는 이런 가혹한 세파 속에서 정신력 하나만으로 버텼다. 인생 전반에서 가장 핵심적인 곳, 자기 자신 혹은 가족의 생계를 위한 수단, 때로는 자아실현의 수단이 되기도 하는 곳이 바로 직장이기때 그는 더욱 악착같이 버텼다. 정신력 하나만으로 버텼다는 그의 자부심에서 그간의 고단함을 느낄 수 있었으며 그 모습이 더없이 아름다워 보였다. 그는 성소수자가 마주하게 되는 직장 내 문제들에 대하여 더 끈질기게 투쟁하며 버티는 것이야말로 승리하는 길이라고 조언한다. 한 직장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이직을 감행하였을 때 또 다른 직장에서 똑같은 문제를 반복하며 결국에는 해결하지 못할 숙제만 안고 전전긍긍하는 성소수자 동료들에게 그는 ‘투쟁’과 ‘인내’를 조언하였다.

4. 성별이분법적 노동환경 - 화장실과 탈의실

2011년 인터뷰에서도 성별이분법적인 교복과 유니폼 그리고 화장실 이야기는 큰 이슈였다. 6년이 지난 지금 그에게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을까?

“화장실 문제는 아직도 진행형이고 지금도 그 이유로 많이 고통 받고 있어요. 탈의실도, 내가 집배원을 할 때는 10년 동안 탈의실을 아예 안 갔지. 출근을 하면, 공용 칸 옆에 잠바를 걸어. 옷을 갈아입기 싫으니까, 작업복을 입고 오지. 와서 잠바만 벗어놓고 옆에 걸어놓고 일을 하다가, 일을 하다 보니 옷을 갈아입어야 하잖아. 계속해서 아침 출근이 7시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없을 때 살짝 가서 빨리 옷을 갈아입고 빨리 나오자. 나는 남들 앞에서 옷을 갈아입는 게 부끄럽다고. 내가 거기 들어가는 것도 부끄럽다고”

“그래서 요 사이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나이가 들면 부끄러움도 없고 염치도 없어지면서 웬만한 사람들은 타협을 하는데, 내가 언제쯤 화장실 문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이 문제는 변함없이 그를 괴롭히고 있었다. 나이를 더 먹으면 괜찮아 지겠지. 염치없어지는 나이가 되면 괜찮아지겠지 라는 생각으로 수십여 년을 버텨온 그였다.

“그래서 행성인 20주년 후원의 밤이나 쿼어 축제 보면, 성-중립 화장실 보면서 너무 미소가 나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주년 후원의 밤 행사 때 우리는 모든 화장실을 성 중립(性中立) 화장실로 사용하였다. 성별로 이분화 되지 않은 공간. 처음으로 느껴본 편안함이었을 것이다.

6년 전에 진행한 그와의 인터뷰는 ‘유니폼’과 ‘장소’가 가지는 성별이분법적 요소에 대한 문제를 우리에게 인지도시켜주었으며, 동시에 성소수자 인권 문제의 지평을 넓히게 된 계기가 되었다. 그 이후 성별이분법적 화장실 문제가 미국에서 이슈가 되면서 성소수자 인권을 포용해야 한다는 오바마 행정부의 철학에 따라 백악관 내에 성 중립 화장실이 만들어 지기도 하였다.

“미국에서 그런 이슈가 나온 후에, ‘음, 저기도 나 같은 놈이있군.’ 하면서 뉴스를 들으면서 웃었다고. 바다 건너 저기도 ‘나’ 가 있구나.”

50대 중반이라는 세월을 지나면서 지금까지도 성별이분법적 공간으로부터 불편함을 느끼며 괴로워하는 그가 언제쯤이면 직장에서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을지, 그의 말처럼 염치가 없어지는 나이를 기다리는 것이 더 빠른 것일까 하는 생각에 인터뷰에 내내 착잡함이 밀려왔다.

5. 직장 내 차별적 복지제도 - 동반자 법이 필요하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가족수당이라는 이름으로 특정 요건을 갖춘 노동자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복지제도를 두는 경우가 있다. 성소수자에게 이러한 요건은 애초에 국가 제도상 획득 자체가 불가능하며 이러한 제도는 명백한 차별에 해당한다. 성소수자로서 직장 내에서 그가 접하고 있는 차별적 복지제도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만약 제가 파트너가 있으면 섭섭했겠조....”

지난 인터뷰 때에는 애인과 함께였던 그였다. 6년 만에 만난 그는 참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았다.

“가족 수당도 못 받고. 하지만 그거 외에는, 가족수당 외에는 특별히.... 사실 관심이 동성결혼이 안 되더라도 일차적으로 바라는 게 있다면, ‘동반자법’, 그것만이라도 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나중에 연금 같은 거, 그런 부분은 요 사이 많이 생각하는 부분이예요. 저도 똑같이 치열하게 싸우고 일을 하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은 배우자가 있어서 먼저 가면 배우자가 혜택을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법적으로 배우자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 생각은 했어요. 전에 그 선배가 그 얘기했잖아? 무슨 얘기 했냐 하면, 나이가 들면 그 선배가 그 얘기를 한 거야, 나중에 정년퇴직을 하고 나면 사회 시선에서 좀 더 자유로워질 때, 이런 문제에 좀 더 깊이 들어가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마다하지 않고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준비는 항상 마음에 하고 있어요. 개선해야 할 뭔가가 있을 때는 헌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100% 내가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는 직장 내 차별적 제도 유무보다 더 큰 틀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있었다. 가족수당이나 유족연금 등 성소수자에게 차별적인 제도들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 제도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며 그것이 바로 동반자법 더 나아가 동성결혼 합법화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너무나도 맞는 말이었다. 국가에서 개인의 ‘사랑’을 법률상 계약으로 두고 이를 이성 간의 사랑만 계약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며 혼인신고가 가능하도록 차별적으로 규정해 놓은 상황에서 직장 조직 하나의 변화만으로 근본적인 해결은 어려울 것이다. 똑 같이 노동자로서 치열하게 살아온 성소수자가 사후에 사랑하는 사람의 유족연금마저 거부된다면 얼마나 가슴 아프고 뼈에 사무치는 차별적 상황이 되겠는가. 이러한 차별적인 세상에 맞서 그는 또다시 투쟁을 준비하려 한다. 정년퇴직 후 동반자법의 입법을 위하여 헌신하려는 그의 모습에서 후배성소수자에 대한 사랑과 성소수자로서 받아온 차별의 세월에서 한 서린 응어리를 느낄 수 있었다.

6. 가슴절제수술

6년 만에 만난 그에게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다. 우리는 그 변화에 대하여 물어보았다.

“평생의 수치였어요. 드러나는 징후가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전까지는 돈도 없고, 어디서 마땅히 할 데도 몰랐어요. 이걸 하자고 마음을 먹으니까, 마음이 너무 급한 거야. 이게 2012년 10월이에요. 그래서 만반의 준비를 했지. 이걸 해야 되겠다. 강남의 모 성형 병원을 알아봤어. 그런데 잘 할 거 같지 않은 거야. 강남의 다른 성형외과를 가니까 상의를 했지. 자기네는 문제가 없다. 얼마나 걸리냐? 한 열흘 걸린다. 그래서 주말 앞뒤를 해서 연가를 내가자고, 집에는 나 교육 간다 얘기를 하고. 했죠. 그래서 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대는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가슴 절제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했는데 원통한 게, 이걸 어렸을 때 했으면, 빨리했으면 어땠을까? 너무 안타까운 게, 너무 가난했으니까 그 뒤로 너무 정신없이 지냈으니까. 마음엔 있는데 미룬 거예요. 2012년 10월에 단행했지. 수술하고 나니까 미리 안 한 게 천추의 한이 되는 거예요. 그 뒤의 삶이 좀 더 업그레이드됐죠. 삶의 질이. 남들은 모르지만, 전 엄청나게 좋으니까.”

그의 ‘눈에 보이는 변화’에 대하여 직장 동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궁금했다.

“변화를 알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무슨 상관이나고! 물어보지도 않지. 개인적인 영역인데. 그런가 보다 해야지.”

언제나 당당한 그였고 수십여 년의 긴 세월 함께한 동료들이었기에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 것 같았다.

우리는 외국의 사례에 주목해 보았다. 천여만 원이 넘는 비용을 비급여로 오로지 개인이 부담하여야 했던 그였다. 그러나 해외에서는 회사 보험이 적용되거나 노조에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할 경우 노조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우리나라의 경우 ‘문재인 케어’라고 하여 건강보험체계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용부분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고 있다. 문제는 ‘미용’ 부분이라고 하는 형식적인 타이틀 안에 성정체성을 찾아가는 성소수자들에게는 삶과 생존의 문제가 내포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미용 혹은 성형이라고 하는 형식적인 구분이 아닌 실체적인 구분으로써 삶과 생존의 문제가 될 수 있는 성소수자의 수술 문제에 대하여 깊게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7. 이전의 계획들은 잘 진행되고 있는가?

6년 전 그는 사회복지 공부와 퀴어 시나리오를 쓰고 싶다는 미래계획을 이야기했었다. 그 계획의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다.

“예, 사회복지 공부도 끝냈어요. 사이버 복지학과를 나왔고 졸업을 했죠. 별거 아닌 거 같지만, 그게 직장생활을 하면서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6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는 2급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며 계속해서 발전해가고 있었다.

8. 내가 소수자가 아니었다면?

차별에 맞서고 또 자기의 온전한 삶을 살아온 그였다. 만약에 그가 일반적인 남자 그냥 보통 남자로 살았다면 어떤 점이 달랐을까요?

“그러면 약자에 대한 공감이나, 아무튼 사회 부조리에 대한 이런 것들에 전혀 관심 없

이 살지 않았을까? 이게 이러기 때문에 취약계층에 대해 더 생각하게 되고 관심을 되게 많이 가지게 돼요. 확실히. 인권의식이란 것도 내가 이러기 때문에 더 많이 갖게 돼요. 내가 일반 사람이었다면, 전혀 관심 없이 나 사는 것이 급급해서, 그냥 우리 동료들이 사는 것처럼 살 것 같아요”

노동자의 인권, 성소수자의 인권, 장애인의 인권 등 우리는 각자의 상황에서 각자의 문제를 가지고 각자의 인권을 주장하며 때로는 연대하고 서로의 아픔을 공유한다. 타인의 아픔을 공유한다는 것은 그들의 상황을 알아가고 그 아픔을 함께 느끼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할 것이다. 애초에 결핍과 핍박이 없는 상태에서 차별을 당하는 타인을 이해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성소수자이다. 우리는 그 누구보다 핍박받는 존재이며 그 누구보다 차별당하는 존재이다. 노동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성소수자들은 더 큰 고통 속에 있다. 그러나 성소수자로서 받게 되는 고립감과 차별 덕에 이타심을 가질 수 있음에 감사해 하는 그였다.

9. 글을 마치며

2011년도에 만났던 그는 개인의 삶 속에서 홀로 외로운 투쟁을 굳건히 이어나가며 누구보다 강한 정신력으로 차별에 맞서는 강인한 사람이었다. 6년 만에 다시 만난 그는 더 이상 ‘개인의 투쟁’ 안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는 ‘우리의 투쟁’을 준비하고 있었으며 동반자법 입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우리 성소수자들을 위한 투쟁의 길을 각오하고 있는 그는 성소수자이자 노동자이다.

공통 키워드

#커밍아웃, #젠더, #불안

정리: 모리

첫 번째 키워드

#커밍아웃 #사회적관계맺기 #거짓말스트레스

(1) 무지개색이 아닌 회색 인간, 성소수자

월요일 아침,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을 상상해보자. 당신은 직장 동료 몇 명과 함께 모여 잠깐 커피를 마시고 있다.

“주말에 뭐 했어요?”

주말동안 뭘 했는지 서로 묻기 시작한다. 시댁/처가 사람들과 만나 밥을 먹었거나, 자녀와 놀러 갔거나, 잠깐 여행을 다녀온 이야기들. 밝은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이 서로서로 이야기를 나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자리에 조용히, 긴장하며 당신에게 이야기 차례가 돌아올까 걱정하고 있다.

‘이번엔 뭐라고 말하지?’

별 일 없었다고 말하거나, 아니면 지어내서 이야기할 수도 있다. 당신이 말하지 못하는 것은 지난 주말동안 당신의 애인과 함께 주말을 보냈다는 말이다. 직장 동료들에게 그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이유는, 애인이 이성인 아닌 동성이기 때문이다.

애인이 이성이 아닌 동성이기 때문에, 당신은 가끔 직장동료들과의 커피 타임을 꺼리게 된다. 직장 동료들이 당신을 ‘조용한 사람’,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당신의 자리에 가족 사진을 놓아둘 수 없는 것도, 가끔 있는 직장 행사에 당신의 배우자를 데려가지 못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말했을 때 일어날 일들이 두렵기 때문이다.

“[소리]업무 환경 같은 경우에 바탕화면에 잘 생긴 남자를 띄워놓는다든지, 직장 내에 이성애자 남성들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 얼굴 사진으로 해놓거나, 연예인 사진 보는 데도 거리낌 없이 보거나 이러는데, 나는 좋아하는 남자를 배경화면에 해 놓을 수도 없고, 그런 게 너무 싫은 거예요. 핸드폰 배경화면도 굳이 업무, 회사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배경화면도 못 해놓고, 프로필도. 그런 게 너무 싫죠.”

“[소리]다들 담배 피우면서 어제 와이프 어쩌고 얘기를 하면 나는 쭈그리고 있어야 되고, 약간 좀 그런 건 있었죠. 그래서 정을 더 못 붙였던 것 같아요. 일도 안 맞는데 사람도 정 붙이기 힘들니까 버티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초희]저도 회사에서 혹시나 민증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것 때문에 항상 민증 지니고 다니거든요. 그게, 아웃팅이 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는. 최악의 상황에서는 또 직장을 구해야 하는, 그런 암울한 상태를 맛봐야하기 때문에.”

“[이경(하나 애인)]그래서 더 귀찮은 상황들이 더 많이 만들어지잖아요. 이번에 공항 갔을 때 과장님이 같은 시간에 출국하셔가지고. [하나] 출국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선글라스에 막. [이경]선글라스, 마스크, 모자 쓰고 숨어있었어요. 왜냐하면 애인하고 같이 간다고 떠벌린 거야. 차라리 혼자 간다고 하지, 친구랑 간다고 하거나. 근데 내가 옆에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하나]떨어져 있으라고, 이제부터 여보라고 하지 말고, 하나라고 부르지도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이경]그래서 얘기했어, 만나면 나는 계속 앞으로 걸어가는 걸로. [하나]피곤한 삶입니다. 근데 이성애자였으면 안 그랬겠지. [이경]만나면 커피 한 잔 했겠죠. [하나]인사시키고. 그런 건 아쉬운 것 같애.”

(2) 사회적 관계 맺기로서의 커밍아웃

커밍아웃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어느 날 기자회견을 하고 뉴스에 났다가 점점 잊혀져가는 한 순간의 사건이 아니다.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성소수자들에게 커밍아웃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지에 대한 평생의 고민이다.

일터에서도 인간관계는 중요하다. 오늘날 노동자들은 일터에서 아주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직장 동료들은 자연스럽게 친구가 된다. 친구에 대해 알고 싶어지고, 회사 밖에선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지는 건 당연하다. 성소수자가 아닌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는 누구도 그게 사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동성애자가 자신의 연인에 대해 이야기하면 “너무 사적인 이야기 하는 거 아니야?”라는 질문을 받게 된다. 심지어는 불필요한 이야기 취급을 받거나, 괜히 문제를 일으키려는 사람으로 비난받기도 한다.

“동성애자라고해서 꼭 동네방네 떠돌고 다녀야 하는 건 아니잖아?”

규범은 누군가 그 규범에서 벗어날 때만 드러난다. 이런 시각은 이성애중심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이다. 성소수자로서의 정체성은 출근할 때 집에 놔두고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건 성소수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마찬가지다. 하지만 성소수자의 문제는 유독 사적인 문제로 취급 받는다. 누군가의 성적지향은 단순히 연애나 섹스의 문제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것이다. 성소수자로서 어렸을 때부터 고민해 온 역사, 어쩌면 트라우마로 남아있을 벽장 속의 삶과 경험, 가족과 애인, 친구 등 친밀한 사람들과 맺고 있는 관계, 성소수자로서 그리고 있는 미래의 삶은 그 사람과 동떨어져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직장 동료들이 질문을 할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못한 채 모호하게 답해야하다보면 어느순간 ‘회색 인간’이 되어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없게 된다. 자신이 실제로는 얼마나 재미있는 사람인지 보여주지 못하고, 무엇에 흥미가 있는지, 어떤 일들을 좋아하는지도 말하기 꺼려진다. 하루 24시간의 3분의 1 이상의 시간을 보내는 일터에서, 집단의 일원이 되지 못하고 겉도는 사람으로 그 시간을 보내는 것은 큰 스트레스다.

“[여정]그러니까 누군가를 만나서 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계속 감추고 있어야 하는데 안 그래도 된다 라는 게 일단 대화의 폭이 굉장히 넓어져. 대학교 때 친구들은 나에게 다 아니까 만나서 자기들 애들 얘기 남편 얘기 할 때 나는 내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중략) 길게 오래 보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면 커밍아웃은 없고, 이 사람과는 오래 잘 지내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죠. 오래 갈 사람이 나의 반 이상을 모르고는 관계가 안 되잖아.”

“[하나]좋은 점 있죠. 예를 들면 이번에 베트남 여행 갔다 와서 사람들이 핸드폰 사진 좀 보여 달라고 막, 아 없어요, 전 다 디지털카메라로 찍어서. 철벽방어. 근데 개를 딱 만난 거야, 엘리베이터에서. 야, 누나가 베트남 갔다 왔어, 이리 와봐. 콧김을 알아요. 봤어. [이경]날 또 만났어요. [하나]또 술 먹고, 개가 데려다 준다고 해가지고. 막 보여주고. 그런 자유 있잖아요. 그런 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개는 내가 어떻게 해서 아웃팅을 당하거나 이랬을 때, 아니면 어쨌든 나쁜 일이 생겼을 때 그런 것 때문에, 그럼 날 정말 이해해 줄 것 같은 동생이기 때문에. [이경]아 편하겠대. [하나]

그래. 마음 편하고 좋아요. [슈미]그럼 뭔가 일상을 공유하는? 원래 직장동료들끼리 주말 일상 이런 거 공유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커밍아웃을 한 사람들에게겐 조금 더 편하게? [하나]그쵸. 그런 건 편한 것 같애. 거짓말을 안 하게 되니까.”

“[소리]농담 같은 것도, ‘어제 남자를 만났는데’ 이런 얘기도 제대로 못 하고. 성소수자들이 할 수 있는 농담들이 많잖아요. 그런 걸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부럽더라고요.”

“[소리]이게 알려지는 게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솔직히 알려져도 별 상관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만약에 보수적인 사람이라든가 반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유기적인 관계가 필요하잖아요? 그게 어색해질까 봐. 그러면 나도 힘들고 그 사람도 힘들고. 회사 전체적인 분위기도 안 좋아질 것 같고. 그런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물론 말하면 내가 편해지긴 하지만 업무가 불편해지면 나도 손해고.”

“[하나]예를 들어 내가 남자친구 애길 못한다든지 아님 내 사생활을 오픈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감추는 게 많기 때문에 답답하고 이런 게 있는데 (후략)”

“[여정]일터에서는 그런 사적인 영역들에 대해서는 말하는 걸 꺼리니까 되게 뭐 유명한 드라마에, 드라마에 어떤 부분을 얘기를 하거나 뭐 그런 게 있대 이런 화제가 올라가게 되면 얘기들을 할까 그렇지 않고 일상적으로 업무상에서 그런 것들이 발화 되지를 않고 테스트 해 볼만한 게 없는 거지.”

(3) “거짓말 스트레스” - 커밍아웃 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차별이다

자신의 삶을 숨겨야하는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실제로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스웨덴 국립 직장 생활 연구소(Swedish National Institute for Working Life)의 연구에 따르면 일터에서 커밍아웃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30% 더 많이 신체적/정신적 건강 문제를 겪는다고 한다

“[초희]’곧 나한테도 들이닥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그런 불안감과 초조함이 결국에는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인 거 같아요.”

“[초희]’재네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혹시 그런거 아냐?’, ‘아, 진짜 그럴 수 있겠다’ 그렇게 한 번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면 행동 하나하나가 진짜 완전 조심스러워지거든요.”

물론 모두가 의무적으로 커밍아웃을 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성소수자 자신의 의지로 누구에게 커밍아웃할지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고용주와 일터의 환경, 그리고 동료들의 인식이 성소수자 동료의 커밍아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로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터뷰 대상자들은 공통적으로 마초적이고 여성혐오적인 사람들에게겐 커밍아웃을 하지 않으려 했다.

“[하나]은연중에 이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여성 비하적인 이야기거나 아니면 이제 아직 인권에 대해서 잘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애길 하면 포비아적으로 이야기하진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여자에 대해서 나한테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모습들이 보일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것도 좀 불편할 것 같고. 그리고 굳이 내가 그런 걸 커밍아웃을 하고 싶은 사람도 없고, 진짜 딱 여섯 시까지만 일하고 퇴근하고 완전 다 이래버리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게 편하니까. 별로 친해지고 싶지 않아요. [이경] 이성애자였어도 똑같은 것 같애? [하나]이성애자였으면 지금이랑 비슷하긴 하겠지만 사진 같은 건 보여줄 수 있었겠지. 근데 훨씬 편했겠지.”

“[북극여우]사수는 아무래도 기독교쪽 분이셨으니까, 막 뭐 아무래도 남녀의 역할은 정해져 있고 자연의 섭리를 그런식으로 (중략) 엄청 걱정되었어요. 엄청 기독교인이어서. 모든 기독교인이 그런진 않는데. 근데 그 분이 평소에 게이혐오발언이나 그런걸 많이 하셔가지고”

“[초희]글쎄요. 커밍은 안했지만, 구로에 다닐 때 그 사장님한테는 커밍을 했으면 최악이지 않았을까. 그분은 일단 기본적으로 여성혐오가 강한 분이였기 때문에. 여성직원들이 앞에 있어도 여성 혐오로 발언을 많이 했어요. 뭐 이래서 여자가 안된다. 여자가 운전을 이래서 하면 안된다. 여자가 어디 사람많은데 떠돌고 지랄이나. 좀 여직원들이 앞에 있으면 좀 그런 말을 가려서 하면 되는데 (중략) 그런거 보면서 아 저 사람한테 커밍했다가는 내 인생 조지겠구나.”

“[여정]그런데 개도 약간 포비아 인 것 같아. 그 전에 다른 거래처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개 이상해. 호모 같아'라고 이야기 했었거든. 애는 그 부분에서 안될 수 있겠구나”

“[여정]사장이 대구 남자야, 대구 남자 중에 되게 좀 별로 안 좋게 표현하는 대구 남자 있잖아요, 전형적인. 여자가로 시작하는 막 그런, 여자 무시하는 이런 스타일. 말 많고 뒷담화 하는 거 좋아하고. 괜히 그 부분 꼬투리 잡히면 정말 피곤 할 테니까 사장한테는 안 걸리게 조심하라고 했지.”

커밍아웃 하기 어려운 일터의 특징

1. 고용이 불안하고 언제든지 해고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일터
2. 남성중심적이고 마초적인 조직, 소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이 일상적으로 오가는 일터
3. 규모가 작은 조직, 무리를 이루고 경쟁하는 일터
4. 위계가 심하고 구성원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일터
5. 노동자가 자신의 권리를 알고 있지 못하거나 권리가 없는 일터

두 번째 키워드

#젠더 #두_가지_성별로_나뉘어진_일터 #성별이분법

(1) 성별 이분법 -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성별 이분법’이란 모든 사람이 남성과 여성으로 나뉘어져 있고, 남성과 여성에게는 큰 차이가 있다는 인식이다.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말에서 이런 인식이 잘 드러난다. 성별 이분법은 남성과 여성에게 서로 다른 이미지를 부여한다. ‘남성적이다’와 ‘여성적이다’라는 말은 서로 반대 의미로 쓰인다. ‘남성적’이라는 말은 전투적이고, 신체 능력이 좋고, 이성적이고, 집 밖에서 활동하며 돈을 버는 사람들에게 쓰이는 반면, ‘여성적’이라는 말은 친절하고, 자애롭고, 감정적이고, 소심하고, 집 안에 머물며 집안일을 하고 돈을 벌지 않는 사람들에게 쓰인다. 이런 성별 이분법은 성역할 고정관념을 만들어낸다. 남성이 돈을 잘 벌지 못하거나, 여성이 집안일을 하지 않으면 ‘남자답지 못하다’ 혹은 ‘여자답지 못하다’라는 비난을 받는다. 성별 이분법과 성역할 고정관념은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

일터에서 성별 이분법은 더욱 강해진다. “남자가 이 정도는 참아야지!”나 “여자가 뭘 알겠어” 같은 말이 아무렇지 않게 오가는 것은 물론, ‘남성의 일’과 ‘여성의 일’이 근본적으로 나뉘어져 있기도 하다. 남성에게 주어지는 일은 어렵고 도전적인 일로 평가받는 반면, 여성에게 주어지는 일은 하찮고 쉬운 일로 평가된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일하기를 요구받기도 한다.

‘남성적이다’	‘여성적이다’
전투적	친절함
경쟁적	쉽게 포기함
신체 능력이 좋음	신체능력이 떨어짐
이성적	감정적
집 밖(공적 영역)에서 활동함	집 안(사적 영역)에 머무름
일을 하며 돈을 벌	집안일(요리, 보육, 청소)을 하며 돈을 벌지 않음
독립적	의존적
성적으로 왕성하고 통제가 어려움	성적으로 조신하고 통제해야 함
능동적이고 적극적	수동적이고 소극적
마음이 넓음	소심함
엄하고 규율을 중요시함	자애롭고 모성애가 강함

성별 이분법은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학습된다. 태어나면서부터 남자 아이에겐 파란색 내복이 입혀지고, 여자 아이에겐 분홍색 내복을 입혀진다. 남자아이는 우주비행사, 소방관, 축구선수 장난감을 선물받지만, 여자아이는 직업이 없어보이는 예쁜 바비 인형을 선물받는다. 성별 이분법은 TV와 미디어, 사회로부터 자연스럽게 학습되어 우리에게 익숙하고 편한 것이 된다.

하지만 모두가 이러한 성별 이분법과 성역할 고정관념을 편하게 느끼는 것은 아니다. 같은 직원이어도 여성만 회의 시간에 커피를 타고 설거지를 한다거나, 불편한 치마를 꼭 입도록 강요받을 때 많은 여성들은 불편함을 느낀다. 또한 여성들은 결혼 후에 직장을 그만두고 가사노동과 육아노동을 모두 부담해야한다는 압박을 받기도 한다. 남성들도 불편함을 느끼기는 마찬가지다. 군대와 다를 바 없는 조직 문화, ‘남자가 이것도 못 참아?’라는 말로 정당화되는 노동 착취와 일터 괴롭힘은 모두가 불편해하지만 너무 익숙해서 문제라고 인식하기 쉽지 않은 것들이다.

그렇다면 남성과 여성, 둘 중 어느 곳에도 딱 들어맞지 않는 성소수자들은 어떨까? 성소수자들은 구직 과정에서부터 퇴사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불편함을 겪는다.

1. 성별 표현

많은 성소수자들은 정형화된 남성적/여성적 옷차림과 외모표현, 손동작과 걸음걸이 등 행동 방식에 들어맞지 않는다.

“[초희]이유요? 이유는 이제, ‘저는 여성으로 취업을 하길 원합니다’ 하면 ‘하지만 주민번호에서는 남자로 되어있기 때문에, 법적 남성이라서 안됩니다’ 끝이죠.”

“[북극여우]OT때 술자리에서 옆에있는 선배가 남자답게 행동해라, 목소리도 여자같다고 그렇다고 저를 혼내고, 저보고 막 남자친구 있냐고 그런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소리]마르고 호리호리하고 손짓발짓이 부드럽고 유하니까. 진짜 쓸 데 없는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일이나 잘 하겠냐’ 이러는 거예요. 팀장님이 뭘데 남의 밤일을 걱정하시냐고 막.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가 얼마나 잠자리에서, 밤에 얼마나 대단한데. 팀장님이 보신 것도 아니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냐고, 그런 질문 하지 말고 진짜 기분 나쁘다고 역정을 냈거든요.”

2. 화장실/휴게실과 유니폼

트랜스젠더 노동자들에게(그리고 성별 표현이 모호한 다른 모든 성소수자들에게도) 성별이분법적인 화장실과 휴게실, 기숙사, 유니폼, 호칭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다가온다.

“[북극여우] 화장실 문제 같은 것도 좀 그랬어요. 당시 제가 머리가 짧았는데, 사람들이 저보면 재는 남자야 여자야 물어보는 상황이었어서 계속 설명해야하는 것도 힘들었고요. 그리고 당시에 기숙사 생활 했었거든요, 기숙사랑 화장실에서 쫓겨난 경험이 많아요. (중략) 그런 환경에서 지내는 게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중략) 기숙사 때문에 거의 대학원 포기할까 생각했었거든요. 남자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걸 상상하지 못했었는데, 다행히 룸메이트를 잘 만나서 괜찮았지만.. (중략) 기숙사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자꾸 걸리게 되어가지고, 몇 십번씩 쫓겨났었거든요. (모리: 몇십번이나요? 얼굴도 알지 않아요?) 관리인 사람들도 바뀌어서 그런거 같은데, 거기 들어가서 이거 제 주민등록증이고 여기 사는거 맞아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저를 뭐 신기하다고 손을 잡아보더라고요. 여자손같은데 이건 남자라고 써있고 이상하네 이러면서. 계속 그렇게 신기하게 쳐다보다가 그냥 그런가 보다 잘 받아줬어요.”

“[임선생]공무원 사이에서도 나이가 많은 사람은 ‘~여사’, 혹은 ‘~씨’라고 자주 불러. 그런데 나한테는 절대 그렇게 안 부르지. ‘~씨’ 부르거나, ‘임군’이라고 하거나, 그렇게 하지. 이것은 평생을 둔 투쟁이에요. 사회생활을 하려면 편하기 위해서 모든 부분을 타협을 해요. 타협을 하면서 자기를 쓰러트려야 그 조직에서 살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지. 나는 깨져도, 그 깨지는 기간이 2, 3년이 가더라도,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냥 가요. 2~3년은 짧은 거야.”

“[임선생]내가 집배원을 할 때는 10년 동안 탈의실을 아예 안 갔지. 출근을 하면, 공용 칸 옆에 잠바를 걸어. 옷을 갈아입기 싫으니까, 작업복을 입고 오지. 와서 잠바만 벗어놓고 옆에 걸어놓고 일을 하다가, 일을 하다 보니 옷을 갈아입어야 하잖아. 계속해

서 아침이 출근이 7시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없을 때 살짝 가서 빨리 옷을 갈아입고 빨리 나오자. 나는 남들 앞에서 옷을 갈아입는 게 부끄럽다고. 내가 거기 들어가는 것도 부끄럽다고. (중략) 개인의 삶에 있어서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초희]아무래도 쯤 저희가 휴식시간에는 그 침실이 있어요. (재운 : 휴게실?) 네네 자는 공간이. 근데 아무래도 저희를 여성으로 인식을 하고 같은 공간에서 좀 부끄럼 없이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본인들이 나중에 알았을 때 수치감이 너무 높아져서 되려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긴 하지만 (후략)”

“[서현(초희의 애인)]한분은 여자로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행동이랑 머리가 스타일 같은 것도 다 여자인데, 얼굴쪽 외모는 남자라서 떨어지고, 한 분은 (중략) 커밍아웃을 한 거죠. 안 해도 되는데. 그래가지고. 근데 외모적으로 좀 티가 났나봐요. 그래서 탈의실에 남자로 들어간다 했는데 '탈의실이 좀 문제겠네요'하고 떨어졌어요. (중략) 그니까, 회사에서는 그걸 보는 거죠. 이 사람이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나 안 일으킬 수 있나. 그 사람이 남자로 들어가는데도 여자로 보이거나 여자로 들어가는데 남자로 보이면, 아무래도 그 회사 안에 무리에서 끼는데 문제가 많겠죠.”

“[이경]혼자 여자들 다 치마에 리본 댔는데 혼자 바지에 넥타이 매고 있을 때 스스로 뭔가 좀 오히려 더 발가벗겨진 느낌이 들지는 않았어요? [여정]나는 그거를 내 업무상의 특성으로 자가 해석 했었어. [이경]아 그렇구나. [여정]다른 여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경리나 회계나 사무를 보던 서포트직이었고 나는 내 담당파트가 있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거나 이랬었기 때문에 혼자 전문직 프라이드 있었던 거 같아. (중략) [학인]여정한테 치마 입으라고 그랬으면 다닐 수 있어요? [여정]나는 잘 설득해서 바지 입을 거야. [이경]여정은 그냥 그런 걸 되게 잘 맞추는 스타일인 것 같애. 안정성, 그니까 빠르게 균형점을 찾아가는 [여정]생존 본능이 강해.”

3. 직종/직무의 성별 구분

어떤 직업은 남자의 일로만, 어떤 직업은 여자의 일로만 여겨진다. 또 같은 직업을 갖고 있더라도, 여성과 남성에게 다른 역할이 맡겨지기도 한다. 성별을 넘나드는 성소수자 노동자들은 특히 이런 구분에 할 말이 많다.

“[초희]그때는 제가 트랜지션하기 전이라서 (중략) 그때는 5톤 차량 몰고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막 운전하다가 같은 남성분들 있으면 “저 예전에 저 차 몰아봤어요. 별거 아니던데요”이렇게 얘기하면 “니가 그 차를 왜 몰아?” 그런 말을 해요. “예전에 부산에 있을 때 영업하는 사람 모자라서 제가 했어요.” 하면 “와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물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가 여성으로 그 일을 하고 다녔

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하나]근데 나한테 여자라고 해서 무언가를, 나도 그런 게 있잖아. 나도 여자니까 이거 못하겠어요를 안 하고 더 하려고 하고, 무거운 거 더 들려고 하고, 그런 게 있었던 거야. 굳이 안 그래도 되는데. 나의 존재의 필요성을 내가 입증해야 하는 느낌인 거지.”

“[이경]여자여서는 더 세게 무시당한다고 생각했어? [하나]그치 그런 건 있지. 예를 들어 너 이걸 할 줄 알아요? 이걸 알아? 대학은 나왔어요? 나한테 자꾸 대학을 나왔냐는 거야. 이쪽 분야에 대한 걸 나왔네. 근데 안 나왔잖아. [이경]그치 뭔가 남자가 아니니까 학력이라도 쌓고 들어왔나. [하나]남자 직원들한테는 안 물어보거든. 근데 나한테는 물어보는 거야. 대학 안 나왔는데요, 고등학교라도 이런 전공, 안 나왔는데, 저 그냥 딴 일 하다 왔어요. 그냥 그래. 그럼 웬지 조금 맡겨도 되나 이런 식의 눈빛을 보내는 거야. 그럼 못 팔잖아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냥 네 네. 근데 사실은 한 번도 내가 대학 나왔어요, 라고 한 적은 없어. 그냥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한테는 짜증이 좀 나더라고, 그래서 그냥 한 번은 대학 안 나왔어요 라고 애길 했지. 저는 관련된 일 해본 적도 없고 지금 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안 팔면 되지. 뭔가 검증하고 싶은가봐. 여자로서 뭔가 더 배웠거나 자동차에 대해서 뭔가 더 할 줄 알거나, 이런 걸 검증하고 싶은 것 같아.”

“[하나(자동차 정비사)]나는 사실 샤워실이 있다고 해도 별로 안 했을 거 같아. 왜냐하면 집 앞에, 가까웠어요 거기가. 그래서 별로. 근데 F사에 있을 때는 (여자)샤워실이 없었거든요. 남자는 있었는데 나보고 하래. 거기서 문 잠그고 하라는 거야. 근데 나는 너무 불편하지 나 들어간다고 탈의실이랑 붙어있는데 탈의실까지 다 잠궜가지고 내가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한 다음에 샤워한다는 자체가 나는 부담스럽잖아. 한 번도 안했어요. 근데 자전거 타고 출퇴근할 때는 너무 땀이 비오듯이 왔는데, 옷 입고 일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었어. 그거 말고는, 근데 이런 건 있어. 남자들만 있는 곳에서 여자가 들어갔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나 만들어야 되는 그런 것들이 나에게서는 되게 부담스러운 거야. 그래서 그것들로 인해서 나한테 더 많은 것을 착취할 것 같은 불안감, 예를 들어 원래는 샤워실이 있잖아 그런데 널 위해서 하나 더 만들어줘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당연한 거잖아 그거는. 근데 그걸 요구하기도 되게 싫고. 그리고 그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거 자체가 나한테는 되게 부담스러운 거야.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웬만하면 물어가고 싶은 거지.”

일의 성별 구분은 단순히 일을 구분해서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어떤 성별의 일은 중요한 일로, 어떤 성별의 일은 하찮은 일로 평가 받는다. 여성과 남성의 성별임금격차는 36.7%에 달한다. 남성이 100만원을 받는 동안 여성은 63만원 밖에 받지 못하는 것이다.

“[초희]물류 같은 경우는 여성은 좀 작은 물품 옮기거나 하지만 남성들은 큰 물품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급이 1,000원 차이가 나요. 여자는 6790원 받을 때, 남자는 뭐 7,000원 8,000원씩 받으니까. (중략) (모리: 힘든 일이어서 남성에게 더 많이 준다고 하지만, 여성들한테 그 힘든 일을 주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얘기가 좀 많이 나왔어요. 특히 트랜스젠더 단톡방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해요. 왜냐하면 저는 두 가지 성별을 다 겪어 봤잖아요? 남성 역할이고 여성 역할이고. (중략) 여자도 힘 셀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제가 또 성소수자이고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생각 할 수도 있겠지만. 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여자라서 시급 덜 받고, 여자라서 좀 쉬운 일을 무조건 받고, 확실히 여성이 좀 쉬운 일을 하긴 해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동시간대에 비슷한 일은 하는데, 왜 남성이란 이유만으로 돈을 좀 더 받고,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덜 받느냐? 하는 생각이 들죠.”

여성은 성별임금격차 뿐 아니라 유리천장으로도 차별 받는다. 어느 직급 이상으로는 올라가기 힘든 여성들은 결혼을 해서 남성에게 의존하기를 요구받는다. 하지만 그럴 수조차 없는 여성 성소수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세 번째 키워드

#불안 #빈곤 #지지기반_없음

1. 가부장제의 바깥으로 밀려난 사람들, 보이지 않는 미래

법적으로 보호 받는 결혼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성소수자들의 노동권과도 연관되어 있었다. 특히 여성 동성애자들은 노후를 “공포”라고 말할 정도로 불안해하고 있었다.

“[여정]나 노화 공포 있어. 늙는 게 무섭다는거지. 일 할 수 없을까봐. 일 할 수 없다는 건 벌이할 수 없다는 거고 벌이할 수 없다는 거는 되게 슬픈, 슬프잖아. [이경]누군가가 자신을 책임져 줄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여정]응 그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어. [학인]국가가 책임져주면? [여정]국가가 그나마 조금 할라면 내가 65세까지 살아야하는데, 그 때까지 버텨 줘야 하는데 그 버티는 삶이 내가 너무 싫을 것 같아. 그니까 전

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박스 좁는 할머니들 가없게 생각하거나 그걸 비하하지는 않는데 내가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은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래야 될 것 같으면 죽어버릴 것 같은 거지. 그래서 항상 자살의 가능성을 놓아두고 있어. 맨날 어떡하면 편하게 죽을 수 있을까 그 고민을 되게 많이 한 적도 있었는데. [학인]그러면 약간 좀, 전망을 어렵게 보는 거예요? [여정]안간힘을 써서 버티자로 보고 있는거야. 할 수 있는 데까지 버티자.”

“[이경]지금 이제 40대 초반이잖아요. 그러면 한 5년 후에는 나는 뭐하고 있을까, 나이 50에는 뭐하고 있을까. [여정]그건 진짜 무서울 거 같아. [이경]무서울 것 같아요? [여정]그냥 버틸거야 나는 죽을 때까지 버틸거야. 그래서 나는 최선을 다해서 버틴다는 거 밖에 없어 지금. 어딜 갈거야, 뭘 할 수 있겠어 장사를 할 수 있는 저기도 안 되고.”

“[소리]사실 배우자 없으면 진짜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사실 막연하게 그 걱정은 하고 있어요. 노후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정말 돈이 없으면 자살이라도 해서 죽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하나]예전에는 독거노인이나 빈민촌, 쪽방촌이나 이런 거에 관심 되게 많았는데, 그 이유가 항상 가지고 있는 불안이나 두려움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 내가 거기 갈 수 있다는, 내가 저들처럼 살 수 있다는 두려움이 하나가 있었어. 언젠간 나는 수입이 끊길 수도 있고, 언젠간 내가 하루하루가 힘든 삶이 될 수 있고, 내 옆에 아무도 없을 거고, 이런 꼬리에 꼬리를 물고 되게 무서웠고, 그래서 항상 불안했던 것 같아. 변리사 사무소에서 일을 하면서도 불안하고, 그러면서 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 몸으로 하는 일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판매업, 계속 서있어야 돼요. 10시간 서서 계속 판매를 해야 되고. 아니면 하우스키핑, 아니면 아무튼 하는 건 다 몸으로 하는 일이잖아요. 거의 내가 안 해본 것 없지 진짜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그런 일을 하면서도 두려운 게 내가 평생 이런 일을 하고 살면 어떡하지, 내가 평생 몸을 이렇게 쓰면 어떡하지, 내가 좀 편하게 살고 싶은데, 웬지 그러지는 모습이 나중에 내가 되게 허름하게 몸노동을 하면서 살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되게 불안하고 힘들었던 말야. 불안하고 힘들었는데, 근데 변리사 사무실에 다닐 때는 그래도 전문직이고, 깔끔한 옷을 입고 좋은 사무실에 앉아서 일을 했던 말이지. 그러면서도 그런 불안감은 항상 갖고 있었어. 그런데 이제 항상 아 여긴 더 이상은, 이렇게 내가 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왜냐하면 레즈비언으로서 혼자 산다는 건 불행, 독거, 아니면 이런 게 항상 있었던 말이야.”

기댈 곳 없이 혼자 가난하게 늙어가는 것. 성소수자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을 그렇게 그리고 있었다.

2. 낙인 찍힌 사람들의 노동, 당연한 불안

트랜스젠더 노동자와 HIV/AIDS 감염인 노동자는 다른 성소수자 노동자들보다 회사에서의 아웃팅에 더 큰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다. 극심한 스트레스 자체인 구직과정을 다시 거쳐야 한다는 불안감, 주홍글씨가 붙어 이 업계 자체에 발을 붙이지 못할 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커밍아웃은 더욱 하기 어려운 것이 되었다.

“[초희]회사에서 혹시나 주민등록증 떨어트리면 어떡하지?’ 어. 그것 때문에 항상 주민등록증 지니고 다니거든요. 그게 아웃팅이 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는. 최악의 상황에서는 또 직장을 구해야 하는, 그런 암울한 상태를 맛봐야하기 때문에.”

“[소리]사실 동성애자인 게 알려질까봐 두려운 건 사실 없거든요. 크게 없는데, 알려지더라도, 아 씨 벌어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은데 HIV는 약간 다른 의미일 것 같아요. 만약 회사에 만에 하나 알려지게 된다면 진짜 일을 그만두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생각이 많이 들을 것 같아요. 워낙 좁아서, 업계가. 업계가 얼마나 좁으면 첫 회사에 다니던 팀장이 우리 회사로 왔겠냐고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지금 다니는 회사에 왔는데 심지어 전에 자주 찾아오던 다른 회사 이사님도 지금 회사에 오시더라고요. 지금 회사 대표님이랑 친하시고. 그러니까 정말 업계 되게 좁구나, 싶더라고요.”

3. 약한 지지기반

‘외롭게 죽는 것’에 대한 공포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사회의 차별과 혐오는 성소수자의 삶을 고립시키고 있었다. 성소수자들은 가족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동성애자임을, 트랜스젠더임을, HIV/에이즈 감염인임을 가족에겐 말할 수 없고, 말해도 이해받지 못하고, 성소수자로서의 삶을 경제적으론, 심리적으로든 응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초희]솔직히 가족 생각이 제일 많이 나요. 제가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가족한테 특히 엄마랑 되게 친하니까, 엄마한테 찡찡대는 거였는데. 엄마한테 찡찡대지도 못하고. (중략) 사실상 가족이 없어요. 유일하게 가족이 지금 애인뿐인데, 한편으로는 애인마저 없으면 난 어떻게 살지. 그러면 그럴 때는, 진짜 자살밖에 생각이 없더라고요. 왜냐면 세상에 말할 수 있는 데나 믿을만한 사람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고 세상 나 혼자 살 거면 뭐 하러 살아요. 그냥 죽고 마는 게 낫지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소리]부모님이 갑자기 전화로 그걸 물어보니까, 너 혹시 약 먹고 있는 게 에이즈 때문이냐고 하니까. 갑자기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눈 앞이 새하얘지면서, 아니라고, 아니라고, 아니라고, 무슨 소리를 하냐고, 엄마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냐고, 나 그런 거 아니라고. 그런 거 아니라고. 아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내 자신도 싫고 다 싫고 때려부수고 싶고 화도 나고 불안도 하고 온갖 감정이 교차를 하더라고요.”

애인도 마찬가지였다. ‘취직’만한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여성들에게 여성 두 명이 연인 관계를 오래도록 지속하는 건 노후에 대한 불안을 감당해야만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했다. 그래서 ‘가족’을 이루는 일은 더 요원한 일이 되곤 했다.

“[이경] 애인하고 같이 살 때에 가족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여정]그 때 너무 어렸을 까? 처음에도 그렇고 나중에도... 언젠가는 보내야 할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충격이 덜 했을 수도 있고. [이경]언젠가는 떠날 것이다? 시집을 갈 것이다? [여정]일단은 일반을 만난 이상... [이경]이게 남자 여자의 차이인데 여성들은 이제 시집을 가는 것이 거의 몇 안 되는 인생을 지속할 수 있는 해결책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여정]일명 취직이라고 하지 (중략) [이경]레즈비언으로 산다는 것에 있어서 어떤 것들이 보이지가 않았었나요? [여정] (침묵) 가족..? 혼자 외롭고 죽지 않는...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게 될까.. 우리는 어차피 결혼을 할 수 없을 테니까....”

성소수자 커뮤니티도 믿을만한 지지기반은 되지 못했다. 트랜스젠더 커뮤니티에는 자신의 과거를 모두 지우고 떠난 빈 자리만 남아 있을 뿐이었고,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겨우겨우 성별 정정에 성공한 이들에게 남은 건 ‘각자도생의 원칙’ 뿐이었다.

“[초희]“제가 한번 (글을) 올렸을 때 되게 문의가 많이 왔거든요. 같은 트랜스젠더 분들한테. 어디에서 일해요? 어떻게 취업했어요? 돈을 얼마 받아요? 면접 때 무슨 질문 받았어요? 등등등등. 취업 관련된 문의가 글을 한번 올리면 엄청 댓글이 많이 달릴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관심이 많고, 궁금한 것도 많은데 정작 대답해 줄 수 있거나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있더라도 안 말해줘요. 내가 왜 말해?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라는 행동이 크기 때문에. 누가 불이익을 당했을 때도 딱히 그런 글을 올려도 해답이 못 받아요. 답을 구할 곳도 없고, 말할 곳도 없고. 설사 말하더라도, 너가 트랜스젠더니까는 그렇게 되는 게 당연해라는 말을 같은 트랜스젠더끼리 해요. 이해를 받기 보다는 지적을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국가도 성소수자들에게 큰 지지기반이 되지 못하는 건 마찬가지였다. 인터뷰한 여섯 명이 경험한 삶의 문턱에서 제도나 국가의 도움을 받은 이들은 거의 없었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방조하는 것이 국가였고, 심지어 때로는 소수자에 대한 낙인을 강화하기도 했다. 군대, 까다로운 법적 성별정정 요건, 결혼으로부터의 배제 등 국가는 적극

적인 차별의 행위자일 때가 더 많았다.

“[임 선생]특히 안타까운 게, 어린 친구들한테는 조금 더 정제되고, 어른스러운 사람들이 더 멘토 같은 역할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 삶 전체는 그런 게 없어요. 평생을 내가 부딪히고 깨지고, 돌고 돌아 길을 찾는 사람이지만, 멘토라는 게 없는 사람이니깐, 지금 와서 그래요. 내 삶은 후회하지는 않지만, 만약 다른 길이 있다면, 좀 더 가치 있는 일에 몰두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빙빙 도는 시간에, 이런 아쉬움은 사실 있어요. [이경]그때는 더 그랬겠죠? 언어도 없고, 경험도 없고. [임 선생]누구한테 말할 사람도 없어요.”

‘좀 더 가치 있는 일에 몰두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았을까?’라고 묻는 임 선생의 말 속에서 혼자 외롭게 분투하는 성소수자들의 삶을 볼 수 있었다.

4. 불안정 노동, 견디기와 버티기

일자리 구하기가 모두에게 어려운 시대이지만, 성소수자임을 드러내지 않을 수 있는 일터, 좀더 정확히는 성소수자로서 차별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는 일터를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트랜스젠더, 여성, HIV/에이즈 감염인, 동성애자에게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는 많지 않다. 좁아진 선택지 안에서 겨우 찾은 일자리는 그만큼 소중한 것이 된다. 그렇기에 노동 환경이 좋지 않아도 웬만하면 참고 견딜 수 밖에 없다. 선택지가 좁을 수록 견디는 수준은 더 심해진다. 아이러니하게도 노동자를 한 명의 인간이 아닌 기계처럼 생각하는 일터일수록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게 된다. 노동권을 전혀 보장받지 못하는 일터, 소수자는 불안정 노동으로 그렇게 흘러들어간다.

“[여정]내가 말한 게 그거야 신체 기능의 노화. 피부 이런 미모의 노화가 아니라 신체 기능의 노화가 무서워. (중략) 그 때 내가 허리를 다쳐가지고 지금도 허리는 안 좋는데 처음으로 우울증 비슷하게 확 온거야 허리 아플 때. 내가 가진 건 몸통이밖에 없다고 맨날 주장하고. 몸이, 힘이 좋고 운동 기능이 좋기 때문에 내가 노가다를 뛰어서라도 먹고 산다였는데 허리가 딱 고장 나고 손목 고장 나고 나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 뭘 할라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야. 손목이 아프니까 공장에도 못 가고, 허리가 아프니까 캐셔도 못 해. 그 순간에 옛날에는 사무직 직장 잘려도 나중에 뭐 공장가서 알바를 할 수 있고, 건물 청소도 할 수 있는데 먹고는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던 게 그 조건이 나한테서 깨진 거잖아 그 능력이. 병원에 도착했는데 암담한거야. 진짜 회사에서 버티고 살아야, 월급쟁이로 살아야 하는구나.”

“[북극여우]저는 지정성별 남성이어서 군대 문제가 걸려 있잖아요? 저는 군대에 가면

아무래도 트랜지션도 늦어질 것 같고, 아무래도 남자들만 있는 환경에서 좀 힘들거 같아서. 사실 군대 면제를 받아내기 위해 시간을 좀 벌기 위해서 대학원 겸 연구실에 들어갔던게 더 커요. (중략) 제가 만약 쿼어가 아니었으면 대학원에 안 갔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공부를 엄청 잘하는 것도 아니고”

“[초희]저는 지금 최종 계획으로는요, 진짜 트랜스젠더 유일한 최초 대통령이 되는 게 꿈이에요. 진짜로. (중략) 솔직히 요즘에는 일 자체가 단순 반복직이기 때문에 좀 안 좋은 생각을 많이 하긴 해요. (재윤: 어떤 생각이요?) 자살... 을 많이 생각하긴 해요. (중략) 두 가지 생각을 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자살 생각이에요 어떻게 해서 자살을 하면 잘 죽었다고 소리 소문 없이 남들한테 피해 안 주고 죽을까. 그리고 또 다른 생각은, 내가 성형하고, 남들 앞에서 강연장에서, 내가 트랜스젠더지만 이렇게 사장으로서 큰 회사의 사장으로서 회장으로서 이렇게 성공한 과정의 일말을 설명하는, 그런 상상을 해요. 근데 이제 거의 대부분을 80%가 자살생각이고 20%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계속 데미지가 쌓이는 거죠. (중략) 많은 일이 좀 이래저래 있으니까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요. 힘들어도, 아 그래도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좀 참아보자. 또 옆에 애인이 있으니까는, 좀 참아보자 참아보자. 그렇게 사는 거죠 뭐.”

부록

‘나, 성소수자 노동자’
첫 번째 이야기의
인터뷰들(2011)

::여는 글

'나, 성소수자 노동자'를 시작하며

☺ 1차 조사의 개략적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책 뒷부분 1차 실태조사 요약본을 참고해주세요.

우리는 2009년 하반기에서 2010년에 걸쳐 성소수자 노동권에 대한 1차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우리가 일터에서 어떤 차별을 받고 있는지 알아보고 싶었기 때문에 이름도 '노동권' 실태조사였다. 그 결과 마련된 자료들은 여러 성소수자 노동자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차별의 유형'에 대한 것이었다. 실제로 분배 차원의 차별이라고 볼 수 있는 복리후생 상 의 차별부터, 직접적인 해고 문제, 그리고 끊임없는 거짓말과 결혼에 의 압박, 구조적으로 강제되어 있는 노후 불안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또한 여성이어서, 비정규직이어서 나타날 수 있는 중첩된 차별에 이르기까지, 일하는 성소수자라면 고개를 끄덕일만한 문제들을 정리해 나갔다. 아무도 몰랐지만 우리가 이렇게 차별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정리해내는 것은 그 자체로 중요했다. 그리고 아직 새로이 길어올려야 할 이야기들이 산더미 같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로 미미한 시작에 불과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좋겠다.

두 번째 직면한 문제는 그런데 그런 차별을 받는 노동자들은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무엇을 하며 살고 있느냐는 것이었다. 물론 1차 조사에서 우리가 정리한 이야기들은 성소수자 노동자들의 생생한 증언에 바탕하고 있다. 그러나 '권리'의 문제가 이야기의 중심이 되다보니 우리는 충분히 성소수자 노동자에게 숨을 불어넣지 못한 것 같았다. 한 명의 삶이 조각조각의 권리 이야기로 파편화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오로지 그런 이유에서 준비하게 되었다. 이것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다.

그리고 사람으로서 공감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다. 그것은 '성소수자'라는 덩어리로서도 '노동자'라는 덩어리로서도 아니어야 한다. 한 명 한 명의 삶이 하나의 세계를 이루고 있음을 발견할 때에서야 우리는 노동자과 성소수자를 단지 우선순위로서만 배열하지는 않게 될 것이다. 현장에 성소수자가 없다고 믿는 노동자들이 "성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싶어도 그들이 어디있는지 모르겠다"고 난망해할 때, 이런 저런 사람들도 있다고 이야기해주면 어떨까? 읽다보면 이게 왜 성소수자 차별인지 의문스러운 부분도 있을 것이다. 물론 성소수자 이야기를 쓰고자 노력했지만 동시에 이 사회에서 공동의 숙제들을 안고 살아가는 모습도 보여주고 싶었다. 이성애자든, 동성애자든, 어떤 성소수자든 말이다. 그래서 두 명의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를 초청했다. 이 분들은 차별받은 여성/비정규직의 입장에서 소수자 노동자들과의 연대, 공감의 지점을 이야기할 것이다. 노동운동에서 배제되거나 대상화되었던 여성노동자들이 어떻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투쟁해왔는지 이야기해 줄 것이다. 그런 속에 분명히 서로에 대한 지지를 확인하고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첫 번째 사람. 우체국 노동자 임씨 유니폼과 화장실의 연대기

이경

내가 그를 만나게 된 계기는 동인련 회원인 한 분이 직장 동료 중에 성소수자가 있다며 인터뷰 연결을 시켜줄 수 있다고 해서였다. 우리는 예전에 성소수자 노동권을 홍보하기 위한 포스터를 만든 적이 있는데, 여러 젠더와 성을 지닌 노동자들이 함께 일하고 있다는 뜻에서 가장 의외일 것 같은 예시를 들자고 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것 중 하나가 트랜스젠더 우체국노동자 김씨였다. 아무튼 실제로 트랜스젠더 우체국노동자를 만나게 될 줄은 몰랐다.

첫만남.

7월 초 우리는 강남역 앞 스튜디오에서 그 분을 만났다. 그를 일단 ‘임선생’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임선생은 작은 오토바이를 타고 왔다. 그리고 그는 65년생 트랜스젠더로 자신을 소개했다.

“내가 이거를 수락한 이유는 나는 어느 정도 나이를 먹어서 나도 누군가가 보이지 않게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라며 그는 심사숙고 끝에 인터뷰에 응하기로 마음 먹은 이유를 말했다. 나는 지금도 바라고 있다. 임선생의 이야기가 아마 ‘일’이라는 것과 함께 평생을 살아가게 될 성소수자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기를 말이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그의 열일곱이 지금의 열일곱에게 그리고 그의 현재가 지금의 동년배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우리가 지금 여기에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알려주는 징표이기를 말이다.

1. 노동의 역사, 삶의 역사

10대. 교복과 유니폼, 그리고 답답한 라디오.

그는 고등학교에 가지 않았다. 유신말기에 그가 탈학교 청소년이 된 이유는 ‘교복’이 입기 싫어서였다고 한다. 대신 서대문 쪽의 공장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곳마저 여공들에게 ‘유니폼’을 입게끔 했기 때문에, 그는 대신 무거운 것 드는 일을 하거나, 이후 제본소에 들어가 일했다.

“학교 다닐 때 교복을 입기 싫었어요. 그래서 거의 체육복 바지. 위에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입는데 체육복 바지 입고 그냥 걷던 거예요. 물론 지금은 검정고시도 있고 사이버대학도 나오고 했지만 학력이 그전에는 중졸이었어요. 그런데 교복이 너무 입기 싫은 거예요.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또 다르잖아요. 더 체계가 잡혀있기 때문에 교복을 안 입으면 못 버티는 거 아냐. 내가 17살 때 딱 1년을 유신 때였어요. 내가 거기서 공장에 들어갔죠. 그런 사람이 교복도 입기 싫어서 학교도 안간 사람이 공장에 들어갔는데 거길 갔더니 다 여자들이야. 다 여자들이 다 앉아서 하는데 다 또 유니폼을 입는 거야. 그런데 난 또 그걸 너무 하기 싫은 거야.”

지금도 탈학교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있는 만큼, 그때도 탈학교 청소년 성소수자가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딱히 선택 가능한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딜 가도 그의 자리를 찾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획일적이고 짝 짜여진 억압적 체계 안에서 학교와 공장이라는 기막히게 닮은 두 기관 안에서 그는 계속 유니폼과의 사투를 벌일 수 밖에 없었다. 유니폼이 그에게 정형화된 성별과 그러한 역할을 강요하는 것이라면, 지금의 청소년들에게도 다르지 않지 않을까? 지난 9월 열렸던 서울학생인권조례 공청회에서 보수적 입장을 대변하던 1인이 한 이야기는 이렇다. 교복을 입지 않으면 학생임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교복과 유니폼은 손쉬운 통제를 위해 활용된다.

“열일곱때 (공장에) 다녔는데 너무너무 불행 한 거야. 라디오를 틀어주는데 내가 봤을 때 하루에 5곡도 안틀어줘. 방송에서 똑같은 노래만 나오는 거야. 우리때는 좋아하는 노래를 돈을 주고 전파사에서 테잎에 녹음해달라고 해서 들을 정도였어요.”

그는 당시를 회고하면서 하루에 틀어주는 노래가 5곡 미만이었던 심각하게 억압된 라디오 방송을 떠올렸다. 라디오는 그의 십대가 이어졌던 한국의 70년대말과 80년대 초의 풍경을 상징한다. 이 답답함이야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였을테지만, 그에게는 ‘단지’ 교복의 이유 하나만으로도 학교를 나왔을만큼 답답하고 억눌린 시대였다.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지만 평생을 이렇게 하면서 왔어요. 그런데 나는 그걸 하기 싫어서 굉장히 노동 강도가 센 거를 했어요. 바깥으로 도는 일을. 그러니까 무거운 거를 날라다 주는 일을 하는 거야. 왜냐하면 일반 아이들이, 일반 여자들이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어. 그리고 딱 1년을 뭐를 했냐. 제본소를 다녔어요.”

그는 “평생 이렇게 왔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다. TG인 그에게 있어 ‘원래’ 여자였는지, 남자였는지는 처음부터 맞지 않는 이야기다. 그는 평생 이 모습이었다. 10대에도 그는 그렇게 살았을 뿐이다.

무엇이든 할 수 있었고, 누구든 사귄 수 있었던 ‘독신주의자’ 20대

그는 계속 공장을 다녔더라면 지금보다 못한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한다. 경제력도, 공

부를 더 하고 싶은 욕망도 채우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림을 잘 그리니 디자인을 해보라는 어머니의 권유에 따라 디자인 학원에 갔고 스물세살에 그는 지구AV라는 회사에 취직했다. 당시 흔치 않았던 비디오테잎의 표지 그림을 그리는 일이었다. 지금은 없어진 일이다. 그런 연유로 차차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원효로에 있는 출판사에서 노량진 학원가에서 쓰는 책에 들어가는 도형이나 삽화를 그리는 일을 맡았다. 그때는 밤새도록 바쁘게 일했다. 돈을 벌면 유화 물감 등을 사는데 돈을 많이 썼다. 그는 오랫동안 예술적 재능이 있는 줄 알았는데 30대 후반이 되어서야 그러한 생각을 벗어났다고 이야기했다.

“그때 난 애인이 있었어요. 19살 때 17살짜리가 있었어 ... 일을 하다가 거기서 또 여자를 만났어. **여대 다니던 여잔데 졸업을 했지 ... 23살 때, AV때도 여자가 있었어요. 지금은 희한하게 나이를 먹으면서 눈이 이렇게 내려오잖아? 옛날에는 살도 안 찼잖아. 눈도 올라갔잖아. 지금은 나이가 많이 먹어서 소용없어. 그런데 그때는 눈이 이렇게 팽팽하지.”

또 하나의 이야기는 ‘연애’다. 우리는 그에게 어떻게 노동하며 살아왔는지 이야기해달라고 했는데 유독 그는 20대와 더불어 연애 이야기를 많이 해주었다. 물론 두 번째 만났을 때는 처음에 하지 않았던 다른 여성들-피비 케이스를 닮은-의 이야기도 해주었지만, 내가 단연코 기억에 남는 것은, 20대의 팽팽한 그가 만나왔을 그녀들에 대한 이야기다. 어쩌면 우리의 20대도 그와 비슷하게 구성되기도 한다.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누구든 사귄 수 있었던 20대 말이다. 어쩌면 그런 자신감과 동시에 불확실성이 충만했던 시기이기도 하다.

“이미 남들이 볼때는 혼자 사는 사람이 되잖아, 독신주의자로 말을 해놓은거야. 나는 내 안에는 계속해서 뭐 연애사도 있고 헤어짐도 있고 하지만 남들이 볼때는 독신이란 말야.”

그는 ‘절대로 독신주의자’는 아니지만, 그 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우리는 많은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어느 곳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 쉽사리 알릴 수가 없다. 우리는 여전히도 본의 아니게 독신주의자로 살아가고 있다.

90년대, 압구정 세탁소와 집배원

그의 연애담은 “경제력이 없으면 모양새가 빠지겠단 생각에서 세탁소를 차리기로 결심”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이건 어디를 가면 가장 좋을까 근데 방송에 나오는 건 맨 압구정동이야. 그래 압구정동을 한번 가자. 기능사 자격증을 딱 딴 다음에 압구정동에 있는 세탁소를 다 다녔어. 96년쯤 됐을 거예

요. 내가 거기서 막 배달을 하고 있었어. 압구정동에 있는 아파트들에 내가 다림질도 하고 포장도하고 오토바이타고 배달도 하고. 근데 우체부 중에 하나가 나를 눈여겨봤어. 여보, 당신은 이거 하는 거 보다 공무원을 하는 게 낫다. 그 이야기를 1년을 들으면서 아, 그러냐고. 근데 내가 그때 받는 보수가 공무원을 들어가면 그 보수보다 훨씬 나왔었어.”

90년대 신흥부자들이 모여 산다는 압구정으로 돈벌러 간 그는 계속 그 일을 했다면 경제적 능력을 보다 키웠을지도 모르겠다. 어느날 그는 직업에 대한 다른 도전을 받게 된다. 당시 ‘여성’ 우체부 한 분이 그에게 공무원이 되라고 이야기한 것이다.

그는 장기적인 고민을 하게 된다. 당장의 보수보다는 장래성이 있는 직장을 택하기로 한 것이다. 그가 서른 셋이 되면서 **안정을 찾기 위해 짝을 찾고 ‘지속적인’ 직장을 가지고 싶었던 마음** 때문에 ‘집배원’이 되었다. 처음은 월급 40만원의 박봉으로 시작했지만, 사업장에 몸이 매여있지 않고, ‘자기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았다고 한다.

40대, ‘안전한 일’을 원한다.

“집배원은 일단은 출근을 해서 배달을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까지가 다 위험해요. 너무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집배원은 어느 순간에는 꼭 사고를 당해. 그게 오늘당하냐, 내일당하냐, 한 달 있다 당하냐. 일 년 있다 당하냐. 아니면 10년, 20년 있다 당하냐 이게 시간의 문제지 결국은 누군가 그 사람은 결국 사고를 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근직을 한다는 것은 나처럼 내가 원해서 출퇴근할 때 오토바이 타는 거 아닌 이상은 안전하다고. 안에서만 일을 하니까. 우리 주위에는 굉장히 선망의 대상인거예요.”

“집배원들이 다들 사내애들이니까, 겉으로는 아닌 척 하지만 내가 봤을 때는 반 이상이 혼이 나간 상태야. 너무 과중해서. 난 내 주변에 여자가 있다면 내 조카나 뭐가 됐든 절대 집배원하고는 결혼하지 마라. 라고 하고 싶어요. 왜냐면 난 내 생각에 사람이 일이 어느 정도 되어야 여자도 돌아보고 거들떠도 보고 보살펴도 주고 하는 거잖아. 관심도 주고. 그런데 자기 자신이 지치니까. 정말로. 거기서 정말 기량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삶 자체가 없어요. 몇몇 있어요. 그냥 새벽에 왔다가 밤에 몇 시에 가는지도 모르고 주변에 그냥 고꾸라져 잤다가 또 그 상태로 일어나서 일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집배원이 된 지 10년만에 그는 “운 좋게” 환직 기회를 잡게 되었다. 그는 집배원의 일상은 정말 혹독하다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다른 직무로 전환할 수 있는 환직은 선망의 대상이다. 하지만 왜 모두가 이렇게 일해야만 하는 것일까? 그것은 그가 ‘안전한 일’을 찾고자 하고 보다 여유있게 삶을 누리하고자 하는 그의 필요처럼, 누구에게나 당연한 필요일 것이다.

남성의 일을 하면서 느끼는 이중고

“저 여자가 여자직업을 갖고 하면서 힘들다고 하면 여보, 당신 여자면서 여자 일을 하지 않소. 그 정도면 당신한테 맞는 일이야. 그 정도면 해야 되요. 그 말은 내가 차마. 나는 계속 남성적인 일을 해왔잖아요. 이것은 또 다른 편견을 계속 획득해가면서 나가는 일이란 말이야. 이중고야. 노동 강도도 셀뿐만 아니라 또 그거를 편견 같은 거를 깨면서 가야된다고. 노동..... 일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 그래요.”

그는 여성들의 일을 하지 않았다. 정확히 말하자면, 여성이 할 것으로 여겨지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체본소, 세탁소 배달, 집배원 모두 남성들이 주를 차지하는 일이다. 그 안에서 자신이 겪는 어려움이 무엇인지는 인터뷰를 하고 나서야 비로소 알 수 있었다. 남성일자리와 여성일자리가 있다는 것 또한 다양한 차별을 만들어내지만,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그가 ‘남성 일자리’에 들어갔을 때 느끼는 편견이다. 그것을 그는 이중고라고 표현한다. ‘노동강도도 세고’, ‘여성이 남성의 일을 한다는 편견도 깨야 하는’ 것 말이다. 그의 말대로 노동, 일만 하는 게 아니다. 많은 트랜스젠더들은 오로지 성별을 남/녀로만 나누는 이분법 때문에 그러한 룰이 그대로 적용되는 고용의 현장에서 쉽게 배제된다. 어쩌면 그는 혼치 않은 경우일 수 있다.

얼마전 우연히 만나게 된 한 MTF트랜스젠더는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직장에서 해고 위협이 있자 그녀의 다른 트랜스젠더 언니들은 하나같이 “그래도 거기 잘 붙어있으라. 트랜스젠더들도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라”고 응원했다고 한다. 어쩌면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 때문에 다른 일을 못하게 된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그래서 그런지 그는 자신이 매우 성실하고 동료들만큼, 오히려 동료들보다 맡겨진 일을 잘 해내는 사람이어야 했다. 그가 느끼는 규정된 여성성/남성성에 대한 불편함은 인터뷰 곳곳에서 확인되었다.

2. 성별로 구분된 직장

화장실, “아무 이유도 없는데 얼굴 빨개지는 이야기”

“뭐랄까? 그냥 내가 제일로 편한건 공용. 누구는 그걸 굉장히 불편해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제일로 그게 편해요. 솔직히 (화장실에) 사람이 있으면, 그런데 이거가 있어요. 아예 거기는 매번 보는 사람들이잖아. 한 2년 정도 같이 보는 사람들이니깐 나는 내 속으로는 되게 불편하지만 안 불편한 척 하는 거야. 안 불편한 척 한다고. 그리고 솔직히 나는 내가 화장실 갔을 때 아무도 없으면 좋겠어. 솔직히. 내 마음속에는 굉장한 갈등이 있고 있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척해. 근데 문제는 내가 일을 보고 들어갈 때는 없었는데 나올 때는 누가 있으면 내가 얼굴이 빨개져요, 그러면 사람들이 당신 뭐 했길래 빨개지냐고. 그런데 그게 아무도 모르는 거야. 나만 아는 거야.”

그가 화장실이 성별에 따라 나뉘어져 있음을 처음 인식하고서부터 지금까지 거의 40여 년 동안 화장실은 최대의 고민거리였다. 초등학교때는 오줌을 참느라 늘 힘들었고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직장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 동료들을 만날때마다 얼굴이 빨개진다. 이 인터뷰 자리에는 그를 소개해준 직장 동료가 함께 했었는데 그녀조차 그가 이 문제로 힘들어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 화장실의 문제는 그가 형제에게도 못한 이야기라고 했을 정도로 비밀스럽지만, 그에게는 가장 힘든 문제다.

10년간 한번도 들어가보지 않았던 여성휴게실

“10년을 집배원 하면서 내 선배가 맨날 그래. 너 힘들면 휴게소가서 쉬어라. 거기 여자들만 쉬는 휴게소야. 절대 안갔어. 10년 동안 한번도. 그런데 내가 내근직을 하니, 어쩔수가 없어. 야근 하면 밤에 숙직실 가서 자야 되니까.... 사람들이 웃 갈아입으면, 내가 여자들 웃 갈아입는걸 못 봐요. 그럼 빨리 돌아서서 나와.”

화장실과 비슷한 문제로 그는 여성 휴게실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불편하다. 그의 업무 특성상 휴게실이 필요하지만 그에게는 이미 불편한 공간인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남성 휴게실에 들어가는 것이 편한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한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 때문은 아니다. 그냥 남성휴게실을 이용한다는 것도 그에게 맞지 않았다는 것이다. 남성과 여성의 양극단으로 나뉘어진 사회에서 여성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남자가 될 생각도 없는 그의 정체성은 이름 붙여지지 않는다. 어쩌면 이 다름에 대해 누구도 상상하지 않는 것. 생각하지조차 않는 것이 문제일 것이다. 그리고 평생을 거쳐 온

유니폼, 벗지 못한다면 나가겠다.

그는 내근직이 된 후 필드에 배정된 적이 있다. 그는 내근직이 되어도 작업복 입고 일할 줄 알았다고 했다. 사실 그는 집배원보다 편하게 일하기 위해 내근직으로 환직해왔는데 이런 일이 생긴 것이다. 필드는 주로 여성들이 유니폼을 입고 일하는 자리다. 우체국에서는 여성들만 바지든, 치마든 유니폼을 입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는 유니폼 자체를 입기 싫었다. 그의 표현대로라면 “여성성이 보이는 옷들”이었다.

“내가 딱 필드에 6개월 있었는데 거의 5개월 20일가량은 버텼어요. 그냥 일반 바지에 조끼를 입고 버텼어요. 그런데 굉장히 독한 고객을 만난거야. 등기를 접수하러 와서는 저 사람은 왜 필드에 있는데 유니폼을 입지 않는다 라고 민원을 띄웠어요.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유니폼을 입어야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때 난 어떻게 했냐. 국장까지 나서서 당신 유니폼 입어라. 알겠다. 들어가서 일주일을 안 나왔어요. 그리고 (다시 나와서) 한 일주일인가를 내 평생에 (여자 유니폼을) 입어봤어요. 입고는 도저히 안돼서 나 이거는 도저히 못 견뎌. 그래서 국과장을 찾아갔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나한테 우호적이지 않았다면 이거는 내가 만약에 옷을 벗으면 이 나이에 거지가 되니까. 그러면 커밍아웃을 해야 되나.”

그는 민원이 걸린 탓에 회사에서 여성 유니폼을 입으라는 압력이 들어오자 국과장을 찾아갔고, 이야기가 먹히지 않으면 커밍아웃이라도 하려고 했다. 그에게 유니폼 문제는 일자리가 걸린 중요한 문제였다.

“내가 그랬어요. 내 능력이 안 되는 것처럼 말했어요. 난 도저히 필드에서는, 내가 이랬어요. 차라리 옷을 벗느니 내가 떠날 걸 시키는 게 낫겠다. 그러고선 국과장한테 가서 도저히 이 일은 못하겠습니다. 나는 그 문제가 아니지만, 그 문제로 이야기했어요. 그게 만약에 안 먹히면 커밍아웃 하려고 그랬지. 난 도저히 내 능력으로는 못 견디겠다. 그랬더니 우리 국과장이 내가 커밍아웃 안 한 상태에서도 그걸로 이해를 해줬어요. 그래서 내가 막노동을 할 수 있는 쪽으로 나를 돌려줬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행복하게 일하고 있어요.”

물론 주변 동료들은 “입어라,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왜그러냐”라며 그의 사정을 이해하지 못했다. 유니폼을 입는 것,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일까? 때로 우리는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떻게든 발버둥을 친다. 유니폼 까짓거 입을 수도 있는거 아닌가 싶은 것이다. 그럼 반대로, 왜 그까짓 유니폼을 꼭 입어야만 하는 것인가. 더군다나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면서까지 말이다. 사실 우리는 사적인 공간에서의 내 정체성과 공적인 공간에서 내 노동을 정확히 분리해낼 수 없다. 그런데도 사회적으로 성소수자들은 이를 정확히 분리해내기를 요구받는다. 원래부터 그것은 하나로 붙어있었던 문제다. 그에게 유니폼은 그런 문제다.

“나한테는 옷을 벗을 만큼 힘든 일인데, 주변에서는 그거 별것도 아닌데 안하냐는 거죠.”

화장실, 휴게소, 유니폼. 우리가 일터에서 흔히 맞닥뜨리는 문제다. 선택의 여지 없이 수년을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과 한 공간을 쓰는 일터에서 위와 같은 문제들은 그에게 얼마만큼의 고통으로 다가올까?

3. 내가 일하고 있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

결혼.

결혼 이야기는 성소수자라면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문제다. 1차 실태조사에서는 대부분 20~30대 직장인들이어서 결혼 압력이 실제로 상당했다. ‘불혹’을 넘긴 그에게는 어떨까?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냥 툭툭 한마디씩 하지만, 그것 자체도 여지를 못 두게 해야죠. 고마해! 그런 소리 하지마라! 그런 얘기 들을 사람한테 하고 나한테 하지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마도 그의 나이 때문에 ‘실질적으로’ 결혼 압력을 넣는 사람들보다는 말하기 좋아하는 동료들 정도가 전부인 듯하다. 우체국은 아주 오랫동안 한 공간 안에서 일하게 되기 때문에 동료 집의 손가락 숫자까지도 파악하는 정도의 친밀감이 형성된다. 생활이 밀착된 공간에서 어느 정도 사생활이 드러날 수 밖에 없을 때 성소수자들은 위축감을 느끼곤 한다. 그것은 밖에서 전해지는 압력에 대한 공포인 동시에, 스스로 느낄 수 밖에 없는 소외감이나 불안의 문제이기도 하다.

짹.

“우리가 햇수가 8년-9년 됐는데 5년까지는 한 번도 불안하단 감이 없었어요. ... 어느 순간 좀 그게 있어요. 부부들 살다보면 좀 다투잖아. 다투는 거는 별거 아니야. 그런데 한껏 다투고 그러면은 정말 결속력이 뭔가 필요하더라고요. 우리는 특히나 내가 막 화가, 불같이 화가 확, 무척 화가 났다. 그러면 어떻게 만약에 저쪽에서 사과를 하지 않으면 내가 자존심은 좀 열라 세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끝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 막 도래하는 거야. 그럴 때는 생각을 해보아야 이거 참 우리가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죠. 이러다 그냥 헤어지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내 파트너한테도 이야길 해요. 우리는 다른 건 좋다. 결혼까지는 원치 않아도 무슨 파트너십 같은 것만이라도 인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재산권 같은 거. 만약에 우리가 둘 중에 하나가 먼저 가거나 하면 그 사람은 진짜 나하고는 굉장히 부모하고 순위를 정할 수 없을 만큼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지만 법적으로는 아무 권한이 없는 거 아니에요.”

30대 초중반, 경제 능력을 갖추기 위해 많은 일을 하며 바쁘게 살던 그도, 여전히 짹을 찾고 싶어했다. 그 이후 9년째 함께 하고 있는 파트너와는 안정적이지만, 그럼에도 “아무것도 아닌 관계”에 대한 불안감은 늘 상존한다. 미래에 잘 살아가기 위하여 경제적 필요와 더불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1차 조사에서도 누차 이야기되었던 것처럼 ‘사람’과 ‘관계’이다. 결혼이라는 것이 사실상 안정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많은 성소수자들이 그러한 안정적 제도로 자신들의 사랑을 결속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자신과 삶을 나누는 반려에게 최대한의 배려를 하고 싶어하는 것도 자연스럽다면 자연스럽다. 우리 사회에서 결혼제도에 속하지 않는 커플은 그러한 최소한의 보호조차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도 제도가 보장된다면 결혼을 하고 싶다고 했다. 짹을 찾고 짹과 함께 미래를 꾸려가는 것. 혼자서는 도무지 감당하기 어려운 삶에서 우리에게 그것은 인생만큼이나 중요한 문제로 다가올 때가 있다. 그의 삶도 마찬가지다.

동료.

“동료들 중에 아저씨들이 날더러 임군, 임군 그래요.... 놀리는 의미는 아니고, 니가 그 모양이니

까 ‘군’자를 붙인다, 그렇게 느끼죠. 오히려 임양, 이러면 더 자존심 상하는 거지.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러겠지.”

“같이 일하는 사람이 10여명이 되는데 좀 사고들이 고루해요. 그리고 마초성향이 많아. 거의 남성위주의 조직이에요. 내가 일하는 부서 자체도 그러지. 간혹 뉴스에 동성애자가 뭐 어떻게 됐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 직빵으로 막 저런 개자식, 미친놈이다. 또라이다 바로 막 나오니까. 하리수보고도 미친놈이다, 라고 하지. 절대. 최고의 마초지.”

그는 (많은 사람들이 트랜스젠더로 받아들이는) 하리수조차 인정하지 않는 마초의 세계에서 자신이 트랜스젠더라는 사실을 말도 못 꺼내는 그는 어떤 존재일지 궁금했다.

“그냥 나는 그냥 동료죠. 난 내가 원하는 것도 난 동등한 동료이길 원해요. 성별로 나뉘는 것도 나는 원치 않고. 그냥 나는 동등하게 너 하는 만큼 나도 하고, 남한테 피해 안주고 내가 내 할일 할 테니까. 동료로서 인식되길 원해요. 그러니까 누군가 전력질주를 해서 80을 하면 나는 최소한 100이나 그 이상은 하자라는 주의로 해요. 그러니까 항상 피곤해요. 왜냐면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의 강한 바람은 남자도 여자도 아닌 동료로 인식되길 바란다는 것이다. 그 때문인지 그는 늘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 이 세계에서 일에 있어서는 처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다.

커밍아웃. 동료의 지지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다보니까 이쪽에 굉장히 우호적이고 의식이 깨어있다고 해서 얼마 전에 완전히 그냥 했죠. 식사를 하는 가운데서 이사람정도면 해도 되겠다. 그리고 사실은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한 직장 안에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나를 굉장히 본의 아니게 가리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사실은 답답해요. 그런데 이거를 말할 수 있는 계기가 됐을 때는 굉장히 좀 속이 후련하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 얘기를 얘기하면서 자기가 전에 이주여성들 뭐 한다 이럴 때부터 이 사람이 약간 그런 쪽일 수는 있겠다. 감은 잡고 있는데 동인련 뭐 한다 했을 때 이정도면 얘기해도 되겠다...”

그에게는 또 다른 동료도 있다. 단 한명이지만 그가 커밍아웃하고 그 비밀을 공유하며, 그를 우리와 만나게 해준 동료다. 그녀는 동인련 회원이기도 하다. 그는 몇 년전 아주 스쳐가듯이 그 이야기를 했다가 이후 정식으로 커밍아웃을 했다고 한다. 그 이후 또 커밍아웃이 가능한 동료를 생각해보고 있지만 아직은 딱히 떠오르지 않는 모양이다. 그만큼 직장에서의 커밍아웃은 가족에게하는 것 만큼이나 어렵다. 고용, 그것은 자신의 생존과 연결되며, 동료들, 그 또한 이후 삶에서 무시할 수 없는 ‘인정’받고 ‘지지’받아야 할 관계로서 중요하다. 그런데 많은 일터에서 성소수자 노동자들은 ‘그 한명의 동료’조차 찾지 못한 채 지내고 있다. 그러한 후련함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은 아닐텐데.

물론 그는 아주 예전 직장에서 두 명의 여성 동료에게 커밍아웃 한 적은 있지만, 그들 모두 “뽀뽀나 한번 할까”라는 식으로 나와서 커밍아웃이 쉽지 않음을 느꼈다고 한다. 커밍아웃은 성소수자가 일터에서 일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정 중 하나다. 생활의 대부분을 함께 하는 동료들로부터 인정과 지지를 받는 것은 그의 노동을 질적으로 다르게 만든다.

커밍아웃이 꼭 비장한 순간에 해당된다고는 말할 수 없다. 나는 그에게 어떤 순간에 가장 커밍아웃을 하고 싶었냐고 물어보았다. 예쁜 여성이 지나가면 자신도 감탄하고 싶지만 속으로만 삭여야 한다는 것이 가장 불편하다는 것이다. 솔직하게 감정 표현을 하는 것. 거기에 커밍아웃의 이유가 있다.

“제일 좋은 거는 상대가 완전히. 그런데 내 생각에는 그건 아마 어려울 것 같애. 그래도 우리 바램은 완전히 이해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면 좋겠다.” - 임선생의 바람이다.

4. 꿈꿀 수 있다는 것.

이 인터뷰를 다시 시작할 때, 우리의 초점은 성소수자 노동자들이 직장에서 받는 차별 그것만은 아니었다.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다소 감상적으로 비칠지 몰라도, 이 사람들이 꿈꾸고, 행복하게 여기고, 또한 어렵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지, 결국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인터뷰를 했다.

그는 사회복지 공부를 하고 싶어하고 퀴어 시나리오를 쓰고 싶어한다. 그의 스토리텔링 실력이라면 누구든 매혹할 수 있는 탄탄한 시나리오가 완성될 것이라고 이야기해주었다. 그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나또한 중요하게 깨달은 사실이 있다면 우리에게 젠더(성)란 정말로 다양하다는 것이다. 나 또한 그와의 첫만남에서 단지 그를 남성으로만 여겼었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 여성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여성임을 나타내는 신체적 특징이 불편할 뿐, 남성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고 하였다. 우리의 일터란 얼마나 남성적이고, 또한 여성적이기만 한가. 사용할 화장실조차 없는 노동자들이 화장실을 만들 어달라는 요구는 얼마나 정당한가. 하지만 왜 우리는 여성이기를, 또는 남성이기를 거부한 사람이 화장실이나 유니폼, 휴게실 등이 불편하다고 했을 때 그만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나 또한 그를 통해 한 명의 사람이 얼마나 무궁무진한 자신의 세계를 품고 있는지 알게 되었다.

불편하지 않은 자의 입장이 아니라, 불편한 자의 입장에서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 맞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나 그렇게 해야한다. 그것은 정말로 보편적인 요구이다.

“되게 가슴 아픈 게 먹기 살기 위해서 굉장히 즐거운, 위안이 되는 일을 못하는 거죠. 그게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그의 인터뷰를 마치면서는 꼭 이 이야기로 끝내고 싶어졌다.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노동은 그저 생존만 하기 위한 노동이 아니다. 즐겁고 위안이 되는 일, 꿈꿀 수 있는 일, 그런 것들이 어찌면 노동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더 풍부히 해줄 지도 모르겠다. 나는 그것이야말로 인간에게 필요한 보편적인 감수성이라고 부르고 싶다.

..두 번째 사람, 백화점 판매노동자 이씨 'OO' 그리고 '노동조합'

이경

그는 올해 이십대 후반에 들어선 남성 동성애자다. 화장품 회사의 직원이며 백화점 화장품 매장에서 물건을 판매한다. 그리고 그와 꼭 인터뷰를 하고 싶었던 이유는 올해 5월 노동절 집회에서 우연히 그를 만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와의 첫 만남은 그가 고등학생이었던 2004년쯤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동인련에는 청소년 모임도 제대로 없던 시절이었지만 몇몇 청소년 회원들이 열심히 활동을 하곤 했다. 그도 그 중 하나였는데 곱상하고 말이 없었다. 옛 사진첩을 뒤적거리다보면 장애인 이동권 집회 등에서 동인련 깃발을 들고 있는 그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 아무튼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다가 올해 우연히 마주친 그는 노동조합 조끼를 걸치고 있었다. 서비스연맹 소속 사업장 동료들과 함께 나왔다고 한다. 노동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조합 활동도 시간 닿는 대로 참여하는 그와 이야기 나누고 싶어졌다.

그는 스물둘까지는 전자회사에서 자재 포장일을 했다고 한다. 비정규직이었다. 그러다 학력을 별로 보지 않고 구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아 백화점 판매노동자가 되었으며 이제는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물론 화장품을 사거나 꾸미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화장품 파는 일을 선택하기도 했다. 회사에서 백화점으로 파견을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본사 직원과는 좀 다르다고 한다. 어쨌든 그는 자기 적성에 맞는 일을 찾은 것 같으며 만족스러워했다. 물론 하루 종일 서있는 일이 고될 때도 있다.

여성 직종 안의 게이로 살기

백화점 판매 노동자의 성비를 따지자면 단연코 여성이 훨씬 많다. 우리가 백화점에 가 보면 알다시피 화장품 매장에 간혹가다 1명 정도의 남성 직원이 있을 뿐이다.

“남자직원들은 천명 중에 60명 쯤 될걸요? 본사는 아니고 판매직에서요.”

오히려 여성이 많은 직종이라는 특성상, 남성이 더 빠르게 승진되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남성들이 경쟁하는 직장에서도 기혼자를 우대하는 등의 분위기는 별로 없다고 한다. 판매직의 특성상 동료끼리 대화를 하거나 따로 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고, 쉴 때도 여성휴게실에서 여성들끼리 쉬기 때문에 남성 직원들은 대화에 좀처럼 끼게 되지 않는다. 그런 점들이 오히려 그에게는 편안했던 것 같다. 1차 조사에서는 남성적이고 군대식 문화의 직장에 적응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게이나, 비혼인 까닭에 치열한

승진 경쟁에서 뒤로 밀리는 경우도 자주 보았지만 말이다.

“제가 하는 행동이나 말투 그런 것도 다들 여러명 봤으니까 그러려니 해요. 저보다 끼스러운 사람도 많아요. 처음에는 애들이 언니라고 불렀어요. 그냥 뭐, 그런 말 게이스럽다 소리 듣는 것보다는 솔직히 낫더라고요. 가끔씩 나오는 행동이나 말투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다 눈치채도 그러려니 하는 것 같아요.”

“눈치했다고 느낄 때는 자기들끼리 내가 한 얘기나 행동을 얘기하면서 웃을 때, 예를 들면 손가리고 웃는 다거나. 남자손님이 특별히 잘생긴 사람 왔을 때 내가 부리나케 달려나간다가나.”

게이보다는 언니로 불리우는 것이 차라리 편하다는 말은 공감이 갔다. 내게 레즈 같다는 말과 오빠 같다는 말이 가져다 주는 어감차이와 같은 것이다. 때로 남성들 사이에서 남성이 표현하는 소위 ‘여성적 표현’들은 경멸받거나 무시의 대상이 되기 쉽지만 여성들 사이에서는 좀 다르다. 게이들이 여성이 많은 직장을 선호할 때 그것은 자신의 모습에 대해 여성들이 보다 수용적인 경향을 강하게 보여주기 때문일 것이다.

성희롱

“자기 속옷 색깔이랑 포장끈이랑 색이 같으면서 보여주시는 분도 계시구요. 바로 앞에서 스킨 테스트 하면서 이렇게 닦았거든요? 웃을 파인 걸 입고 왔는데, 토너로 가슴까지 다 닦고 보여주고. 그 분이 계속 저를 찾아와요. ‘좋아하는 것은 괜찮지? 데이트 하자는 것은 아니잖아’ 이러면서 매번 찾아와요. 다른 직원들에게 얘기하면 ‘용돈이라도 좀 받지 그래’ 이런 식으로 장난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매번 올 때마다 물건을 사서 따로 신고도 못하게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매장에 자주 오는 60대로 보이는 여성고객이 있다고 한다. 그는 자신이 이성애자는 아니지만 동성애자라도 너무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성희롱 같은 느낌은 오는데 고객이라 딱히 어떤 조치를 취할 수는 없다고 얘기했다. 이런 경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현재 기업들은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실효는 거의 없다. 그리고 판매직 사원들은 어떤 경우에도 고객에게 친절해야 한다는 압박 때문에 스트레스를 혼자 감당해야 한다. 이 경우 그가 남성이라는 사실은 사태를 더욱 장난스럽게 받아들이도록 만들기도 한다. 그가 말하듯이 기업이 노동자에게 요구하는 복장, 규정, 헤어, 말투, 개인적 행동, 앵무새 같은 반복적 대화들을 통제하는 것도 문제이다. 판매직 노동자들은 고객의 횡포에도 불구하고 머리를 조아려야 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다. 무엇이 바뀌어야 할까?

있지도 않은 여자친구

그는 처음부터 여자친구가 있다고 공언했다고 한다. 친한 친구 사진을 보여주는 등 미

리 닥쳐올 의혹들에 대비하는 것은 성소수자들의 오랜 대처법 중 하나이다. 직장생활 하면서 이런 경우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거의 없을 정도로, 매우 성가신 일이다.

“진솔하게 말해버리면 직장에서나 아니면 우리 브랜드 말고 다 소문이 나는 거니까, 차라리 눈 가리고 아웅해버리는게..... 여자친구 없고 무덤덤하게 있어도 되는건데 제가 뜨끔해서”

그라인더

그가 일하는 매장에는 성소수자 손님들이 종종 찾아온다.

“어제도 트랜스젠더분 한번 왔던 것 같아요. (제가 응대하는 장점은) 그냥 다 터놓고 얘기한다는 거? 어떤 때는 막 쳐다보면서 ‘아 재 아는 애다’ 이런 식으로 보기도 하고요. 그라인더나 이런거 보고요. 일할 땐 꺼놓긴 하는데, 어느순간 보기도 하니까, 그거 보고 왔던 애도 한명 있더라고요. 그냥 좀 더 편한 것 같아요. 개네들도 그냥 남자가 있으니까 더 편하게 들어오고...”

성소수자인 그가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게이들을 찾아주는 프로그램에 뜬 것을 보고 매장에 찾아오는 게이 손님들을 상상해보면 재밌기도 하다. 나 또한도 그렇다면 보다 편하게 이야기하고 즐겁게 쇼핑을 즐길 수도 있을 것 같다.

OO.

누구나 그렇듯,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는 어떨 때 ‘섹스’보다 불편한 이야기가 되곤 한다. 그래서 그는 동료들에게도 커밍아웃 한 적이 없고, 누구도 그와 관련한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 또한 괜히 대응을 했다가는 말이 나올 것 같아서 잠자코 지내는 편을 택한다. 그 때 그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꺼냈다.

“어차피 남자 직원들은 대부분 다 아니까. 종로라든지 그런데서 대부분 보면 만나고, 인사하기도 하고요. 한달에 한번씩 남자모임이 따로 있어요”

그 모임의 이름은 ‘OO’다. 원래는 성적지향과 상관없는 남성모임으로 출발했지만 어느새 성소수자 남성들이 더 많이 참여하는 모임이 되었다. 이 모임은 생긴지 1년이 넘었다. 나는 그런 분위기가 그에게 어떤 장점이 있는지 물어보았다.

“게이 매니저도 있고 게이 부매니저도 있고 직원들도 많으니까 그분들이 잘 해놓고 나서 들어오면 ‘왔어 잘지내고’ 그런 부분들도 많고 또 인식 같은 부분도 친구처럼 잘 지내고 하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긍정적인 것 같아요. 따로 뭐 행동이라든지 그런 게 우습고 그럴 수 있지만. 그러니까, 여자휴게실에서 화장고치고 있거나 그런 적도 많이들 있다고 하더라고요.

“서울지역은 20명정도 모이고, 한 달에 한번정도 모여요. 본사에서는 남자들이 많아졌으니까 한번 해보라고 회식비 정도 지원해줘요. 1차가고 2차가고 이러거든요. 우선 종로에서 만날 때도 있고요. 강남에서 만날 때도 있는데. 종로에서 1차로 만나면 그냥 횡단보도 건너지 않고 그런 거 있잖아요. 횡단보도 건너면 게이촌이고 하니까 피아노 거리에서 1차로 만났다가, 시간 좀 지나고 빠질 사람들 빠지면 횡단보도 건너서 포차 있는 쪽이나 이반업소나 그런데 가서 술 마시고 놓고.”

“애는 게이이다, 애는 여기서 만났다 이렇게 얘기가 돌아요. 이성애자도 있지만 동성애자보다는 적어요. 직원이 워낙 없다보니까, 따로 인식이나 그런 게 있으니까. 입사하고 20명중에는 한 이반 12명에 일반인들 8명 이렇게. 일반들도 눈짐작으로는 게이인지 알지만 이상하게 대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다 형님형님 개네들은 그러고, 저희도 형 뭐 어찌고 평상시처럼 얘기해요. 그런데, 술 좀 먹고 하면 또 다르게.. 잘생긴 사람 지나가면 눈 같이 돌아가고....”

OO는 친목모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는 직장 내의 작은 성소수자 커뮤니티처럼 지원받는 듯 한 느낌이 든다고 말한다. 이런 성격의 남성 모임은 다른 계열사에도 있다. 그는 ##브랜드에는 끼순이들이 많고, **에는 뽕뽕한 애들이 많고, 그래서 단체로 같이 모이자고 한다고도 이야기해주었다. 분명 성소수자들이 직장에서 겪는 어려움 중 하나가 커밍아웃 하지 못하는 것에서 비롯되는 고립감이다. 이러한 직장내 ‘사실상 성소수자’ 친목모임이 유지된다면 그가 말한 것처럼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물론 지금이야 어려울 수 있겠지만 향후 직장 내에 성소수자 모임이 차차 만들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은 우리의 과제기도 하다. 그것은 이미 커뮤니티 내에 형성되어 있는 직종별 커뮤니티와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진다. 노동현장에서 만들어지는 모임은 보다 직접적으로 현장의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고, 당사자들이 직접 지지받을 수 있는 모임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의 말에 따르면 OO에 참석하는 남성 노동자들 대부분이 조합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것은 어쩌면 노동조합이 매우 적극적으로 하지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할 중요한 부분일 것이다.

돈 보다는 노동운동.

1차조사에서는 처음부터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던 분들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노동조합 활동에 관심없는 인터뷰이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도 그럴것이 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노조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보다 더 직접적으로 노동조합활동이 자신의 생활과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그가 속한 노조는 서비스연맹에 소속한 조합원이 1천여명 정도 되는 활동적인 곳으로 알려져 있다. 그에게 노동조합은 어떤 곳으로 비칠까?

“대리인이나 변호인처럼 제 입장에서 지켜주는 사람들 같아요. 슈퍼바이저라든지 위에 있는 사

람들에게 얘기 못할 거를 이 사람들 대신 해결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곳... 회사와 동등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같고요, 본사에서 하려는 부당한 일들은 못하게 하고 노조에서 매장별로 연락 돌려서 못하게 하고, 회사에서 못받았던 소급분이라든지 그런 것도 노조에서 챙겨주고... 어느 정도 활발하긴 한데 활동하는 거는 따로 이렇게 ‘연장근무반대 캠페인’ 말고는 지금 따로 없는 것 같기도 해요. 9시나 8시 반에 출근해서 퇴근시간이 8시 반이니까 또 마감일 하다보면 9시 넘기고 9시 반 넘기고 거의 12시간 넘게 직장에 있다 보니까. 일상이 없죠.”

그는 노동운동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다.

“펀드라든지 뭐 돈 그런 자산 불리는 것 보다, 좀 더 자본보다는 노조... 뭐라고 해야 될까요? 동일하고 동등하게끔 해주는게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조합원들은 어떤 활동에 참여하고 있을까?

“1년에 상하반기 노조교육이 있는데 그때는 100% 참석해요. 매니저들도 조합원이고 그분들도 노조교육이나 노조 중요성 알고 있으니까 다 참여시키는 편이에요.”

조합원들이 전부 참여하는 활동이 ‘교육’이라면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했다.

“너희들이 투표잘해라. 민주노총이나 아니면 한겨레사설위원 그런데서 주로 나와서 노동자 운동이라든지 최저임금에 관해서라든지 그런 얘기 주로 해줘요. 대부분 자는 인원도 많고, 강연 위주예요. 대부분 휴무내서 가는 거니까 불평불만들도 많고. 회사에 대해서도 회사에 뭐 잘못된 점이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조에서 한번 더 교육해주고요.”

소수자나 인권에 대한 교육은 없는지, 없다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아이가 있는 분들이나 나이가 있는 매니저급 분들은 불쾌하거나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나이가 어린 애들도 많이 들어오니까 게이친구들도 사귀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괜찮을 것 같아요.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도 제고되고 그럴 것 같은데요. 아니면 좀 더 누그러들거나 하겠죠.”

그는 만약에 성소수자에 대해 이야기하는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당혹스러우면서도 반가울 것이라고 했다. 어떤 사람들은 괜히 성소수자를 이야기해서 괜한 관심을 받기 때문에 직장 생활이 더욱 힘들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반면, 그러한 교육을 통해 편견이 누그러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교육을 통해서든, 캠페인을 통해서든 언젠고 직장 내에 있는 성소수자들을 알리는 작업은 시작되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알리고 어떻게 인식을 바꾸어낼 것인가? 어떻게 하면 소수자가 대상화되지 않으면서, 여기 이곳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노동자로서 등장할 수 있을까? 어쩌면 제대로된 교육을 만들고 진행하는 것이 그 첫 번째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많은 활동에 참여하지는 못하더라도 아침 선전전에 나가 팻말을 들거나 서명을 받는 일을 한다고 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대의원도 해보고 싶다고 했다. 바라기로는 성소수자들이 대의원이 되어 자신의 요구를 가지고 일해주었으면 좋겠다. 성소수자 또한 제대로 대표되어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이기 때문이다.

하고 싶은 것들.

마지막으로 나는 그에게 언제까지 이 일을 할 것이냐고 물었다. 그는 늦어도 40대 초 중반까지는 할 수 있다고 했다. 생각보다 근속기간이 짧은 이 직업 대신 그가 하고 싶은 것은 조그만 커피가게이다.

그에게 노동은 “안하면 먹고살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는 왜 노동운동에 관심있는 것일까? 일만 하며 살수도 있는데 말이다.

“저는 노동강의 그런데도 관심도 가고 노동권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도 관심 있다 보니까 회사에서 인권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 부족하더라도 만약에 위임을 받거나 그렇게 된다면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배우고 싶은 것도 많아요. 단협이나 그런 것도.”

그는 달변가는 아니다. 그래서 대화가 짧게 짧게 끊겨서 이어지기도 했다. 어쨌거나, 무언가 바꾸어가기 위해 노동운동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그의 바람이 좀 더 구체화되어 갔으면 좋겠다. 노동운동은 그가 게이 백화점 판매직 노동자로서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기도 할 것이다. 그것은 그가 하고 싶은 것들 중 하나이다.

::세 번째 사람, 게이 기간제교사 비씨

20대의 '안정'이라는 꿈

이경

그는 거의 유일하게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동인련 회원 한 명이 자신의 지인을 소개해주어 인터뷰를 하게 되었다. 어쨌거나 1차 조사에서 부족한 점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다루지 못했다는 점이었는데 조금이나마 이를 보완하고자 한 인터뷰이다. 그는 2년차 기간제교사이며 게이이고 곧 서른이 될 기술가정교사이다. 그에게 여기는 첫 직장인데 공립학교이지만 대체근무가 아니라 원래 빈 자리에 정교사를 임용하지 못해서 기간제를 고용한 것이다. 1년 단위 계약직이다. 그는 현재 중3 남자반 담임을 하고 있다. 징글징글하다고 한다.

전교조에 대한 평가

교사이다보니 전교조에 대한 그의 인식이 어떨지 궁금해졌다. 전교조 소속 교사는 학교에 3~4명 정도 있다고 한다. 그가 보기에 전교조의 영향력은 학교에서는 별로 크지 않다. 교원평가가 신경쓰여 발언을 아끼는 교사들 사이에서, 영향력 있는 나이 많은 교사도 없는 상황에서, 교무회의 때 당차게 할 말은 하는 사람들이 전교조 교사라고 한다. 그는 특히 입시위주로 교육과정이 개편되는 상황에서 전교조 교사들이 이것을 반대할 때 인상적이었다고 한다. 그도 심정적으로 매우 동의하지만 발언권은 거의 가질 수 없었다. 하지만 기술가정교사이기 때문에 도덕, 기가, 미술, 음악 등의 과목이 입시에 밀려 사라지는 것은 누구보다 안타깝기도 하다. 하지만 기간제 교사로서는 노동조합활동이 전혀 관심사가 되지 못한다고 한다. 노동조합운동에 관심있다는 것을 알면 누가 교사로 써주겠냐는 생각에서다.

교사라는 천직 하지만 기간제라는 함정

그는 대학 때 우연히 사범대를 선택했고, 교생을 나가니 아이들 가르치고 상담하며 함께 부딪히는 일이 정말 즐겁고 재밌었다고 한다. 그에게 교사는 천직이라고 할 만큼 정말 하고 싶은 일이다.

“저는 어떻게든 먹고는 살겠지 싶어요. 하지만 하고 싶은 게 있는 거니까, 사람들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야 좋잖아요. 하기 싫은거 돈 때문에 억지로 하는것 보단. 계속 미련남고. 그런데 임용 공부 하다보면 우울증 오는 것도 사실이에요.”

동시에 그는 자신이 기간제 교사라는 사실이 불안정하다고 이야기한다. 교육청에서 사람을 넣어줄 때 교감(관리자)이 커트해주면 계약연장이 될 수 있다고는 한다. 학교 재량권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규직 되는 방법은 임용을 보거나 사립으로 가는 것 뿐이라 그는 임용고사를 준비하기 전까지 계속 기간제교사로 일하게 될 것이다. 그에게 어떤 계획이 있는지 물어보았다.

“임용 공부하다가 너무 지겨운 거예요. 그래서 한 1년만 기간제하고 다시 공부해야지 이뤘는데, 집안상황이 바뀌어죠. 아버지 돌아가시고 뭐 이렇게 하다보니까 엄마랑 나밖에 없는 상태에서 공부만 하긴 어려웠어요. 상황에 끌려서 지금 그렇게 된 것도 없지 않아요”

그는 현재 임용고사를 준비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점점 새로 뽑는 교사의 수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을지 불안하다. 그에게도 일단 자신이 비정규직이라는 위치에서 느낄 수 밖에 없는 서운함이 더 큰 편이다.

“일상적인 생활 뭐 담임도 다 주어지고 똑같은데 그런거 있잖아요. 정말 중요한 것들을 경계해야 할 때, 시수조정할 때는 빼고 들어가요. 저는 빼고 정교사들끼리. 예를 들어서 기술가정이 어느 학년에 어떻게 갈 것인가 제가 하는 일을 결정할 때 저는 못하는 거죠.”

그 또한 다른 것보다 정규직으로 일하지 못할 때의 불안정함에 대해 가장 많이 호소하고 있었다. 하지만 1차 조사에서 인터뷰했던 기간제 교사 경험이 있는 레즈비언과 마찬가지로 입시와 관련이 없는 과목의 교사들을 점점 줄이는 상황에서 취업문이 좁아지고 그것도 아예 사람을 뽑지 않는 셈이 되기 때문에 정말로 딱 우울증 걸릴만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는 성소수자들을 인터뷰할 때는 정말이지 그들의 고용불안이 얼마나 삶의 많은 부분을 압도하고 있는지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다.

동료들과의 진실게임

그는 여성이 많은 직장이 편하다고 여긴다. 일과 후에 술 많이 먹는 문화를 안 좋아하기 때문이다. 그가 다니는 곳은 다른 중학교보다는 남교사가 많지만 흡연을 안 하니 남교사들과 잘 섞이지는 않게 된다고 한다. 게다가 남교사들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부장급들이라 같이 놀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를 비롯한 젊은 교사들끼리 뭉치는 분위기다. 자연히 그는 젊은 여교사들과 친해졌다.

그러면 동료들 간에 오가는 이야기들이 궁금해졌다. 그는 학교라는 특성상 비혼 남녀 교사들이 많은데, 이 학교 남자 기간제들은 나이가 서른 대여섯 되어도 비혼인 사람들이 많아서 자기 차례까지 결혼 압력이 오지 않는 편이라고 한다. 그것도 너무 나이(결

혼적령기)가 지난 비혼 동료들에게는 크게 압력이 없거나, 술자리에서 이어준다는 말은 많이 하는데 정식으로 소개팅 제의를 하지는 않는 편이다. 오히려 회사보다 개인적이라는 것이다. 사실 교사나 공무원들을 인터뷰해보면 일반 회사의 직장인보다 결혼압력에 덜 시달리는 편이다. 어쩌면 고용이 확실히 보장된다는 안정성이 비혼으로 남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다 더 크게 제공하는 것 같다. 물론 이제 서른이 되어가는 깔끔한 인상의 그에게는 실질적인 압력이 더 가해지곤 한다. 그의 대처는 어떨까?

“애인없어요 이러면 왜 없냐. 헤어진지 얼마안됐냐. 그리고 소개팅을 시켜줄까 그러면 제가 뭐 짝꿍이 있어야 뭐 애인을 사귀지 이러면서. 그럼 이제 다른 선생님들이 어떤 사람 좋아하나 뭐.. 연상도 좀 괜찮아요? 이래요. 나는 그냥 어, 괜찮아요. 그럼 소개팅을 시켜줄까? 그냥 그런얘기는 많이 나와요. 근데 해도 제가 좀 커트를 할려고하죠.”

“이런 상황이 불편한데, 처음에는 우선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 거짓말 하는 건데 지금은 뭐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이것도 사회생활의 일환이고 인간관계의 일환이고 그럴죠.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솔직할 수만은 없잖아요. 어쨌든 불편하긴 불편하죠.”

그는 다른 게이들과 비슷하게 능숙하게 자신에게 가해지는 소개팅이나 맞선 요구를 뿌리치고 있었다. 하지만 의문이 들기도 한다. 왜 우리 모두는 거짓말에 익숙해져야 하는가? 왜 우리는 사회생활과 인간관계의 원활함을 위해 불편함을 감수하고 솔직함을 버려야 할까? 이 부분은 1차 조사에서도 누차 지적된 문제이다. 우리 스스로도 사소한 듯 넘기지만, 우리 일상생활의 큰 부분을 거짓말이 차지하고 있다는 피치 못할 사실은 우리 스스로 얼마나 큰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하는지를 반증하고 있다. 사생활에 대한 질문은 한국사회에서는 유독 스스럼없이 행해진다. 아무튼 그는 지금보다 좀 더 나이를 먹게 되면 보다 더 직접적인 결혼 압력이 작용할 것임을 잘 알고 있다. 언제까지나 젊은 싱글일 수는 없기 때문에.

“마음 맞는 젊은 선생님들끼리 얼마 전에 놀러갔다왔어요. 그런데 진실게임을 하자 이거지 그쪽에서. 20대가 저랑 남자, 제 친구 한명 있었고, 다 30대 결혼한 여자들 있고 막 이런데 진실게임을 하자네요. 알았다고, 나야 뭐. 질문이 나왔는데, 총각이냐 아니냐 그거부터 물어보는거. 아 난데요. 내가 이랬죠. 그런데 그것도 또 거짓말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여자랑 잔거라고 생각하니까. 다 거짓말이죠.”

진실게임은 매순간 계속 되고 있다.

학교에서의 (청소년) 동성애

그가 일하는 곳이 학교이다 보니 오히려 동성애 이야기는 교사들끼리 한다기보다 아이들과의 대화 속에서 더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다. 그는 아이들의 수업태도를 위해서

지적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 아이들이 그걸 보고 ‘게이들이 하는 행동’이라고 농담을 던질 때 순간 경직되기도 한다. 아무도 모르지만 그가 게이 교사라는 사실은 그에게 작은 문제는 아니다.

“요즘 애들 학교 분위기가 어떠냐면 TV에 굉장히 게이 코드, 게이에 대한 드라마에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어있어요. 애들이 중학교 때 되면 이성애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있으면 손을 잡는다거나 뭐 이렇게 있어요. 같이 붙는다던가 뒤에서 안고 있다던가. 그러니까 그런 친밀함의 표현이죠. 그러니까 여자 여고에서 되게 보이쉬한 애들이 뭐 동성애까지 그런건 아니지만, 인기가 있는 그런 것처럼 그것도 남, 녀 다 비슷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손 잡고, 살 맞대고 있으면 수업시간에 내가 너네 뭐하는 거냐고 ‘뚝바로 안 앉아?’ 딱 그러면 애들이, ‘호오. 이러면서 게이!’ 딱 그 소리가 나와요 대번. 니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는 알고 얘기하는거냐고 그러면 또 정확한 뜻은 또 몰라요. 애들은 그래요. 정확한 그거는 모르고, 그냥 속으로 참 나도... 내가 그건(게이)데 애들한테 뭐하는건가...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학교에서 따돌림 당하는 청소년 성소수자(로 여겨지는 학생)들도 있어서, 그는 그를 놀리는 다른 학생들을 야단치기도 한다. 나는 아래의 대답을 듣고 소수자로서의 그의 경험이 소중한다는 생각을 했다.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 교육의 일부로 포함하는 교사들이 몇이나 될까?

“우리반 애, 자연 뽕이라 그러죠? 개가 한명 있어요. 개가 있어서 정말 걷는 것부터 말투와 손짓과 그래요. 완전히 철철 넘치는데 안타까운데 개는 집안이 너무 불우하고, 학교 다닐 의지도 별로 없고. 안타깝죠. 이제 성교육 시간에 야동 얘기를 하고 선생님이 그랬나봐요. 그런데 한 친구가 ‘선생님! 게이도 야동 보나요? 그랬대요. 상담선생님이 그럼 게이도 사람인데 보겠지. 딱 그러니까. 그럼 채도 보겠네요?’ 막 애들끼리 놀리고. 이래가지고 개 놀린애들 내가 반성문 쓰게 하고 막 그랬거든요. 중고등학교는 저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자신 또래집단보다 살짝 뭔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애들은 자신보다 좀 떨어진다 생각하는 애들은 굉장히 공격의 대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내 친구들이 이러니까 편승해서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서. 아이들한테는 왜 애 여성스러운 것 때문에 놀리냐. 라고 하기보다는 너희들하고 똑같은 사람이고 너네들보다 못난게 뭐가 있는데 너네들은 뭘 그렇게 놀리냐. 너네들은 이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놀리고 그러면 안된다는 뭐 그런쪽으로 유도를해서 얘기를하죠.”

성교육, 교사윤리

예전에 티지넷이라는 레즈비언 사이트에서 한 예비교사가 레즈비언으로서 윤리적으로 교사를 할 수 있는지 진지하게 질문한 글을 읽게 되었다. 그 이후 교사들을 만나면 그와 비슷한 질문을 던지곤 했다. 그는 간단하게 대답했다. 교사윤리와 동성애자 정체성은 상관 없다는 것이다.

“내가 남자를 좋아한다는게 윤리에 어긋난다는 생각을 해본적이 없고요. 정말 뭐 남녀 관계에서

도 윤리에 어긋나는 행동 많잖아요. 근데 뭐 내가 꺼리길게 없으니까 아이들 가르치는데도. 내가 뭐 그 아이들한테 자 동성애는 이런거다 주입하는것도 아니고 전혀. 근데 그거잖아요 이래요 여자선생님들도 남자애들 좀 크고 남고에 계시던 여자선생님들 보면, 떨어져 나 개보면 떨어져. 나 남자로 가끔 생각되 이렇게 느껴지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가끔씩 그런 느낌 갖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개랑만 뭘 안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왜 동성애자 교사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걸까?

“동성애도 교육에 의해서 주입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성적체성도 교육 때문에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알고보니 그는 학교에서 성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다. 나는 그에게 다른 나라에서 하듯이 성적지향이나 정체성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는지 물어보았다. 그의 대답은 좀 의외였다.

“아직 중학생들한테는 좀 아닌거 같아요. 저 입장에서는 왜냐면 뜬금없는 얘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 애들은 성적지식이 다 완전해도 없는 상태에서 무턱대고 그걸 넣어버리면 더 혼란스러워 할 수도 있을거 같아요.”

다시 생각해보니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를 성교육에 포함하는 것이 제도화되지 않는다면 한 명의 게이교사가 임의로 넣기에 그의 표현대로 정말 뜬금없는 일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한 편으로는 청소년이 여전히 미완의 존재라는 인식이 학교의 교사들에게는 정말 공고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가 학교에서 커밍아웃한다면 어떨까? 학교에 커밍아웃한 교사들이 자연스럽게 근무하고 있다면 성교육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안에 동성애는 자연스러운 일부로 포함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커밍아웃

어디나 그렇듯, 아직도 우리 사회 일터에서 동성애에 관한 이야기는 별로 나오지 않는다. 사람들의 머릿속에 크게 인식되어있지 않은 때문일 것이다.

“그냥 뉴스 이런데 나오면 보다가 뭐 그런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말을 안하던가 뭐 개도 오죽하면 얼마나 힘들겠어 오죽하면 그러겠어.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은 많이 약간 그래도 너그러워지는 편이거든요. 그냥 내 얘기가 아니고, 그런 얘기만 나와도 내가 그 속에 속한 뭔가가 있으니까 그냥 은근히 불편한거죠 은근히.”

그는 직장에서 커밍아웃 한 적이 없다. 선불리 커밍아웃하면 재계약 되지 않을 위험도 있고 해서 굳이 알려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아니,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굳이 그 사람들에게 알려야 할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워낙 보수적인 집단이고, 바로 잘못했다가 짤릴 수도 있는 입장이고, 그리고, 내가 교사가 아니고 그냥 일반 회사를 다녔더라도 네, 저는 감당 못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겠지만 물론, 또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신경을 많이쓰거든요. 평판이나 뭐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혀, 플러스가 안될 게 좀 생각되기 때문에 저는 할 생각은 없어요 굳이.”

성소수자들은 대부분 자신의 성정체성을 밝히면 직장에서 전혀 득될 것이 없다고 여긴다. 사실 그것은 때에 따라 직접적인 해고 위협이 될 정도로, 내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은 한 순간에 사회적 평판을 깎아내리고 한 순간에 문제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다.

그럼 성소수자들은 이 답답한 상황을 어떻게 풀고 있을까? 그는 쉬는 날에 무엇을 하고 지내는지 물어보았다. 놀토가 낀 주말은 어머니를 뵈러 고향에 다녀오곤 하지만 그 외의 주말에는 일반 친구들보다 게이들을 더 자주 만나는 편이라고 한다. 아무래도 스스로를 쉽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상대여서 일 것이다.

“스트레스가 풀리고 이런 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감대가 많이 형성 되잖아요. 물론 일반 친구들은 있으면 개넌 뭐 여자친구 얘기하고 이러면, 나도 그런 식으로 다 얘길 하지만, 마음은 불편하잖아요. 내가 애네들한테, 이쪽 친구들하고 만나면 정말 뭐 얼마 전에 나 채팅해가지고 남자랑 그냥 원나잇했어, 그런 얘기도 할 수 있는거고.”

노후 보장으로서의 결혼

나조차 20대 후반에 결혼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보진 않은 것 같다. 막연한 두려움과 함께, 그래도 아직은 연애가 더 좋다는 생각을 하곤 했다. 결국 우리의 고민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레 변화하곤 한다. 20대 후반의 그에게 결혼과 노후, 미래란 어떤 것일까? 딱 그의 위치에 서서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해봤다.

“외로움일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보장이 안되잖아요. 지금 이렇게 젊은데도 사람 만나기가 이렇게 어렵고, 뭐 4~5년씩 연애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 난 당장 없고, 나이 들어서 또 파트너를 만날지도 뭐 불확실하고, 부모님이나 가족들이나 보면 정말 자식이라도 있어야 놓고 병들었을 때 의지라도 되고 뭐가 있잖아요. 지금 근데 나이가 들어서 아무것도 없으면 믿을 건 돈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거죠.”

“우선 부모님은... 제가 남자랑 살 거 아니에요. 애가 둘이 그건 아니겠지. 아니 모르겠지만. 애가 왜 둘이 살까? 그거부터 이제 엄마를 이해를 시켜야되고, 글썄요... 그냥 둘이 돈 모아서 더

넓은 집에서 같이 살기로했다고 할까요? 방을 따로따로 우선 마련을 해둘 계획이에요. 남들이 보기에 침대 한칸 한칸은 있어야겠죠. 사회에서도...속으로 많이 속상하겠죠. 그.. 경조사 그런 것들도 있겠죠.”

“이런 거는 많이 생각하죠. 정말 여자하고 결혼을 해야되지 않을까? 그냥 내가 진짜 어렸을 때 부터 지금 생각해 보면 남자한테 관심이 있는거 같기도해요. 근데 내가 여자를 좋아한 적도 있는 거 같아요. 한 번도 사귀어본적은 없지만. 제일 문제는 정신적인 것 보다는 또 결혼생활이 유지가 되려면 섹스가 되어야잖아요. 그래서 그거에대한 거부감이 아니라 두려움. 설 수 있을까? 발기가 될까? 이렇게 짧다면 짧은 기간동안 남자들 사귀면서 정말 나이가 들었을때 그 있잖아요. 사람이 없으면 난 어떡하지? 내 노후대책은 결혼밖에 없는건가? 확실한 노후대책은 결혼이죠. 여자와의 결혼. 그 속에서 그냥 이제 평범한 가정 속에서 그렇죠.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거. 아들, 딸 낳고 자식낳고, 개들이 그면 또 날 아버지라고 보살펴 줄테고. 가족이죠 가족.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나 파트너밖에 없는데, 파트너도 또 딱 떠나버리면 정말 그 법적인 구속력도 없이. 그냥 짐싸고 나가면 끝이네요. 정말 말 그대로. 거기서 오는 그런 것들... 정말 힘들거 같아요. 지금도 애인이랑 사겼다가 헤어지면 이렇게 힘든데...”

노후대책이 무엇인지 궁금했을 뿐인데, 그는 여자와 결혼해야 하지 않을까? 라고 대답했다. 어쩐지 나는 거기에 설불리 반박하기 어려웠다.

20대, ‘안정’이라는 꿈

꼭 여성과 결혼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지금도 그는 저축을 열심히 하며 내 집 마련을 꿈꾸고 노후에 대해 준비한다. 다만 늙어서 아무도 없다면 정말 여성과라도 결혼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 사회가 20대에게 어떤 사회적 성취를 허락하지 않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미 내집 마련이나 안정적 노후를 꿈꿀만한 여지가 너무 적어졌다는 조건 아래서 그의 고군분투가 걱정되는 것은 사실이다. 지금 이 사회에서 이런 목소리들은 과편화되어 있다. 없어져 버린 사회보장과 양극화, 치솟는 집값 등이 여러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 어찌면 20대의 노동은 지금 이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현안일지 모른다.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는 삶이라면 이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할까? 특히, 20대, 비정규직, 성소수자 노동자에게 허락되는 최소한의 사회보장이란 ‘결혼’을 통해 가족의 테두리 안으로 입성하는 것 밖에 없는 것일까?

그는 사회에서 고립되고 싶어하지 않았다. 가능하면 평균적으로 인생을 살고, 평범하게 삶을 꾸려가려고 하는 여러 사람 중의 하나일 뿐이다. 가능하면 좋아하는 일을 계속하고 싶어하고, 아직 본격적으로 닥쳐오지는 않았지만 결혼 문제나 미래에 벌어질 것들이 다소 막연한 걱정거리로 등장하는 인생의 시기에 살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의 인터뷰를 통해 나는 유독 ‘안정’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되었다. 그는 어찌면

안정되고 싶어하는 것 같다. 그것은 어쩌면 그가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안정’되지 못할 것이라는 현실이 더욱 부추기는 욕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여전히 노후대책이 ‘여성과의 결혼과 자녀 출산’이라는 세상의 공식에서 우리조차 벗어나기 쉽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

::네 번째 사람, 생산직 레즈비언 히씨 이야기

레이가

‘히’(가명)는 30대 레즈비언이다. 그녀는 전자부품회사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는 노동자다. 그녀가 일하는 공장은 수도권 인근에 있다. 이곳에서는 부품을 만드는 일, 끼워 넣는 일, 제품을 검사하는 일 등을 동료들과 함께 각자의 일을 나눠 맡아서 하고 있다. 그녀는 꼼꼼한 성격이라 제법 일이 성격에 잘 맞는다. 히의 직장은 여성이 많은 곳이다. 처음에는 생산직 중에서도 큰 사업장을 다니려고 했지만, 다른 곳에 비해 여성이 많고 직원 수가 적은 현재의 직장을 선택했다. 4-50대의 여성들이 자녀를 어느 정도 양육한 후에 재취업해서 일하고 있거나, 이주노동자들이 함께 일하고 있다. 지난 1차 성소수자 노동권 실태조사에서도 성소수자의 직장선택에 있어 여성이 많고 여성친화적인 직장을 선호하는 경우가 있었다.

“잔업은, 그런데 그 회사가 약간 특이한게 잔업을 약간 사람이 라인에서 갑자기 많이 빠지게 되면 잔업을 안 하는 회사예요. 아줌마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잔업을 안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었어요.”

“주말에는 겨울 되면 풀. 단 일요일은 아줌마들이 많아서 일요일은 철저히 쉬는 회사예요. 그거 하나 마음에 들어서 그냥 다니고 있어요.”

“생산직은 그냥 사무직을 하기에는 내가 아직 워드나 컴퓨터 관련 실력이 너무나 부족하고 그러는데 생산직은 원래 내가 하던 관련 업무가 좀 있었으니까. 워낙 생산직에서 일을 해봤던 사람이고. 전자업계에서.. 섬유업계에서 일을 해봤었는데 섬유업계는 너무 힘들고. 그래서 3교대라 너무 힘들어서 안하고 전자업계쪽으로만.”

히의 직장에서는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하루에 11시간을 노동한다. 조금 일찍 퇴근하는 조건으로 점심시간 단축하여 식사를 하면서 40분정도 쉬고 그 이외에는 꼬박 라인을 돌려야 하는 고된 업무이다. 생산량과 잔업이 많은 겨울에는 12시간을 일한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3교대나 섬유업계보다는 낫다며 일을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게 해야 나중에 자신의 동성애가 밝혀졌을 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 그녀의 판단이다. 생산직은 기계든 조립이든 섬유든 몸이 아픈 경우가 많은데 회사에서 업무로 크게 다치지 않는 이상 산재나 보상처리는 힘들다고 한다. 다만 병원을 갈 시간을 조금 보장해 주는 정도인데, 그 방법은 특정한 날에 잔업을 하지 않도록 해주는 정도라고 한다. 일하고 있는 인원도 많지 않아 노동조합도 존재하지 않는다.

- 여성스러움에 대한 강요

히의 노동은 체력적으로 매우 힘든 일임에는 분명하다. 히의 바램은 그냥 건강히 회사 다니는 것이라고 한다. 특히 요즘은 업무량이 늘어나서 오랫동안 일한 사람들도 힘들어 한다고 한다. 그러나 직장에서 히를 괴롭히는 것은 고된 노동이 아니라 간섭이다.

그녀가 하는 일은 팀워크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일의 진행을 위해 동료들과 각자 나눠진 일에 대해 이야기해야 하기 때문에 대화를 한다고 한다. 그러나 깊게 소통한다기 보다는 간단하게 의사소통을 하는 정도이다. 이런 대화 속에서 동료들은 그녀의 복장이나 행동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한다.

“그리고 그쪽에서 옷차림이나 말투, 행동이 남자 같다고 그런 말들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관리자들 있긴 있는데. 관리자들은 뭐 그런 이야기는 없어요. 주위 동료들이 주로 그런 이야기. 나이 드신 분들이 좀 그런 이야기. 그만큼 열심히 일하려고 노력하니까. 요즘에는 일부터 약간 일부터 여성적으로 약간 활동을 (해요)”

“걸음걸이를 약간 여성스럽게 걷고. 어쩔 수 없이. 일 할 때하고 쉴 때의 걸음은 약간 다르니까. 일 할 때는 좀 활발히, 터프하게 일처리 하니까.”

“일터에 핑크를 허하라는 그 구호가 마음에 참 와 닿아요. 왜냐면 행동이나 옷차림에 대해서 너무 제약을 하려는 것들하고 앤 여자 아니야. 앤 남자야. 그런 것들.”

레즈비언들이 구직에 있어서나 직장생활에서 여성은 복장이나 행동 등 행동거지가 여성스러워야 된다는 편견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남자 같다’ ‘왜 치마를 입지 않냐’와 같은 일상속의 간섭은 결국 ‘혹시 성소수자 아니냐’는 의심과 아웃팅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여성스러움에 대한 강요는 긴 시간 상당히 집요하게 일어난다. 상대의 기대에 부응해 주는 노력을 함으로써 이러한 위협을 비껴나가고자 하기도 한다.

- 커밍아웃

“지난번에 내가 한번 김조광수님 얘기 한 적이 있는데 동성결혼 이야기 했는데 좀 되게 좀 약간 좀 과민반응? 어쩔 수 없냐고. 우리나라 법률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 아니냐고. 안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그냥 웃고 나는 넘어갔지만 속으로는 아..... 아직 멀었구나.”

“‘결혼은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식. ‘우리나라에서는 힘든 거 아냐? 그런 분위기. 그래서 아..... 알았구나. 그리고 내 옷차림에 대해서도 너무.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치마입고 이런

거는 안 맞고, 그냥 바지에다가 그냥 편하게 남성스럽게 입고 편하게 청바지 입고 다니니까.”

성소수자가 내 주변에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나와 동떨어진 뉴스나 텔레비전에서만 존재하는 사람 이라는 생각 속에서 나온 부정적인 말들은 일터의 성소수자를 위축시킨다. 2006년에 레즈비언권리연구소에서 실시한 2006 국내레즈비언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레즈비언들이 커밍아웃하기 가장 어려워하는 대상이 직장 동료임을 알 수 있다. 공적영역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크기 때문이며 이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생계와 맞닿아있고 지속적으로 마주쳐야 하는 직장 동료에게 커밍아웃은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다.

	빈도(명)	비율(%)
그 누구에게도 커밍아웃하기 않음	6	3.0
이반 친구	139	70.2
부모	28	14.1
자매, 형제를 포함한 친인척	55	27.8
이성애자 친구	150	75.8
직장동료	24	12.1
모든 주위 사람들	7	35.4
기타	15	7.6

<표> 귀하가 커밍아웃했다면, 누구에게 했습니까? (해당항목 모두 표시)

- 2006 국내 레즈비언인권실태조사

“일부러 먼저 한번 꺼내보고, 일부러 좀 사람들이 어떤 생각하고 있나 좀 알아볼 필요가 있으니까. 커밍아웃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쪽은 다 거의 헤테로(이성애자)고, 나는 지금 나 혼자 이렇게 되어있는데 할 수가 없으니까, 가장 막내고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해꼬지 당할 수도 있고 좀 따돌림 당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있는 거거든.”

“알려질..... 사실 아웃팅에 대해서는 겁은 안 나는데 좀 약간 사람들의 대우가 달라질까봐, 날 너무 겁낼까봐 그게 겁나는 거지. 지금 날 대하고 있는 것 하고 밝혀지고 났을 때 그것을, 홍석천의 커밍아웃 자료들을 읽고 약간 살짝은 겁을 먹은 상태예요. 그렇지만 열심히 한번 살아보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직장에서의 커밍아웃은 그저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고백으로 그치지 않는다. 우리 사회는 이성애를 제외한 성적지향을 도덕적인 것으로 바라보고 재판하려고 한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해고까지 나타나는데 대표적으로 홍석천의 경우에 그는 커밍아웃 직후 자신의 일을 모조리 잃어버렸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원인을 그가 동성애자라는 것에

서 찾았고 그에게 내려진 해고를 아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폭력과 괴롭힘에 대해서도 자유스럽지는 않다. 성소수자는 자신이 사회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다는 사실과 차별받는다라는 감정을 잘 알고 있으며 직접 경험해 보지 않았더라도 동일한 정체성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의 사건 사례들을 보고 들으면서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간접적인 경험을 해 왔다. 언론이나 매체에서 다루어지는 성소수자는 폭력의 피해자로 나타난다. 이런 간접 경험을 통해 자신도 특정한 상황이 됐을 경우 예외가 될 수 없음을 인식하게 된다.

서울=뉴시스】홍세희 기자 = 최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묻지마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돼 동성애자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A씨는 지난 4일 서울 종로구의 한 골목길을 애인과 함께 지나다가 '묻지마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트위터에 "어제 오전 1시 20분께 종로 모 노래방으로 가는 골목에서 나와 애인이 신원불명의 남자 셋에게 일방적으로 집단 폭행을 당했다"며 "같은 피해를 당한 사람은 멘션을 달라"는 글을 남겼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수법의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자도 속출했다. 국내 동성애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 인근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잇따랐다.

- 뉴시스, 2011. 11. 8 <종로서 동성애자에 '묻지마 폭행'...불안감 증폭>

“서울에 있는 친구들 보러간다고. 어느 한분이 그 동성애자 이 뻐지 보고 나서 그 사람이 저희 쪽에 한명이 그걸 봤어요. 자기 나름대로 검색을 해봤나봐. 이거 뻐지. 이거 뻐지를 보고 절 잠깐 의심하더라고요. 동성애... 애도 그거 아니니?”

- 동성애에 대한 정보 없음

히는 최근에 레즈비언으로 성정체성을 확립했다. 다양한 매체와 정보의 홍수라고 표현하는 현대사회에서도 다종다양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대한 정보는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인터넷속의 성소수자 커뮤니티는 아웃팅의 위험 때문에 폐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잘못된 정보를 사실인양 늘어놓은 사이트나 게시물도 많다. 텔레비전이나 잡지 등 대중매체에서 종종 등장하기는 하나, 그마저도 인생극장에 나올법한, 어디엔가 존재하는 서글프고 독특한 존재로 묘사된다. 최근에서야 드라마와 영화를 통해 동성애가 다양하게 다루어지기 시작했고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성소수자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표현하게 되었다. 2000년에 사회에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홍석천의 커밍아웃은 동성애자라는 존재를 대중의 수면위로 떠오르게 했다.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기는 하나 이성애에 대한 연애기법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모

든 문화와 개인 간의 교류, 심지어 상품 판매에 까지 이성간의 연애가 없으면 이야기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현실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정보는 걱정하고 찾아보지 않으면 접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특히 타인의 성적지향을 존중해야 된다는 것은 어디에서도 가르쳐주지 않는다. 서구에서는 초등학교부터 성적지향에 대한 교육을 시작하고, 캐나다에서는 교육청에서 직접 이와 관련한 자료를 만들어 부모에게 배포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대조적이다. 교과서엔 철수와 영희는 존재하지만 정미와 수정이의 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전에는 모르고 살았는데 왜냐면 기독교 미션스쿨을 중학교... 거의 초등학교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런 교육을 거의 받은 기억도 없고, 들은 기억도 없고.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죠. 동성애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어요.”

“10대 때에도 약간 예쁜 여자애들이나 관심 있는 여자애들 계속 쳐다봤던 기억들이 있어요.”

“아마 영화나 아니면, 아오이 그런 쪽 만화를 보다가. 아, 그리고 좀 약간 빨리 알았던 거는 홍석천의 커밍아웃. 동성애자라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홍석천이) 커밍아웃을 했을 때 거부감은 없었어요. 좀 약간 불쌍하다. 그때정도에 내가 알았으면 아마 결혼 안했을 거야. 2000년대 전에, 1999년 정도에 좀 알았으면 결혼은 아예. 아마 동인련 쪽에 빨리 가서 같이 활동하지 않았을까.”

- 기혼이반

‘기혼이반’ 말하자면 동성애자가 이성과의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동성애 커뮤니티에서는 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선이 많다. 동성애를 포기하는 것으로 보거나 사랑하는 동성연인에 대한 배신 혹은 현재의 이성파트너에 대한 불륜이라고 생각하는 등이다. 나이가 들수록 현실의 벽을 이기지 못하고 결혼을 위해 이별하는 이야기는 레즈비언 커뮤니티에서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실제로는 결혼 이후에 자신의 정체체성을 깨닫거나, 동성애자로 살아오다가 이성애자로 정체화 하거나 사회나 가족의 압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혼하는 등 다양한 모습들이 존재한다. 기혼이반은 동성애자들 사이에서 쉽게 터놓을 수 없고 이해받기 어려운 또 다른 낙인이다.

“진짜 (이야기)해도 될까? 사실은 저 결혼했었어요. 아이도 낳았었고. 그런데 지금은 이혼. 지금 소송 끝났고 떨어져 나온 거고 남편에게도 커밍아웃을 했는데 너무 비아냥 심하고 호모포빅 해서 아 이 사람은 아니다. 그래서 나와 살았죠. 사실 내가 종가집 맞먹느리여가지고, 아이들이 린치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고, 아이들이 린치를 당할 수 있잖아요.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아예 그냥 나와 버렸어요. 내 가족을, 아이들을 사랑하긴 하지만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최소한 5년 이상은 알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내 얼굴 기억하기를 기다리느라고 5년 동안 참고 살았다가 아이들 어느 정도 크니까 이제.”

“(남편이) 너는 나한테 이렇게 양심적이지 않다.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나. 그 사람이 워낙 나한테 너무나도 잘못을 많이 했거든. 너무나도 차별대우고, 그쪽들도 시누이들하고 나하고 차별을 너무 심하게 했고, 동서, 그때 동서도 있는데, 그 사람하고 나하고도 차별을 했어.”

히는 부모님 친구의 아들을 중매로 만나서 3개월 만에 결혼했다고 한다. 당시에 동성애에 대해 알지 못하는 상태였고, 자신이 레즈비언인지 생각조차 못 했었다. 어른들이 추진하는 결혼이라 크게 저항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었다고 한다. 10년 동안 아이들을 낳고 기르며 주부로 살고 있던 히에게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감정, 사랑하지 않는 남편, 결혼생활 속에서 나타난 괴로움과 외로움들은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하다가 일을 그만 둔 거예요. 몸이 갑작스럽게 아프더라고요. 그만뒀다가 아이생기고. 아이 낳고 키우다가 나중에 갑작스럽게 나에 대한 생각을. 너무 이 생활(주부생활)에 진력이 나 버려서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다보니깐 아 이런 사람이었구나.”

“거의 10년 동안 주부로 살았을 때 어느 순간 깨닫는 출발점이 큰아이와의 느끼는 벽. 이상하게 정감이 안 갔어. 작은아이는 여자애라서 좀 개한테 느끼는 게 좀 다르더라고. 소통에서도 좀 느끼고. 웬진 모르게 벽이 느껴졌어.”

“직장에서도 아이가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커밍아웃을 하면 내가 정말 나쁜 사람이 되요. 그래서 커밍아웃 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나중에 어쩔 수 없이 밝혀지게 되면 밝히겠지만 커밍아웃을 더 이상 하지 않기로.”

결혼과 출산, 자녀 양육은 여성들에게 경력의 단절을 가져온다. 남성들에게는 가족에 대한 부양의무를 지우게 하는 사회적 편견이 작동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돌봄노동 대신 직장에서 자신의 경력을 쌓아갈 수 있는 한편 여성의 경우에는 임신, 출산과 양육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중단하고 가정 안에서 돌봄노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2008년부터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어 여성가족부에서 경제활동, 즉 여성의 구직과 이를 위한 자기개발 사업 등을 벌이고 있다. 경력단절 여성이 사회에서 다시 기반을 잡아야 할 경우, 남성들 또는 계속해서 일을 해왔던 여성들에 비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는 자신의 정체성을 인정하며 사는 삶, 타인이 아닌 자신의 뜻대로 사는 삶이야말로 정신적인 안정과 행복을 준다고 했다.

“그런데 (내가 나를 부양해야 된다는 부담감) 이것도 내가 생각을 안했던 것은 아닌데 그래도 나 혼자서 이렇게 하고 내 삶을 내가 이렇게 챙긴다는 것. 내가 그쪽에 맨 날 내 삶이 다른 사람에게 의해서 좌지우지 당해야 되었던 상황이었으니까. 그 상황이 어느 날 힘들더라고요. 여성 쪽으로,

결혼한 사람들이 그런 부담들이 있어서. 그런 면들이 좀 있죠.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 삶이 좌지우지 당해야 되는.”

“현실적으로는 좀. 그 대신 오히려 정신적으로 안정을 좀 찾은. 그전에는 계속적으로 좀 불안했고 힘들었는데 내 자신이 정체화 되니까 더 편해졌어요. 오히려 자신에게 책임감이 생기고 내 삶을 내 뜻대로 펼쳐나가는 게 더 쉬워지고. 정신적으로 더 편해졌어요.”

— 정체성과 삶의 공간이 동떨어졌을 때

히는 지방의 중소도시에서 산다. 자신의 직장도, 집도, 가족도 모두 그곳에 있기 때문이다. 히는 사람을 좋아한다. 그녀는 주말마다 서울로 친구들을 만나러 간다. 고된 노동 끝에 찾아온 쉴 수 있는 하루이지만 자신과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는 동성애자 친구들을 만나는 것이 더 좋다고 한다.

“주말에 올라오는 것은 그냥 그래도 집에 우두커니 혼자 있는 것보다 낫더라고. 아는 사람들도 있고 진짜 마음 편하게 나눌 수도 있고 반가운 사람들 얼굴도 보고. 오히려 그게 더 편하고 낫더라고.”

“그런데 그래도 다행히 거기 회사에 저하고 동갑인 친구가 나중에 들어오고 후배격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몇 명 있어서 같은 마을에서 살고 그랬던 사람들이 몇 명 있어서 좀 약간 좀 마을주민들이 있으니까 덜 외롭고 챙겨주는 분위기가 있어서.”

그녀에게 지역과 일터는 연결되어 있다. 혼자 살고 있는 그녀에게 같은 마을, 인접한 마을 동료들은 힘이 되어주기도 하고 외로움을 떨쳐 주기도 한다. 그러나 레즈비언이라는 정체성을 충분히 구현하며 살아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동성애자 커뮤니티는 서울과 부산 같은 대도시에서 집중되어 있다. 대도시는 사람이 많아 같은 성소수자들을 만나기에도 용이하고 대중 속에 자연스럽게 섞여 익명성을 보장받기도 좋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자신의 정체성을 나누고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와 감정을 해소하기도 한다.

그와 반대로 많은 인간관계로 서로서로 엮여져있는 지역사회는 아웃팅의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동성애자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을 드러내기가 힘들다. 눈에 띄는 동성애자 커뮤니티의 숫자도 적을뿐더러 혈연, 지연, 학연 그리고 일터까지 엮여있기 때문이다.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왜냐면 그쪽에서도 지역 쪽에서도 몇 명이 게이다로 보면 몇 명은 있는 것 같은데 교류감이 좀 그런 게 없는. 외로움이 약간. 지역에 있는 게이커뮤니티에서도 고립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같은 마을 직원들도 있고, 그분들이 내 아버지 얼굴도 알고 있는 상황이라 좀 약간 너무 쉽게 다가갈 수는 없고 약간의 작은 벽은 존재하고 있죠. 그냥 활동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다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트위터 하고 있고 그냥 그렇게만 관리한다. 그냥 약간 좀 특이한 사람으로 회사에서 찍혀있어요. 찍혀있어요. 요즘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인터넷이나 페이스 북이나 트위터로 그쪽에서 활동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쪽에 아는 사람들이 있고. 정보 같은 거 있어도 가기가 쉽지 않죠. 지방에서 사니까. 다 서울. 웬만하면 다 서울 쪽이니까.”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사실 제가 고등학교를 나온 지역이라서 사실 고등학교 동창들한테 어떻게 어떻게 되면 잘못되면 다 소문날 곳이라.”

생산직 공장 같은 경우에는 지대가 비싼 대도시에 위치하기 보다는 대도시에서 인접한 중소도시에서 위치한 경우가 많은 것 같다. 누구든지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갈 수 있고 그를 지지해 주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필요한 법이다. 하는 자신의 삶의 공간(주거와 일터가 있는)에서 서로 이야기를 터놓을 친구를 필요로 하고, 지역에 동성애자 커뮤니티가 있으면 참가할 의향을 가지고 있지만 중소도시에는 아직 커뮤니티가 발달되어 있지 않고 사람을 만나기에도 여의치 않아 고립감을 느낀다.

“(지역에 동성애자 모임이)있으면 나가서 지역 이렇게 해서. 그런 정보가 없으니까. 서울같은 데는 좀 큰 커뮤니티가 있어서 쉽게 들어가는데. 중소도시라...”

— 앞으로의 미래와 꿈

“그런 걱정엔 대한 계획도 있고 지금 조금 조금씩 회사에서 이제 안정화작업. 직장엔 대한, 내 작업에 대한 안정화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그러면 자격증 공부를 시작할 거예요. 운전면허부터 먼저 따고 공부 좀 해서 자동차정비사.”

“맨 처음에 왔을 때는 몇 명들이 들어오자마자 이직률이 좀 있더라고요. 아 여기는 오래있을 회사는 아니고 많이 있어봤자 2년 내지 3년 정도밖에 있을 회사는 아니다. 그냥 잠깐 생계를 유지하는 회사. 자격증 따고 나면, 회사 들어가고 나면 그때서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일요일 날 쉬는 것도 좀 나올 거고, 일하면서 부담도 다를 거고. 저는 자동차에 대해서 약간 관심이 좀 있어가지고.”

“앞으로 3년 안에 자격증을 따서 그러고 나서 사실 내년에까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년 안에 따서 회사를 그만두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정비소 그런 데로 지원해가지고 가려고. 오히려 그런게 나올 것 같고, 나중에 성소수자들의 자동차정비 한 15년 뒤나 20년 뒤는 자동차정비소 하나 차리고 싶고. 그럴 때는 성소수자들이 자동차정비 할 때 할인. 그것도 중요하더라고요. 성소수자

분들 돈 버는 게 적죠. 차별받잖아요. 미국도 그런 거 관련해서 좀 봤는데 차별받는다고요. 커밍아웃 하면 월급에서 차별받더라고요. 만약에 퀴어퍼레이드가 20회 정도 되면 그때는 내가 무료로 차량정비를 해줄 수도 있고, 그러면 좋잖아요.”

히의 목표는 자동차정비소를 차리는 것이다. 가족과 사회에 기대지 않고 본인의 힘으로 건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은 모든 성소수자의 꿈이다. 그래서 그런지 자신의 지식이나 기술로 일을 할 수 있는 전문직종을 선호하는 모습도 보인다. 나중에 안정되고 자동차정비소의 꿈을 이루게 되면 그 꿈을 통해 성소수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고 한다. 그리고 사는 곳 가까운 곳에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레즈비언 친구를 갖고 싶다는 소박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

노동과 삶은 어느 한군데도 연관되지 않은 부분이 없는 것 같다. 히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자유롭게 표출하고도 안전한 공간이며, 자신의 삶을 자신이 주체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환경이다. 억압과 폭력으로부터 자유롭고 자신의 삶을 타인과 함께 나누며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 그것은 모든 이가 바라고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것과 다르지 않다.

::다섯번째 사람. 레즈비언 비정규직 노동자 성순씨

레이가

직장에서 레즈비언을 만나보았다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는다. 레즈비언 또는 게이, 트랜스젠더와 같은 성소수자들도 당연히 이 땅에서 노동자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성순(가명)은 30대의 레즈비언 노동자이다. 그녀는 컴퓨터를 다루는 전문가이며, 사무직에 종사한다. 이 직종의 일을 한지 7년째 되는 숙련된 노동자다. 최근엔 일이 많아 밤 11시, 12시까지 철야를 해가며 일을 완수하기도 하고 퇴근하기 전엔 한번에 10분 이상 자리를 떠나지 못 할 정도로 노동강도가 세다. 하루에 수십 통의 전화를 받으면서 업무지원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을 하고 있다.

커밍아웃 혹은 원치 않는 거짓말

우리나라에서 일터에서 커밍아웃 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는 곳이며 하루의 대다수를 보내는 삶의 현장이기에 더더욱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기도 하다. 직장에서 동료들과 나누는 사적인 대화에는 연애 이야기가 다수 차지한다. 레즈비언에게는 가볍게 또한 집요하게 던져지는 연애에 대한 동료들의 관심은 정체성이 노출되지 않도록 지켜야하는 순간순간으로 다가온다. 레즈비언인 자신의 정체성을 감추기 위해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은 원치 않는 거짓말 혹은 회피이다.

"한번 밝히고 나면, 수위를 높여가야 해요. (사귀는 사람이)없다고, 없다고 하고 한참 지나고 나서 아, 이제 생겼다고 하면 약간 잠잠해져요. 또 한참 지나고 뭐 있냐고 물어 와서, 약간 더 진전이 있었다. 헤어졌다 이야기해줘야 한 풀 꺾이고... 점점 거짓말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런 이야기를 안 해줬으면 좋겠는데. 다들 왜 궁금해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때 그녀는 사귀는 사람의 성별만 바뀌어서 이야기한다거나, 대화의 흐름을 깨는 식으로 피하거나, 친한 이성 친구에게 동의를 얻어 그 친구를 모델로 삼아 연인처럼 이야기하기도 한다. 그녀가 자신의 사생활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 동료들은 서운해하고 답답해한다고 한다. 그러나 그녀도 기회가 되면 이야기 하고 싶다. 자신을 알고 지지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힘이 되기 때문이다. 커밍아웃 하고 싶었던 직장동료도 있었다.

"예전에 한분 있었어요. 명예퇴직을 하셨는데, 나이가 꽤 있었는데 혼자계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워낙 그 분이 이야기를 잘 들어주셔서 그랬던 것 같아요. 커밍아웃 할 뻔 했지만 안 했어요. 예전에도 어느 단체 같은 곳에 가서 정말 친해도 내 이야기를 못하니까 힘들었는데, 전에 한번 그 때 같이 활동하신 분을 만났는데 성소수자 행사하는데 오셨더라고요. 그분을 나중에 만나면 이

야기 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녀의 직장생활에서 본인의 이야기를 못하고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제일 힘들다고 한다. 직장 동료들이 게이, 레즈비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도 그녀는 긴장한 상태로 지켜본다.

"회의자리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여자직원들끼리 서로 챙겨주고, 연휴기간동안 보고 싶어서 어떻게 하냐는 이야기를 하면 둘이 사귀냐는 얘기도 나오고. 동성연애자냐고 해요. 그러면 옆에서 누군가가 '동성연애자'가 아니고 '동성애자'라고 용어를 정정해 줘요. 나는 긴장된 상태로 허허 웃고 있어요. 요즘엔 점점 많이들 동성애에 대해 아는 것 같아요."

결혼, 하거나 하지 않거나

동성애자들은 파트너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혼 관계에 있더라도 모두 결과적으로는 결혼을 하지 않은 개개인으로 비추어진다. 비혼의 남성들은 결혼을 하지 못해 일정 이상의 승진의 제약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가족을 책임지지 않는 남성은 회사에서도 책임감이 없다는 황당한 편견이 부당함을 낳은 것이다. 하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 것 같다.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결혼하면 기뻐해주는 건 나중인 것 같고, 책임자들 중에는 '이제 일을 어떻게 나눠야 하나. 이제 아기 가지면 그만 뒤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반응 보여서 놀랐어요. 예전같으면 결혼하면 회사를 그만뒀다는 식으로 직접 반응해요. 결혼하는 당사자도 동료들에게 미안해하고. 이상하더라고요. 결혼 안 하면 안 한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결혼 한다고 그러면 싫어하고. 그 사람의 공백기간 동안 자기 할 일이 늘어나기 때문에 자기한테는 피해 주지 말라는 거죠. 하지만 일은 똑같이 하니까 일하다가 유산하신 분들도 있고... 결혼하면 승진 더 못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자들은."

결혼한 여성은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문화. 그리고 인사나 제도는 이를 전혀 뒷받침 해주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결혼하지 않은 여성들에게 보내지는 시선도 마냥 곱지만은 않다.

"굳어가는 나의 캐릭터는 내입으로 담고 싶지도 않지만 결혼안하는 여직원이니까 노처녀 이런 이미지로 나중에는 계속 굳어갈 테니까 걱정하면서 놀리고 그런게 불편해요. 비하 발언이나 성폭력적이진 않지만, 남자든 여자든 결혼 안하면 이상한 사람. 애가 뭔가 이상한거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니까."

직장내에서 여성에게 강요되는 이미지나 성역할은 아직도 존재한다. 무척이나 고루하고 누구나 모두가 알고 있지만 바뀌지 않는 무언가. 여성적인 복장, 행동거지, 해야 한

다고 생각되는 일 등이 그런 것이다. 레즈비언들에게 직장에서 수행받고자 하는 이러한 이미지와 성역할은 수많은 고민들로 남아있다.

"압박을 많이 주죠. 그래도 나는 곳곳히,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여자분들은 다 여성정장이나 치마 입으시고 화장도 하고 손님 오면 차도 내오고 막 그래요. 나는 다 안하죠. 전화는 워낙 많이 오니까 자리가 비면 서로 서로 받아줘서 그런게 없어요. 접대나 차 한잔 같은 경우는 예전 직장에서도 그런게 있었어요. 심하게. 무조건 여자가 해야 되고 남자는 할 일이 없어도 가만히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내가 하기 싫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이런 거 하고 싶지 않다.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 내 일이 되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누가 어린 사람, 여자가 하는 일이라고 정해놨어요?"

정규직, 비정규직, 과연 안정적인게 뭘까요?

그녀는 최근에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옮긴 독특한 케이스다. 오랫동안 한 직장에서 머물다보니 자기개발에 대한 답답함도 느껴졌고, 조금 더 시간 여유가 있으면서 공공의 일을 하는 것 같은 현 직장으로 직장을 바꾼 것이다. 비정규직을 경험해 보니 그전에 알지 못했던 불안감이 상당하다 했다.

"전에는 정규직이고 매년 연봉협상을 하는데 형식적인 거예요. 그래도 그건 재계약은 아닌 거잖아요. 지금은 매년 재계약을 해야 되는 부담감. 그런게 생겼죠. 보수나 이런 것은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앞으로는 점점 생길 것 같아요. 나는 이곳이 일반 사기업보다 더 인간적이지 않을까 하고 왔는데 요즘은 점점 더 사기업화 되고 있어요.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요."

요즘은 사회 전반적으로 정규직 줄이고 계약직이나 파트타임으로 쓰고 있는 추세다. 그녀는 일반 사기업보다 더 공공적인 현 직장에서도 그러한 비정규직화는 마찬가지라고 했다. 높은 직급의 사람들을 명예퇴직으로 그만두게 해 놓고, 그 자리를 계약직이나 외부 파견직원으로 채워 저렴하게 노동자를 사용하려고 한다. 또한 이들을 쉽게 교체될 수 있는 사람으로 취급한다. 이러한 현상을 바라보면서 그녀는 마음가짐부터가 달라진다고 한다.

"정규직이었을때도 나는 파견으로 다른 지역으로 나와 있었고, 저는 정말 애사심이 없는 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회사의 얼굴이다 라는 생각으로 되게 열심히 했었어요. 지금은 열심히 하긴 하지만 그래도 무리는 하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해요. 회사나 조직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지 라는 생각은 덜 드는 것 같아요. 내가 언제 나갈지 모르고, 사용하는 사람들은 나를 사람으로 안 대하고 이사람 없으면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야지라는게 보이니까요."

"내가 간 자리가 사람 구하기가 어려운 자리예요. 그럼에도 직장에서 언제든지 사람을 바꿀 수 있다라는 마인드가 있어요. 너 그만두면 우리는 다른 사람 채용하면 된다. 그건 그 사람 소중한

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주변 동료들이 많이 그만두기도 했어요."

"최근에 어떤 이야길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정규직이었는데 회사의 어떤 문제를 이 사람이 책임지게 해서 내보낸 거예요. 잘 다니고 있는 사람을 회사에서 나가라고 해버린 거죠. 뜬금없이. 만약 그렇다면 과연 안정적인게 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자르기 힘들려면 정규직이 낫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경험해 보고 나니 아무리 차이가 없더라도, 정규직의 소중함을 몰랐네요. 내가."

그녀는 노동자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뚜렷히 인식하고 있다. 학생 때는 노동자로서 노동자대회에 참석하고 싶어 했고 몇 해 전부터 참석하여 활동하고 있다. 또 언젠가는 노동조합에 가입해서 활동하기를 희망한다. 하지만 현재의 직장은 노동조합이 없어서 아쉽기만 하다.

해외에는 성소수자 노동조합이 존재한다. 하지만 정체성조차 밝힐 수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하게도 성소수자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녀는 아웃팅 등 직장 내에서 문제가 있을 때 노동조합은 최소한 조언자와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찾아 갈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조력자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노조에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고 활동하는 날이 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수많은 정체성들이 한 명의 노동자에게 존재한다. 성소수자, 여성, 비정규직, 그리고 조금 더 나은 노동환경과 직장생활을 염원하는 정체성을 가진 성순에게는 오늘도 출근한 일터에서 많은 고민들과 느낌들이 교차할 것이다.

앞으로 그녀는 꾸준히 일 하면서 정규직이 되어서 과도한 업무를 하지 않게 하는 직장을 만들고 싶다고 한다. 본인이 스스로 제제할 수 있고 그래서 과도한 노동을 하지 않고도 즐겁게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한다. 그런 일터를 만들기 위해 역량을 키우겠다는 포부다.

또 자신의 모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남들처럼 기쁜 순간에 축하받고 힘들면 이야기할 수 있는 직장을 꿈꾼다. 자신의 사소하지만 사소하지 않은 이야기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충격처럼 다가오지 않고 공존할 수 있는 곳이 성소수자에게 꿈의 일터다.

::여섯 번째 사람. 이주노동자 트랜스젠더 미셀씨

오리

강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강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었기에 그 강함조차 마냥 칭찬할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인터뷰를 하고나서 남은 인상은 “강한 사람”이었다.

이주노동자

“왜 한국사람들은 40만원을 받고 우리는 하나도 못 받나요?”

미셀은 필리핀에서 온 이주노동자이다. 미셀은 어렸을 때부터 수많은 일들을 해왔다.

“너무 많아요. 처음에는 electrical instalation in the house, 건설업, mall에서 CLC assistance ,학교에서 교장 비서 등등 모든 것.”

노동은 살아가기 위해 필수적인 것.

“필리핀에서는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돈을 충분히 벌 수가 없어요. 한국으로 온 이유는, 노동자들을 외국에 보내는 정부 기관인 <필리핀 employment agency>에 신청을 했어요. 미국과 캐나다로 먼저 지원을 했는데, 자리가 없었어요. 세 번째 선택이 한국이었고, 마침 자리가 있어서 올 수 있었어요.”

필리핀은 커다란 인력수출 국가이다. 전체 8천만명 국민 중 10%에 육박하는 7백40만 명이 해외에서 일하고 있다. 스페인, 미국, 일본의 통치를 거치면서 제국주의 열강들의 수탈로 인해 못사는 나라로 알려진 필리핀에서는 많은 이들이 먹고 살기 위해 노동자로, 이주노동자로 살아간다.

-한국에 올 때 어떤 회사에 갈지 선택할 수 있어요?

“아니요. 고용주가 우리를 선택하지요.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를 옮기는 걸 다니는 회사에서 허락해주지 않으면 아무데도 갈 수가 없어요.”

-MTU 활동하기 전에 한국에 직장 6개 다녔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는 울산, 두 번째는 용인, 세 번째는 김포, 네 번째는 수원에 있는 발안, 다섯 번째는 서울 어딘가, 마지막은 성수에 있는 신발 공장.”

-직장을 왜 이렇게 많이 옮긴 건가요?

“주변 주민들에 의한 폭력이 있었어요. 제가 엘지비티라서 받은 차별이 아니라고요. 용인에서만 빼면. 외국인이라는 이유에 의한 차별이 많았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노동법을 어기는 거. 추가근무를 시키거나, 돈을 떼어먹는다거나. 어떤 이들은 최저임금보다도 적게 줬어요. 김포에서 저한테 회사에 오라고 했는데 80만원을 준다고 했어요. 당시 최저임금이 85만원인가 했거든요. 그리고는 거기서 20만원을 기숙사비와 식비로 떼갔어요. 그럼 남는 게 별로 없죠.”

인터뷰를 하면서 트랜스젠더라서 받은 차별에 대해 많은 질문을 했는데, 우리가 원하던 ‘구체적인 사례’가 잘 나오지 않았다. 미셀이고 그런 질문들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기억을 더듬어 대답하곤 했다. 그런데 이주노동자라서 받은 차별에 대해선 문자마자 줄줄이 나왔다.

-너무 다 괜찮다고 하니까 뭘 물어볼지를 모르겠네요. 남자, 여자 이런거 말고 이주노동자라서 받는 괴롭힘도 있지 않았어요?

“네. 있지요. 예를 들어 제가 “왜 한국사람들은 40만원을 받고 우리는 하나도 못 받나요?”라고 물어보면 “입닥쳐. 너는 한국사람이 아니잖아” 이렇게 말하죠. 괴롭힘이 많아요. 회사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택시를 탔는데, 어떤 택시 기사는 갔던 곳을 돌고 또 돌고 하죠. 제가 “길을 아니까 그러지 마십시오”라고 하면, 때릴 듯이 협박하고 그러죠. 그러면 전 “해볼테면 해봐요” 이러죠. 경찰을 부르면 되니까요. 괴롭힘이 정말 많아요. 지하철에서도 minor business? 좌석에 앉아 있으면 욕 많이 해요. 족발이라거나.”

그런 미셀에게 노동조합은 중요한 일이었다.

-노동조합 활동을 하잖아요. 언제 어떻게 시작한 거죠?

“2007년 10월, 제가 일하던 곳의 동료가 불법적으로 해고 당했어요. 그녀를 도와줄 사람을 찾던 도중에 오산?센터에 갔는데, 이 문제는 자신들이 해결하기 매우 힘들다고 했어요. 거기서 우리를 MTU에 보냈고, MTU에 가자마자 이건 정말 중요한 거라는 생각에 바로 가입했죠.(...)저는 노조경험이 없었어요. 필리핀에서는 그 어떤 사회운동이나 노동운동을 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에 저한테는 새로운 것이었죠. 하지만 MTU를 돕는 거, MTU의 프로그램들이 지속되는 것은 저에게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MTU의 지도부와 이야기했어요. 나는 엘지비티임이고, 노조경험도 없고, 한국말도 잘 못하는데, 이런 커다란 한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물어봤어요. 그들은 저를 지지한다고 했어요. 저는 저를 꼭 도와줘야만 하겠다

고 조건을 걸었죠. 제가 위원장을 하긴 하겠지만 모두가 일을 나누어서 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어려운 일이었죠. 왜냐하면 그 시기에 대부분의 지도부는 체포되거나 추방당해 있었거든요.”

트랜스젠더

“저는 FTM 트랜스젠더이고 트랜스젠더로 살아온지 약... 오래되서 까먹었네요.”

—트랜스젠더로 정체화하고 있었던 건가요?

“어렸을 적부터 그랬어요. 그 당시에 트랜스젠더라는 단어를 알지는 못했지만 레즈비언이 아니라고 느꼈어요. 누가 날 레즈비언이라고 부르면 화가 났어요. 레즈비언으로 정체화하지는 못했어요.”

—서류상에는 성별이 여성으로 나와있나요?

“네. 모든 법적인 서류에는 여성으로 나와있어요.”

—그게 어떤 회사에 뽑히는지에 영향을 미치나요?

“아닌 것 같아요.”

“아! 호르몬 주사를 맡고 있을 때, 나를 보면 남자로 봤다가 서류를 보고선 다시 나를 보고 왔다갔다 하다가, “이거 정말 당신이냐?”고 해요. 그런 일이 벌어지긴 해요.”

—회사에서 와서 직접 보고 데려가는 거 봐요?

“네. 힘들긴 해요. 왜냐하면 남성 여성 두가지 밖에 없으니까. 엘지비티를 위한 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자신이 트랜스젠더라는 것을 설명해야 하는 일이 있나요?

“네. 항상 해요. 그냥 제가 트랜스젠더라고 직접 말해요.”

—반응은?

“‘그렇구나.’ 그러고선 그냥 아무 말 안해요.”

“그냥 힘든 일을 더 많이 주죠. 하하하”

—한국에 와서 호르몬 주사 시작한거죠?

“호주에 있을 때 시작했어요. 하지만 필리핀에 돌아가서는 할 수 없었죠. 너무 비싸거든요.”

—한국에서는 어떻게?

“한국에서는 호르몬에 접근하기가 더 쉬워요. 왜냐하면 돈을 더 버니까요. 고향에서는 호르몬에 돈을 쓰기가 매우 힘들어요. 왜냐하면 호르몬에 돈을 쓰느니, 가족들이 생활 하는데 돈을 쓰게 돼요. 필리핀에서 일을 해서 버는 돈으로 보자면, 호르몬은 정말 비싸거든요.”

-호르몬은 와서 계속 했어요? 지금까지?

“지금은 출입국관리사무소 그리고 일문제로 병원에 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에게 호르몬을 주던 의사는 미국으로 갔어요. 그녀만이 호르몬은 5번, 10번 맞을 양을 한꺼번에 주곤 했어요. 다른 병원에서는 호르몬을 맞을 때마다 찾아가야 해요. 제 의사는 한 번 맞고 나머지는 제가 주사할 수 있게 했어요.”

본인의 정체성으로 인해 일하면서 받는 차별이나 괴롭힘을 물어보았다.

“한국에서 일할 때는, 제가 워낙에 개성이 강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저한테 뭐라고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놀리기는 하죠. 좀 힘들어요.”

“아! 맞다. 용인에서 일할 때 저보고 비정상이라거나 한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는 좋았지만 그 회사가 좋진 않았어요. 그것도 그 회사를 떠난 이유 중에 하나지요.”

-어떤 식으로 놀리나요?

“여자가 제 몸을 만지거나 하죠. ‘아줌마’가 “너 남자야? 여자야?”이러면서 만져요. 그러면 저는 “남자야.” 이러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래요?

“그냥 계속 만지려고 해요. 가슴이나... 저를 느끼게 하려고 하거나.(feel me up) 매우 성적인 폭력이지요.”

-필리핀 커뮤니티에서는 다 밝히고 지냈으니까, 젠더 정체성을 숨겨서 생기는 외로움 같은 건 없었겠네요?

“네. 하지만 가끔씩 불편하긴 했어요. 계속 나를 여성 대명사로 불렀거든요. 차별을 받거나 하는건 아니지만, 필리핀 사람들은 잔인한 면이 있어요. 농담이라고 하지만, 그게 얼마나 공격적인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를 그녀로 칭하지 마라, Miss로 부르지 마라”등등을 이야기하죠. 그래도 계속 그러긴 해요. 절 놀리는게 목적이거든요. 그게 어쩔 땐 정말 상처가 되죠. 의도적으로 "mam, oh! sir oh! mam" 이런 종류의 농담을 하죠. 이게 계속되면 정말 기분 나빠져요.“

미셀은 정말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 같다. 나는 일터에서도, 직장 동료들의 모임

에서도 게이라고 이야기하지 못한다.

-위원장 나갔을 때, 커밍아웃을 어떻게 한 거예요?

“저에게 위원장을 제안했을 때, MT에 갔어요. 그 MT에서 저의 한계점들을 말했어요. 방글라데시 동지는 이슬람이고, 네팔 동지는 불교나 힌두교이고, 이들은 카스트 시스템이 있어서 위계구조가 정해져 있어요. 이들이 엘지비티인 위원장을 신뢰하고 따라줄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의 이런 걱정들을 세세하게 모든 걸 말했어요. 그랬더니 나를 지지한다고 말해주었고, 제가 엘지비티인건 그리 큰 문제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게 우리가 하는 일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어땠어요? 반응이.

“아무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놀랐어요. 다들 너무 지지해주었거든요. 정말 좋다고 생각했어요. 전 그런 반응을 예상하지 않았거든요.”

-저한테 이야기해 준적이 있잖아요.

“동지 한명이 와서 “축하합니다. 우리모임에 드디어 여자가 있어서 기쁜네요”라고 했어요. 저는 ‘아 방금 내가 트랜스젠더라고 말했는데, 이 사람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구나’ 했지요. 그에게 설명해주었어요. 그는 알겠다고 했지요. 제 생각에 (절 지지해준 이유에는) 그들이 트랜스젠더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 같기도 해요.”

-그 이후에 활동하면서 당신의 정체체성으로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나요?

“한 친구가 저를 계속 누나라고 부르거나 그녀she로 부르기는 했어요. 그런 매우 사소한 것들. 저는 그들을 이해해주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려면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들에게 강제로 이렇게 말하라고 하거나 생각을 바꾸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설득을 하려고 해요.”

이주노동자와 트랜스젠더, 이렇게 인터뷰를 구성해봤다. 하지만 미셀의 이야기에서 드러나듯이 삶은 그렇게 딱 나뉘지 않겠지. 이주노동자이자 성소수자로 이중차별을 받고 있다는 말로도, 이주노동자로 너무 심하게 차별받기에 성소수자로서의 차별이 선명히 드러나지는 않는다고도 말하긴 힘들다. 그의 삶이 차별만으로 이야기되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마지막으로 이주노동자와 트랜스젠더라는 정체성, 이 둘이 다른 방식으로 얽히고설킨 이야기 둘을 소개하면서 마치렵니다.

1.

“필리핀 여성 모임을 만든 적이 있어요. 남성 친구를 데리고 와서 여성모임이 되진 않았지만요. 그 모임이 젠더 감수성, 드러내기(gender sensitive, gender exposure group) 모임이 되었어요.”

-아! 레인보우?

"아니, 엠브렐라. 이 모임에는 엘지비티 멤버들이 있었어요. 게이도 있고, 레즈비언도 있고. 거기서 시작했죠."

-엠브렐라에서 엘지비티 주제 가지고 프로그램 해본적 있어요?

"하진 못했어요. 우리 했던 대부분의 주제는 노동법 관련한 교육이었어요. 하지만 젠더 드러내기(exposure for gender) 같은 건 했어요. 한번이긴 하지만."

"한번은 3xFTM 감독과 만나려고 했어요. 엠브렐라 사람들에게 영화를 보여주려고 했어요. 할 수 없었어요. 왜 못하게 되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네요."

-젠더 드러내기가 뭐죠?

"엘지비티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다른 젠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2.

-직장에서 한국인 노동자들 중에 엘지비티를 만나거나 들은 적은 없죠?

"있어요. 5번째 옷 만드는 회사에 다닐 때 FTM 트랜스젠더가 있었어요. 그 회사 사람들은 저를 잘 받아들였어요. 거기에 이미 한국인 트랜스젠더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트랜스젠더라고 말했을 때 곧바로 이해했죠."

-그 사람이랑 이야기도 많이 하고 친했어요?

"아니요. 그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차별했거든요. 매니저였어요."

마치는 글

우리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1.

이번 글들에서는 1차 조사에 집중했던 것처럼 제도적 차별을 밝히는 부분에는 크게 집중하지 않았다. 1차 조사에서 보여준 것 같이 다수의 노동자들은 자신이 어떤 차별에 직면해 있는지도 모르는 채로 살아왔고, 일부 대기업 정규직을 제외하면 실제로 주어지는 복리후생상의 혜택이라는 것이 미미해서 그것을 기록하는 것이 이번만큼은 큰 의미가 없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물론 이 부분은 추후 다른 방법을 통해 보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터뷰에서 노동 문제와 다소 상관이 없어 보인다고 하더라도 흥미로운 내용이 있다면 신기 위해 노력했다. 그렇다한들 그가 노동자임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1차 조사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현실에서 우리의 삶과 노동의 문제는 거의 구분이란 될 정도로 밀착해있다는 점 때문에, 시시콜콜해 보이는 이야기들을 통해 성소수자 노동자들이 일상에서 느끼게 되는 감정들을 공유하고자 노력했다. 잘 되었다고 자신하기는 어렵지만 ^^

2.

지난 10월, 우리는 가판대를 끌고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에 갔다. 서울학생인권조례 서명을 받고 있는 우리들에게 건설노조 조합원 한 분이 시비를 걸었다. 그는 호모포비아를 드러냈고 잠깐 실랑이가 벌어졌다. 그의 동료들이 ‘동성을 좋아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그를 억지로 만류하여 데리고 갔다. 그날 우리는 좀 혼란스러웠다. 비정규 노동자들과 연대하려고 나간 자리에서 비정규 노동자에게 혐오의 대상이 되다니.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해왔으면서도 막상 현실로 닥치니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 고민하게 되었다. 사실 개인이 일으킨 문제라고 치부하고 건설노조에 문의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며칠이 지나 이 사건을 트위터에 올린 동인련 회원에게 건설노조 활동가가 연락해왔다. 조합원의 행동에 정식으로 사과하고 싶다고 말이다. 건설노조의 다른 활동가들에게 연락해보았더니 몇몇 활동가들의 제기로 노동조합 상집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되었다고 한다. 공식적인 사과와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말이다. 이런 경험은 우리에게 연대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남자들만 가득한 건설노조에 우리에게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치부해 버렸던 나를 돌아보았다. 어쩌면 진짜 변화는 부딪히고 그래서 누군가가 이야기하고 몇 명 쯤이 웅성웅성댈 때에서야 시작될지도 모른다.

부록 끝

“우리의 일터에 무지개를 허하라아아~~!” 행성인 성소수자노동권팀을 소개할게요!

행성인 성소수자노동권팀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어요!

#1 일하는 성소수자 모임

두 달에 한 번씩 만나 성소수자 노동권을 이야기하는 모임이에요. 벚꽃놀이도 가고, 영화도 보고, 같이 책 읽으며 세미나도 하고, 강의를 듣기도 해요.

#2 성소수자 노동자 인터뷰

이번 인터뷰 사업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성소수자 노동자들을 인터뷰할 예정이에요. 보이지 않는 성소수자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기대해주세요!

#3 노동조합 대상 성소수자 노동권/인권 교육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한 성소수자 노동권/인권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어요! 인권 초보를 위한 기초, 성소수자 되어보기 등 기초 프로그램부터 성소수자 노동권, 성소수자 인권 현안, 공동체에서의 다양성 등 깊은 내용까지 다룰 수 있어요! 교육 요청은 노동권팀 메일 rainbownodong@gmail.com 으로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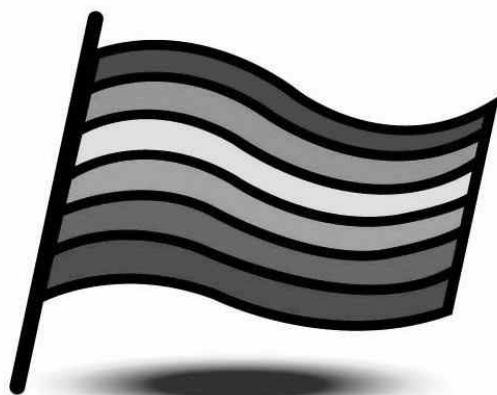
#4 ‘일하는 성소수자 대나무숲’ 페이스북 페이지 운영

일하는 성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모으고, 나누기 위해 대나무숲을 운영하고 있어요! 어디서도 하지 못했던! 속에만 있었던! 그런 말들을 전해주세요! 페이스북에서 ‘일하는 성소수자 대나무숲’을 검색하세요!

그 외에도 노동절(5월), 퀴어문화축제(6월), 전국노동자대회(11월)에 거리로 나가 캠페인도 하고, 투쟁하는 사람들을 찾아가 연대도 하고 있어요.

평등한 일터! 나답게 노동할 수 있는 일터!

행성인 성소수자노동권팀의 꿈을 응원하신다면 행성인과 함께 해 주세요!



행동하는 성소수자가 세상을 바꾼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는 성소수자 차별 없는 평등한 세상을 위해
실천과 연대의 원칙을 가지고 활동하는 성소수자 단체입니다.
성소수자 차별을 반대하고 인권이 존중받는 세상을 원한다면
행성인과 함께 활동할 수 있습니다.

성소수자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한
여러분의 관심과 후원을 기다립니다.

후원/회원가입: lgbtpride.or.kr

lgbtpride@empas.com

02-715-9984

신한 140-010-905331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이호림)